

태권도

TAEKWONDO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TA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PECIAL REPORT I

2019년이 저문다!

SPECIAL REPORT II

국기원, 새 옷으로 갈아입다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19 VI

INTERVIEW

이화현 KTA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임신자 경희대학교 체육부장

TOPIC

2019 KTA 품새 최강전 SEASON II

LEGENDARY PLAYER

1989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함준 고양시청 감독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9·10월의 선수' 인교돈
『태권도』 선정 '9·10월의 유망주' 이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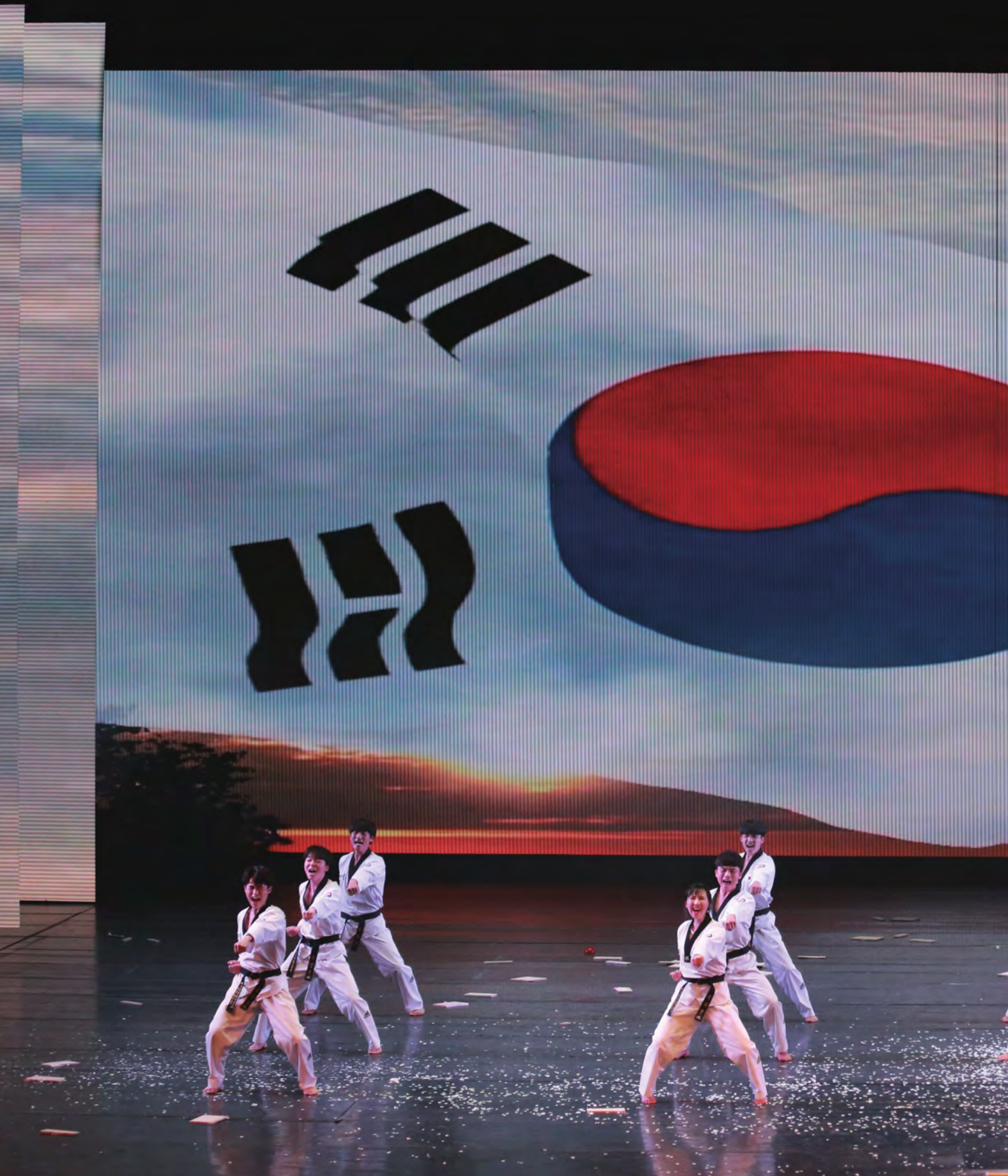


VOL. 177 2019

11·12.











SPECIALREPORT |

2019년이 저문다!

- 016 한 해를 수놓고 사라져 가는 그때 그 일, 저무는 2019년을 재촉한다
- 018 『태권도』 선정 2019년을 달군 국내외 7대 뉴스
- 022 겨루기 결산 국제 무대 수놓은 한국 겨루기, 국내에선 어떤 모습을?
- 026 품새 결산 기존 대회 유지하며 품새 최강전 창설해 친미디어·대중화 모색

EDITOR'S LETTER

- 013 '태권도 시범 공연' 을 주목하는 이유

PROLOGUE

- 014 만물을 품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표지 사진 인교돈

NATIONAL TEAM

- 028 2019 WORLD GRAND PRIX
8부 능선 넘어선 2020 도쿄(東京) 올림픽행... 누가 갈까?
- 030 2020 도쿄(東京)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에서 지켜본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의 $\alpha \sim \omega$

INTERVIEW

- 040 이화현 KTA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저출산, 고실업, 고령화에 대비하겠다”
- 042 임신자 경희대학교 체육부장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 의 동지 만들려 한다”

TOPIC

- 062 2019 KTA 품새 최강전 SEASON II ①
대망의 두 번째 마당, 황홀한 환상극으로 펼쳐지다
- 064 2019 KTA 품새 최강전 SEASON II ② PICTORIAL
화려하게 돌아와 몽환적으로 펼쳐졌다
- 066 태권도와 축구가 처음 만난 그곳은 환호와 갈채로 뒤덮였다

ISSUE

- 068 열악한 재정 자립도의 한국 체육,
새 체육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032

SPECIAL REPORT II

국기원, 새 옷으로 갈아입다

- 032 고초를 헤치고 핀 동백꽃처럼 '희망꽃' 활짝 필 국기원을 그린다
- 034 INTERVIEW 최영렬 국기원 신임 원장
"위기의 국기원을 빛나는 국기원으로 만들겠다"
- 036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이 국기원 정상화 키워드... 통합은 기본
- 039 REPORTER'S EYE
의식 개혁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 개선, 갈등의 골 메우기 힘들어

PHOTO ESSAY

- 070 김운용 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늘 앉던 레스토랑 지정석
- 072 온 하늘과 땅을 놀라게 했던 격분의 함성이 되살아날 그 날을 기약한다

PHOTO OF THE MONTH

- 074 새 출발을 알리는 여걸(女傑)의 '거수경례'

REPORTER'S EYE

- 075 2020 도쿄(東京) 올림픽, 니폰부도칸(日本武道館)과 마쿠하리메세(幕張メッセ) 사이

PLAYER OF THE MONTH

- 088 『태권도』 선정 '9·10월의 선수 인교돈' 악성 림프암 이겨 낸 '3회전의 마법사'
- 090 『태권도』 선정 '9·10월의 유망주' 이예지 "연습은 끝났다" ... 아시아 정상 노리는 경상북도 딸내미

COMPETITION

- 092 제28회 국방부장관기 단체 대항 대회 '맹탕' 준결승·결승전 속출, 제도 변화로 모순점 극복해야
- 094 제100회 전국 체육 대회 서울, 4연패 노리던 경기 꺾고 종합 우승
- 096 2019년도 경찰청장기 남녀 우수 선수 선발 대회 '무도 특채' 안새봄-김빛나, 환하게 미소 짓다!





080



084



098

117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19 VI

- 044 KTA와 공동체 인식에서 태권도장은 활성화 첫걸음 내디뎠다
- 046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의 이해
- 048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태권도 교육의 설계도
- 050 KTA 지상 강좌 지도법 <6>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 <2·끝>
- 054 KTA 지상 강좌 경영법 <6> 공개 심사 매뉴얼
- 058 도장 탐방 <11> 코리아 태권도장(대전광역시)
“태권도장은 태권도다워야!” ... 실천과 무도 추구하는 ‘강한 도장’

HISTORY

- 076 한국 태권도의 자취를 찾아서 <11>
태권도는 어떻게 현대화됐나? ① 스포츠 태권도의 의미
- 079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11>

LEGENDARY PLAYER

- 080 <10> 1989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함준 고양시청 감독
“열정과 도전 의식이 식을 때는 지도자 관둬야”

VISION & TREND

- 084 한민족 전통 무예 시리즈 <10> 치명적 비극술의 고수 박성호 씨
전통 무술 ‘수뺏기’를 현대화한 ‘동이택견’

OUR FAMILY

- 098 <19·끝> 충청북도태권도협회(CBTA)
‘배려’와 ‘화합’이 살아 숨 쉬는 CBTA, 부활을 노래한다

KTA & NEWS

- 101 KTA 동정 &

OUR WORLD

- 110 YOUNG '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PROPOSAL

- 114 ‘사범 관리’가 아니라 ‘사범이 관리’ 대!
- 115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3·끝>

NEW BOOKS

- 116 『KTA 태권도장 상담 매뉴얼』
KTA, 도장 상담 α에서 ω까지 총망라한 교재 내놓아
- 117 『한국 태권도 연구사의 검토』
객관적으로 태권도 기원을 들여다본 수작

RECORDING ROOM

- 118 9·10월 각 대회 기록

CALENDAR

- 120 11·12월 주요 일정

PUZZLE

- 122 SUDOKU



태권도

TAEKWONDO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종합기획 에디터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자문위원	▲ 도장 = 손성호(KTA 도장관리위원장) 진재성(KTA 강사) ▲ 학교 = 김종현(웅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체육부장) ▲ 경기 = 장명수(KTA 겨루기 경기위원장) 최종식(KTA 품새 경기위원장) ▲ 심판 = 천우필(KTA 겨루기 심판위원장) 박상수(KTA 품새 심판위원장) ▲ 지도자 = 이창건(겨루기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김인기(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 ▲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 단장) ▲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각 분야별 가나다순
객원 기자	양택진 태권도신문 취재부 차장 류호경 태권도신문 취재부 기자
제작 실무	김충환 전략사업부 부장 강경훈 전략사업부 과장 박혜정 전략사업부 주임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 경희대학교 = 김민서 김수진 김정은 박진주 정혜나 지민주 ▲ 계명대학교 = 정준우(교육대학원) ▲ 용인대학교 = 안정현 ▲ 전주대학교 = 공찬욱 ▲ 한국체육대학교 = 육정균(대학원)
등록 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19년 11월 8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제작	명진 C&P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태권도』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합니다.

‘태권도 시범 공연’을 주목하는 이유

글 서완석



2015년이니까 벌써 4년 전 일이다. 대한태권도협회(KTA)가 태권도 퍼포먼스인 ‘탈’을 만나면 멕시코의 푸에블라에서 공연했다. 때마침 푸에블라에서 개최된 제2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평소 공연 관람에 익숙지 않던 필자는 그 대회 취재차 현지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공연장인 ‘슈퍼 블레토스’를 찾게 됐다. 태권도를 소재로 한 공연을 먼 이국땅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생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서울에서 ‘난타’, ‘점프’ 같은 난버벌(비언어) 공연을 본 적이 있던 터라, 그런 수준의 공연 정도로만 상상했다.

평소 뮤지컬 공연장으로 사용된다는 슈퍼 블레토스엔, 약 5,000명의 관객이 몰렸다. 어떻게 알고 그 많은 관객이 몰렸는지 지금도 수수께끼다. ‘탈’ 공연은 절대적 힘을 가진 탈을 빼앗은 악당과 결투를 벌이는 주인공 테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태권도, 한국 무용, 타악, 비보잉 등 한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를 조합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난버벌 공연답게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없었으나, 공연이 끝났을 때 현지인들의 우레 같은 박수가 꽤 오래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태권도는 이처럼 난버벌 퍼포먼스로 재탄생하고 있다.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록 음악 또는 은은한 전통 음악 속에서,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와 공중 격파를 결들인 공연물이 세계인을 사로잡은 것이다. 본격적 태권도 공연이라 할 순 없지만, 2003년 초연된 ‘점프’가 태권도 공연의 효시다. 이어 ‘더 태권 포스-에이지 오브 태극’, ‘탈’, ‘라이벌’, ‘비기비’ 등이 관객 물의를 했다. 특히 배우로 변신한 22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펼치는 ‘더 태권 포스-에이지 오브 태극’은 품새·겨루기·격파 등 태권도의 진수를 마음껏 보여 줬다. KTA는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킵스’를 장기 공연해 호평받았다. KTA뿐만 아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도 태권도 공연물에 주목하고 상설 공연화하고 있다. 흔히 태권도는 한국이 21세기 세계 속에 내놓은 최고의 인류 문화 유산이라고 한다. 태권도를 스포츠화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집어넣은 노력은 KTA 창립 30여 년 만인 1994년도에 맺은 결실이다. 여기에 전 세계로 진출한 사범들은 한국의 전통 사상을

태권도에 담아 ‘태권도 정신’이란 이름으로 보급했다. 스포츠 태권도와 함께 정신문화까지 없어 전 세계에 보급한 셈이다. 태권도가 여느 스포츠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태권도 공연은 태권도의 또 다른 장르다. 격파·아크로바트·폼새 등을 조합한 기존 ‘태권도 시범’에 스토리를 입히고 조명과 음악과 연기까지 더해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점에 바로 ‘태권도 공연’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KTA는 이 점에 착안해 오는 11월 23-24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강당에서 사상 첫 태권도 공연 경연 대회를 갖는다. 예심을 거친 8개 팀이 출전해 팀당 20분씩 공연을 통해 최고의 태권도 공연물을 가린다.

이 같은 경연 대회가 성사된 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태권도 공연은 달리 생각하면 문화+체육+관광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다. 태권도라는 몸짓에다 공연 예술을 더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자는 KTA의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셈이다.

태권도 공연이 활성화되면, 대학의 태권도학과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태권도에 문학(스토리)를 더하고, 음악·미술·연기·조명까지 더하는 태권도 공연의 중심에, 태권도학과가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문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연극학과까지 아우르는 태권도 공연의 마력이 발휘되는 셈이다.

아울러 태권도 공연 명칭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품새·격파·아크로바트를 조합해 태권도 우수성과 위력을 과시한 것을 흔히 ‘태권도 시범’이라 했다. 여기에 공연 예술을 더해 흔히 ‘태권도 시범 공연’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명칭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공연한 ‘점프’, ‘탈’, ‘킵스’ 등 여러 퍼포먼스는 태권도를 소재로 한 공연물이었지 태권도 시범을 보여 줄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 공연’이 아니라 그냥 ‘태권도 공연’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차제에 이번 공연 우수작에 대해, 정부는 이를 관광 상품으로 유도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태권도가 진정한 인류 문화 유산으로 세계인에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물을 품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글 최규섭 사진 Shutterstock

“황홀하던 단풍 그 정열 다 식고 / 잎새들
몇 앞만 바람에 하늘하늘 / 우리는 떨어져
어디로 가느냐 / 양상한 가지 붙잡고 묻고
있네 / 눈구름 떠오다 왜 머뭇거리나 / 낙엽
은 굴러가다 왜 머뭇거리나 // 하늘은 나날
이 드높아만 가고 / 맑은 거울 판에 우리를
비추네 / 갈대들 몸 비비며 서걱이는 소리
/ 흰 구름 떠가며 귀 열고 듣는가 / 오리 떼
날아오다 왜 머뭇거리나 / 허수아비에 쫓긴
참새 떼 비웃네.”(“11월의 노래”, 박영만)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다. 오늘따라 추적
추적 내리는 가을비는 시간의 흐름을 재촉
한다. 붉게 물들어 농염한 모습을 뽐내던
온 천지는 시나브로 초췌해져 간다. 나신
이 된 부끄러움에 못내 겨워 울음을 터뜨
릴까 사뭇 저어된다. 자칫 흐트러질 듯한
마음을 이지러진 달[虧月·휴월]을 보며 가
다듬는다. 차오름과 이지러짐을 씬 없이 되
풀어하면서도 천체의 하나로서 본분을 다
하는 달의 모습에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
및 절기의 갈마듬이 자연의 섭리임을 새삼
스레 깨우친다.

끝과 끝은 서로 이어져 통한다. 끝은 시작
의 또 다른 형태다. 11월(음력 10월)을 ‘상
(上)달’이라 일컫는 옛사람의 지혜 앞에서,
절로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헛곡식을 신에
게 드리고 겨울나기를 위해 식량을 잘 갈
무리해야[秋收冬藏·추수동장] 할, 1년 가운
데 첫째가는 달이라 여긴 그 혜안은 놀라
울 뿐이다. 선인의 안목과 식견은 경탄을
자아낸다. 아울러 일깨우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수확과 저장을 슬기롭게 버무려
훗날을 맞이하리라.”

“가련다! / 밀려오는 아쉬움 / 내키지 않는
발걸음 / 천근만근 짓누르는구나 / 뒤로한
추억 저편 / 망각을 강요하는 나달의 최측 /
나약한 마음 돌 곳 없도다 / 씬 없는 연광의
흐름 / 도태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
끝내 정치를 찾지 못했네. // (중략) // 밝힌
다! / 귀청을 울리는 종소리 / 먹먹함에 일
깨워지는 정신 / 더욱 무성해진 연륜의 뜨
락을 영양분 삼으리라 / 만물을 품고 흐르
는 연화 / 공평한 자연의 섭리 / 굴복하지
말라고 복돋우도다. / 일희일비를 초월하려
는 마음가짐 / 완숙해지는 인생 / 내일의 해
를 약속하도다.”(『부끄러운 고백』 춘추필)

보는가 했다,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2019
년 원단의 해를. 듣는가 싶었다, 기묘년을
수놓겠다는 야망의 외침을. 그러나... 무참
(無慚)하다. 그토록 다짐했던 약속을 어찌
이렇게 기약 없이 허공에 날려 버릴 수 있
다는 말인가. 새해 벽두의 마음가짐은 공
허하게 저 멀리 사라지고, 한 해의 뒤꼍에
선 오늘, 허무함만이 그 빈자리를 파고든
다. 관스레 세월을 탄한다. 엇그제 찾아왔
건만 벌써 지루해졌을까? 잦싸게 발걸음을
놀려 사라지려 한다. 야속하다. 그 변덕을
어떻게 당하라.

다잡는다. 쓸쓸하고 애달픈 느낌일랑 사치
스러운 상감(傷感)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나무란다. 허약한 상념에 젖었던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래!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찬
세상이야.’ 자신을 달래고 보듬는다. 아울
러 ‘어제의 싹에서 내일의 꽃을 피우리라.’
다짐을 거듭한다. 석별의 아픔 대신 포옹
의 환희를 누리겠다. 환하고 포근한 ‘태권
도 세상’을 맞이할 그 날까지 세화를 벗 삼
아 씬 없이 걸어가련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리라.

2019 기해년을 보내며

※ 연광(年光)·연화(年華)·나달·세화(歲華) = 세월

한 해를 수놓고 사라져 가는 그때 그 일, 저무는 2019년을 재촉한다

글 최규섭 사진 태권도 신문 제공



2019년이 저문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가듯 발걸음을 옮기는 세월이다. 잠시도 쉴 겨를이 없는 양 분초를 다뤄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이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리도 바쁠까? 그래도 편협하지 않다. 기쁨도 슬픔도 가리지 않는다. 사랑도 미움도 고르지 않는다. 넉넉한 그 품은 온갖 현상과 사물을 안는다. 동여매려고도 얹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쫓으려고도 붙잡히려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거침없이 앞으로만 향한다. 애 기묘년(己卯年), 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붙들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가 버린 그를 다시 되돌려 세울 순 없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신이라면 모를까? 힘없는 인간 아닌가. 거슬러 돌아가기엔 역부족임을 절감한다. 바람결에 종종히 사라져 가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볼 뿐이다. 나약한 존재라는 서글픈 마음을 어찌 달랠 길 없다. '나 몰라라' 하는 듯 앞만 바라보며 내닫는 그가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가슴에 스미는 바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 애 돌아보고 기다려다오.



그래서인가 보다. 오래 이맘때면 오르내리는 화두, ‘다사다난’이다. 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면, 유달리 그해는 무수한 일이 벌어지고 어렵고 탈도 많았던 듯 보이기 때문일 듯싶다.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여러 일과 사건은 환희와 열광, 시련과 곤란, 그리고 변화와 곡절과 버무려져 못사람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마음마저 빼앗기 마련이다. 그뿐이랴. 꼬리를 물고 잇달아 일어나 깊이 음미할 새도 없다. “영원은 찰나의 연속일 따름이다.”라며 그 순간의 감정만을 요구한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그래, 그때 그 일은 대단했어!” 감탄을 자아낼 만한 오만 가지 일이 찾아왔다가 떠나갔다. 돌이켜 보면 긴 여운을 남긴 화제도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간 이야기거리도 있다. 태권도계로 공간을 좁혀도 매한가지 현상이다. 아직도 진동이 사라지지 않은 체 지표로 분출될 시기를 저울질하는 지동(地動)까지 잠재해 있는 상태다. 과연 무엇이 올해 태권도계 명암을 엿갈리게 했을까? 희망과 절망, 고취와 체념의 희비쌍곡선을 빛낸 2019년을 되돌아봤다. ㉞

『태권도』 선정

2019년을 달군 국내외 7대 뉴스

글 양택진 사진 양택진, WT 제공

『태권도』 2019년 신년 호 표지 사진을 찍기 위해 영하 22℃의 추위에 귀를 감싸며 일출을 기다리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기해년이 그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망설임도 없이 저만치 달려 나가는 황금 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올 한 해 국내외 태권도계를 들썩인 장면들을 되짚어 보니, 희망과 우려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태권도』는 2019년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202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심 끝에 KTA 품새 최강전부터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까지 기해년 국내외를 달군 7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차고 지르며 날아오른 품새, 최강전으로 도약하다

『태권도』가 선정한 2019년을 장식한 국내외 7대 뉴스의 으뜸 자리는 명실공히 품새의 외연과 내실의 패러다임을 바꾼 KTA(대한민국 태권도협회) 품새 최강전이 차지했다. KTA가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재미있는 태권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민하게 기획해 지난 3월 9일 K-아트홀에서 선보인 이 무대는 자유 품새를 통해 '70초의 미학'이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본선에 오른 품새 고수들은 숨소리조차 잦아든 K-아트홀 무대에서 차고, 지르고, 날아 올랐다. 복식전(2명)과 단체전(3명)으로 팀을 구성한 '태권도 종가(宗家)'의 품새 고수들



KTA 품새 최강전 시즌 II에서 우승한 K. 강화군청-수리온의 연기 모습이다.

은 각자의 개성과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음악을 선정하고, 태권도 동작과 고난이도 기술을 창작해 선보이며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볼거리를 선사했다. 뛰어 옆차기, 뛰어 앞차기, 회전 발차기, 연속 발차기, 아크로바틱으로 치닫는 기술의 대향연은 가히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 KTA 상임 심판과 외부 전문가와 현장 관중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 SPOTV 녹화 중계 ▲ 총상금 1,800만 원 ▲ 여기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유료 입장 제도가 어우러지면서, 태권도 대중화 가능성이 엿보였다. 숙제도 남겼다. 자유 품새의 특성상 고난이도 발차기에 대한 용어의 세분화와 통일성, 기술 순서에 대한 자유로운 구성, 기술의 진보에 따라 채점의 정교성과 구체성 등이 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드러났다. 마케팅을 통해 스폰서십을 맺어 상금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듯싶었다.

품새 최강전의 성공은 2019년 하반기 '관람형 태권도'의 동력으로도 이어졌다. KT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겨루기, 품새, 그리고 시범 공연 부문에서 관람형 태권도를 마련했다.

이 중 품새는 최강전 시즌 II로 열렸다. 지난 10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시즌 II는 기존 자유 품새에 공인 품새와 새 품새를 추가했고, 3명에서 5명까지(임의 선택) 단체전 형식으로 대회를 치렀다. 다만 시즌 I에 비해 단체전 구성의 숫자, 새 품새 및 공인 품새 도입, 관중 참여율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긴 부분은 내년 무대에 대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KTA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이틀간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강당에서 2019 KTA 태권도 시범 공연, 12월 7일부터 이틀간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위력 중심의 반자동 전자호구를 사용하는 KTA Power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를 관람형 태권도로 무대에 올린다.

2 등장과 함께 세계 태권도계를 뒤흔든 스무 살 3인방

해성처럼 등장한 한국의 스무 살 삼인방이 전 세계 스포츠 태권도계에 지각 변동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장준(한국체육대학교)은 급기야 남자 -58kg급 올림픽 랭킹 1위를 꿰찼고, 배준서(강화군청)는 '톨(Tall)권도'를 무력화시키며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남자 -54kg급 정상에 섰다. 그리고 박우혁(한국체대)은 증가 한국의 '무덤 체급'이었던 남자 -80kg급서 12년 만에 한국에 세계 선수권 메달을 안기며 태권도계를 들썩였다.

삼인방의 등장은 이미 예고됐었다. 그 싹이 꺾이지 않길 애타게 지켜본 많은 경기인은 드디어 올해 그들이 찬란하게 비상하는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016 버너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강심장의 면모를 발휘하며 눈도장을 찍은 장준은 이후 국제 무대에서 쾌속 질주하며 그랑프리 통산 5회 및 4회 연속 우승이라는 호기록

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이 밀어낸 선배 김태훈(수원시청)과 벌일 2020 도쿄(東京) 올림픽 최종 선발전뿐이다. 단신(172cm) 배준서의 화력은 무적이었다.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배준서는 여섯 경기 256점이라는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듯한 공격력을 뽐내며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전자호구 등장 이후 스텝과 기술이 아닌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선수가 스포츠 태권도에서 유리하다는 시각을 자조하며 생겨난 신조어 톨(Tall)권도를 무색케 했다. 싸움 기술은 신체 조건이 불리한 선수가 큰 선수를 상대해 승리할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한국의 다윗' 배준서는 바로 그 점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했다.

한국은 2007년 베이징(北京)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웰터급(당시 -78kg)에 출전한 장창하가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80kg급 메달리스트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 한을 박우혁이 씻어 냈다. 박우혁은 신장 191cm로 국내 선수들 중 가장 이상적 신체 조건을 지녔다.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악의 대진표를 받아 들었지만, 박우혁은 그랜드슬램 2년 연속 우승자인 막심 흐람트코프(러시아)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몸싸움과 공격 기술로 변칙 태권도를 찍어 눌렀다. 박우

혁은 결승 길목인 4강전에서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올림픽 랭킹 3위 밀라드 베이지 하르체가니에게 비록 20:37로 석패했어도, 단비 같은 동메달로 증가의 자존심을 치켜세웠다.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장면.

3 '쫓지 오더' 사태... 잘못된 과거와 단절 선언해야

증가 태권도계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올해 초 KTA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코칭스태프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쫓지 오더 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은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지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실무 부서 처장에 의해 두 명의 경향 위원에게 6명의 명단이 적힌 쫓지가 건네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의 신뢰성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냈고, 연루된 협회 직원 두 명이 법의 심판을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혹자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관례처럼 벌어졌던 일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다. 신속하지 못했던 KTA의 사태 수습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거수기 경향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가 태권도의 경기력 발전

'증가 삼인방' 장준-배준서-박우혁(왼쪽부터)은 등장과 함께 세계 태권도계를 뒤흔들었다.



을 위한 소임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시대는 바야흐로 '정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태권도계의 시계 역시 진보와 진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KTA는 경향위를 재구성했다. 구습처럼 내려온 잘못된 과거와 단절은 새롭게 거듭나야 할 KTA의 남은 숙제가 됐다.

4

절차적 정당성 첫 단추 채운 국기원... 아직은 갈 길 멀다

개혁과 정상화는 국기원의 오랜 숙제다. 2010년,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지만, 태권도계의 염원과 달리 그 위상은 여전히 바로 서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으로 국기원에 입성한 오현득 전 원장의 전횡과 국기원을 둘러싼 태권도인의 갈등은 세계태권도본부로 병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이라는 화두에 직면케 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 흐름에 올라탄 국기원 개혁과 정상화는 임원 선출의 정당성·대표성·국제화라는 시대적 과제의 엄중함으로 귀결됐는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준비하는 데만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오현득 전 원장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으며, 오대영 전 사무총장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원장선출위원회 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열 국기원 원장.



WT와 ITF는 유엔 제네바 본부 어셈블리 홀에서 펼친 합동 시범으로 화합의 한순간을 빛냈다.

굴곡진 고비를 넘어서며 구성된 원장선출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62명의 선거인이 참석해 투표에 들어갔는데, 최영열 후보가 단 한 표 차이로 과반수를 얻어 사상 첫 선출직 국기원 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오노군 후보의 이의제기로,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 됐다.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0명의 이사 후보자 중 이사회는 12명의 신임 이사를 선택했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투표가 이뤄졌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차기 이사회로 미뤄졌다. 물론 임원 선출이 국기원 개혁과 정상화의 완결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시작일뿐이다. 세계태권도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국기원의 개혁과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5 승리보다 귀한 평화... 갈라져 자랐지만, 뿌리는 하나

지난 4월 12일(현지 시각),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유엔 제네바 본부(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OG) 어셈블리 홀에서 유럽 합동 태권도 시범을 가졌다. WT 시범단은 고난이도의 화려한 발차기를, ITF 시범단은 위력 격파와 실체를 방불케 하는 호신술로 각각 갈채를 받았다. 남북 태권도 교류는 2002년 9월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KTA 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해 시범 공연을 펼치고,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그 다음 달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다리가 놓였다. 이어 2007년 4월 장웅 전 ITF 총재가 조선태권도위원회 소속 시범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2015 첼랴빈스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선, WTF 주최 대회 처음으로 북한 주도 ITF 시범단이 참석했다. 또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선, ITF 시범단이 방한해 무주-전주-서울에서 각기 시범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엔, ITF 시범단이 다시 8개월여 만에 방한해 개최식 사전 공연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시범을 선보였다. 같은 해 WT가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단독 및 합동 시범을 펼쳐 태권도를 통한 평화의 초석을 다졌다. 태권도는 갈라져 자랐지만, 뿌리는 하나다. 평화는 그 어떤 승리보다 귀하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선보인 경기복.

6 '뜨거운 감자' 경기복... 생산적 토론은 실종

2020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 테스트 이벤트에서, WT가 선보인 겨루기 경기복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기복을 추진하고 있는 WT는 기능성에 대한 긍정 평가와 현장 반응을 근거로 도쿄 올림픽에서 도입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내외를 통틀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아직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이 공개되자, 기존 반대 목소리의 주류를 이루었던 도복의 전통주의에 바탕을 두고 밀착형 하의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뜨겁다. 겨루기 경기복 도입을 두고 대립하는 시각은 예나 지금이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생산적 토론이 불가능한 찬반 대립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WT가 스포츠 태권도의 발전적 행보를 위해 겨루기 경기복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 결정 집단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개인과 집단의 의견 역시 여론이라는 형태로 반영되어야 한다. 경기복 도입에 부정적인 개인과 집단 역시 전통주의 논리

에 기대 무조건 반대와 조롱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도입의 필요성 여부와 보완 방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측이 모두 평행선을 달리듯 주관적 관점에 매몰된다면, 경기복에 대한 생산적 토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힘의 논리와 감정적 대응의 냉소만 남을 뿐이다.

7 13년 정수 담긴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 개발 완료

KTA가 도장 지원 사업 13년의 결과물로,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과 KTA 태권도장 교과서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2007년 KTA의 제도권 틀에서 태동한 도장 지원 사업의 첫 번째 세대의 결과물로 평가받는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도장 경진 대회, 태권도장 박람회,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성인부 활성화 지도자 연수 등의 정수를 담고 있다.

표준 교육 과정은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과 이미 과포화된 일선 태권도장의 시장성, 이

로 말미암은 수련생 감소 현실과 우려를 제도적 교육을 통한 수련생 다변화와 확장의 가능성으로 프레임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각 띠별-단별 과목 구성, 수련 시간, 평가 기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2020년부터는 필수 지도자 교육을 진행해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을 보급하고, 이 연수를 이수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기원 심사 추천 ID를 재인증한다.

“기저귀 갈아 주는 것 빼고는 다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태권도장의 교육 시스템이 보육의 개념으로 바뀐 국내 일선 태권도장의 자조적 현실에 맞서 전체 인구 대비 태권도 심사 응시 인구를 현재의 0.83%에서 약 3%로 높여 일선 도장 활성화와 태권도장 수련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표준 교육 과정이다.

KTA 도장 지원 사업 13년의 세월이 오롯이 담긴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교육을 통한 일선 도장 신뢰 회복이 결국 큰길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

태권도 심사 장면.



겨루기 결산

국제 무대 수놓은 한국 겨루기, 국내에선 어떤 모습을?

글 양택진 사진 양택진, WT 제공

항금 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19년 한 해 국내 태권도 겨루기 대회는 전통의 우수 선수 선발 대회 타이틀에 경찰청장기가 더해지고 국가대표 1차 선발전까지 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국외에선 개가를 올렸다. 2017 무주 대회에 이어 2019 맨체스터 대회에서 세계 선수권 남녀 동반 2연패와 원정 기준 6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내외 겨루기 대회에서 나타난 특징을 되돌아본다.

국내

한국체육대학교, 국방부장관기 여대부 5연패 위업

지난 9월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린 제28회 국방부장관기 단체 대항 대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가 여대부 5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한나연, 황진아, 정은비, 윤도희가 활약한 한국체대 여대부는 금 4, 동 3개의 압도적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체대 여대부의 국방부장관기 연패 질주는 2015년 태백 고원실내체육관서 열린 제24회부터 시동이 걸렸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대회 정상을 놓치지 않으며 국내 여대부 최강임을 입증했다. 고등부는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독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104년 창단한 울산 스포츠과학고는 올해 제주 평화기 여고부 3연패와 남고



한국체육대학교는 국방부장관기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부 준우승을 시작으로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최종 선발전에선 남자부 황정욱, 여자부 남민서·이예린 등 3명의 대표를 배출했다. 이어 제21회 광주 5.18대회 여고부 준우승, 제49회 협회장기 여고부 우승과 남고부 준우승, 제30회 문체부장관기 남고부 우승과 여고부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2학년 남민서는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

권 우승을 비롯해 제100회 전국체전 1위, 제주 평화기, 중고연맹 회장기, 용인대 총장기, 체고 대항 대회, 광주 5.18대회까지 모두 석권해 울산스포츠과학고의 맹위를 이끌었다. 중학부 여자부에선, 인천 정각중학교가 두각을 나타냈다. 창단 5년 만에 제주 평화기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정각중은 제18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제30회 문체부장관기까지 거머쥐며 여중부 강호로 등장했다.

우수 선수 선발 대회 권위 높아져 ... KTA 주관 대회 위상은 하락

지난 10월 경남 창녕에서 열린 2019 경찰청장기 우수 선수 선발 대회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1990년대까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던 우수 선수 선발 대

'경찰청장기' 타이틀이 더해지며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진 우수 선수 선발 대회 남자 -87kg급 경기 장면이다.



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며 그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경찰청장기 타이틀을 달면서 이 대회 우승자 중 6명을 대상으로 무도 경찰 특채의 특전이 주어져, 경찰 진로를 희망하는 선수들에게 놓칠 수 없는 대회로 떠올랐다. 여기에 더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폐지돼,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하는 국방부장관기, 협회장기, 대통령기의 1차 선발전 출전권이 없어지면서, 최종 선발전 티켓을 주는 우수 대회는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대회가 1차 선발전을 겸하게 되면서 출전 티켓 획득에 대한 각 팀의 집중도가 높아진 반면, 국가대표 예선 대회를 겸하던 대통령기, 협회장기, 국방부장관기의 위상이 심각하게 내려가는 부작용도 발생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신인 선수권 활성화, 학년 통합 필요성 제기돼

지난 3월 영천에서 열린 2019년도 KTA 고등부 종별 선수권. 이 대회 여고 2학년부 L-헤비급과 헤비급, 여고 3학년부 미들급 출전자는 '제로(ZERO)'였다. 또한 접수 과정에서 참가자가 4명 미만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 한 체급으로 통합되는 경우, 그리고 아예 참가 접수가 없는 체급도 있었다. 여고 3학년부 L-헤비급과 헤비급 참가자는 각각 4명에 불과했다. '메달 퍼주기'에 가까웠다. 체계만 통과해도 전국 대회 입상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대회 주최 기관인 KTA 역시 이 대회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도 종별 선수권을 눈여겨보지 않게 되었다. 추계 종별 선수권 성격인 태권도원배 대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남중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별 각 체급엔 참가 선수가 아예 없거나 4명이 되지 않



태권도원배 선수권 대회 장면.

아 통합되거나 폐지된 체급이 늘어났다. 올해 이 대회 통합 체급은 7개, 폐지 체급은 40개에 각기 이르렀다. 학년별 통합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도입된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종별 선수권이 대회 상징성과 권위를 되찾고 실질적으로 선수에게 더욱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대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불과 10년 전, 종별 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대학 스카우트 상위 순위에 자리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시대가 돌아올 수 있을까?

공인했어도, 전자호구 오류는 매년 반복

올 한 해 국내 겨루기 대회에서, 매년 반복된

대통령기 대회에서, 전자호구 오류로 말미암아 대회위원회 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다.



현상이 있다. 바로 전자호구 시스템 오류다. 오죽하면 임원, 코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선,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자호구 오류와 싸우고 있다는 푸념이 끊이지 않았다. 종별 선수권서 발차기 동작 없이 15점이 올라가는 '유령 득점' 사태를 비롯해 태권도원배 대회서는 시스템 오류까지 불거졌다. 대도 전자호구를 사용한 대회는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 체육 대회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회 5일간 내내 코트가 멈춰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송수신 오류부터 유령 득점과 부심기 송수신 끊김까지 사례도 무척 다양했다.

KTA는 올해 처음으로 전자호구를 공인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 공인 업체인 대도와 KPNP 양사 모두에 3,000만 원씩의 공인료가 할당되었다. 그리고 KTA가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 양사 제품이 나누어 사용되었지만, 막상 대회마다 터져 나오는 전자호구 오류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령 득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령 득점으로 의심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과연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

해외

맨체스터 하늘에 드높인 종가의 자존심 남녀 동반 우승 2연패

5월에 열린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해 종가의 자존심을 드높였다. 남자부에선, 스무 살 3인방인 장준(한국체대)-배준서(강화군청)-박우혁(한국체대)이 정상으로 이끄는 데 힘입어 2위 러시아와 3위 이란을 멀리 밀쳐냈다. 여자부에선, 이다빈(서울시청), 심재영(고양시청), 이아름(고양시청)이 선전에서 중국과 아슬아슬한 수위 다툼에서 승리하며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여자부 강호 중국이 2위에, 개최지 영국이 3위에 각각 자리했다.

특히, 이 대회서 남자 -58kg급에 출전한 장준은 월등한 기량으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고, 남자 -54kg급에 출전한 배준서는 172cm의 비교적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180cm를 넘나드는 외국 선수들을 상대로 폭발적 득점력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남자 -80kg급에 출전한 박우혁은 12년 만에 이 체급 3위에 올라 단비 같은 동메달을 안겼다.

여자 -73kg급 이다빈은 이 대회 우승으로 2020 도쿄(東京) 올림픽 자동 출전권 획득권에 진입하는 대활약을 펼쳤다.

한편, 이번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지울 수 없는 오심의 얼룩을 남겼다. 여자 +73kg급 결승전서, 랭킹 1위인 개최지 영국의 비안카 워크던과 랭킹 2위인 중국의 정수인(鄭姝音)이 맞붙었다. 3라운드 중반까지 정수인이 크게 앞서 우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수인에 대한 주심의 일방적 감점 판정으로, 워크던이 반칙승을 거두고 대회 3연패의 영롱한 결과로 끝났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오심은 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닌 것으로 만든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였다.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73kg급 금메달을 차지한 이다빈(왼쪽)이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8년 만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겨루기 남자부 개인전 금메달 수확

2011 중국 선전(深圳)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은 김훈·김선욱·박용현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남자부 개인전 우승과 연이 닿지 않았다. 2013 대회에선 태권도가 아예 제외되었고, 2015 광주 대회에선 남자부 단체전 금메달에 머물렀다. 2017 타이베이(臺北) 대회에서도 남자부 개인전 금메달은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던 유니버시아드 남자부 개인전 금메달은 이탈리아에서 손에 잡혔다. 지난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강민우는 8년 만에 남자부 개인전 금맥을 뚫었다.



나폴리 팔라체토 스포르트 카소리아에서 열린 2019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 -80kg급에 출전한 강민우(동아대학교)가 드디어 개인전 노골드의 벽을 무너뜨리며 1위에 올랐다. 경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 -87kg급에 출전한 박인호(용인대학교)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동안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맺힌 남자부 개인전 금메달의 한을 시원하게 풀어 버렸다.

유·청소년 국제 대회 부진 ... 경험 부족과 KTA 지원 숙제

청소년과 유소년이 출전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은 올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했다. 유소년과 청소년의 국제 대회 경험 부족을 드러낸 결과로, KTA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겼다.

지난 7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 남자부서 금 2, 은 2, 동 3개 ▲ 여자부서 금 1, 은



지난 8월 타슈켄트 세계 카뎃 선수권 대회가 열린 경기장 전경이다.

2, 동 4개를 각각 획득했다. 남녀 모두 이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자부에선 2위에 머물렀고, 여자부에선 중국에도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이란은 ▲ 남자부서 금 5, 은 4, 동 1개 ▲ 여자부서 금 5, 은 2개로 종합 점수에서도 한국에 크게 앞서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 아시아 카뎃 선수권 대회에서도 남녀 모두 종합 우승은 이란의 몫이었다. 한국은 나란히 종합 2위에 올랐다. 이어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세계 카뎃 선수권 대회에서도 한국은 종합 8위(여자부 종합 3위)로 부진했다. 이 대회에선, 러시아와 이란이 각각 남자부와 여자부 정상에 올랐다.

2020 도쿄 올림픽 자동 출전권 전망은?

2020 도쿄 올림픽이 한 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주요 국제 대회에서 자동 출전권 획득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오혜리

김잔디

한국은 랭킹 포인트 120점이 걸린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다빈이 우승하며 여자 +67kg급 자동 출전권 획득권인 5위 이내로 접어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장준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국제 무대서 대 활약을 펼치며 김태훈(수원시청)과 쌍두마차로 남자 -58kg급 1, 2위를 모두 점했다. 특히, 장준은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올해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세 번의 대회를 모두 휩쓸며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남자 +80kg급 인교돈은 소피아 월드 그랑프리 3차전서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블라디슬라프 라린을 상대로 여섯 번째 대결 만에

첫 승리를 거두며 2020 올림픽 가도에 청신호를 밝혔다.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월드 그랑프리서 예년에 비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로마 대회에선 금 3, 은 3, 동 1개로 전년도 평균 성적을 유지했으나, 9월 지바(千葉) 대회에선 금 2, 동 2개와 10월 소피아 대회에선 금 1, 동 5, 동 1개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은 올해 단 한 차례도 메이저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란·영국·중국 선수들에 고전하며 연거푸 2~3위에 머물렀다. -68kg급 올림픽 랭킹 1위로서 도쿄에서 한 맺힌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이대훈에 대한 관리가 숙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당초 남녀 총 8체급 중 7체급에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자 -58kg급서는 장준과 김태훈, 여자 -49kg급서는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심재영의 최종 평가전이 벌어진다. 유일하게 올림픽 랭킹 5위 내 선수를 보유하지 못한 남자 -80kg급서는 남궁환(한국체대)이 오는 12월 우시(無錫)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서 사활을 건다.

문제는 여자 -67kg급. 이 체급은 10월 기준 랭킹 3위 오혜리(춘천시청)와 랭킹 8위 김잔디(삼성에스원)의 12월 모스크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성적에 따라 자동 출전권 획득 여부가 갈린다. 이 체급은 랭킹 3위부터 9위까지 랭커들의 포인트 격차가 적다. 특히 4위인 영국의 로렌 윌리엄스, 5위 크로아티아의 마테야 옐리치, 9위 프랑스의 마그다 에닌이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랭킹 포인트 40점의 엑스트라 유러피언 챔피언십 여자 -67kg급에 출전해 랭킹 포인트를 보탬 가능성이 커, 모스크바 파이널 대회서 오혜리와 김잔디의 자동 출전권 획득을 두고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

품새 결산

기존 대회 유지하며 품새 최강전 창설해 친미디어·대중화 모색

글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사진 태권도신문 제공

올해도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품새 대회가 많이 열렸다. 국내에선, 2월 중순 제14회 제주 평화기 대회를 시작으로 제5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품새 대표 선발 대회와 종별 선수권 대회 등 20여 개의 전국 규모 품새 무대가 있었다. 세계 규모 품새 대회도 생겼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6월 이탈리아 포로 이탈리아 경기장에서 개최한 2019 로마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1에 품새 종목을 추가했다. WT는 이 대회에 2018 타이베이(臺北)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중심으로 12개국에서 37명의 선수를 초청했다.

올해를 빛낸 품새 선수

올해 품새 선수 중 '군계일학(群鷄一鶴) 3인방'은 곽여원(강화군청)·이지영(성포 경희체육관)·강완진(경희대학교)이라고 할 수 있다. '품새 여왕' 곽여원은 타이베이 세계 선수권 대회 자유 품새 복식전에서 호흡을 맞췄던 후배 김진만과 또다시 짝꿍을 이뤄 2019 로마 월드 그랑프리 정상에 올랐다. 또 8월 중순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16회 협회장배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대학일반부 자유 품새 정상에 올랐다. 주특기인 아크로바틱 동작과 손기술 연결 동작이 관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KTA(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3월과 10월 개최한 품새 최강전 시즌 1과 II에서 거푸 정상에 올라 명불허전(名不虛傳)을 입증했다.

이지영도 올해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로마 월드 그랑프리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 음악 배경으로 정확한 동작, 강유·완급, 절제·균형 등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우승했다. 이지영은 "욕심내지 않고 정확한 표현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살린 기술을 보이려고 했던 게 주요한 뜻이다."라고 그때를 되돌아봤다. 이지영은 대학 졸업 후 태권도 퍼포먼스와 트레킹을 취미로 즐기면서 자유 품새 선수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하며 가능성을 보인 후 올해 로마 월드 그랑프리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 기세를 몰아 협회장배 대회에서 권영인과 호흡을 맞춰 자유 품새 복식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곧이어 2019 총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자유 품새에서, 압도적 실력을 뽐내며 우승했다. 이지영은 할머니 장례를 치르자마자 경기에 출전하는 투지를 보이기도 했다. 강완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남자 품새 선수로 우뚝 섰다.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완진은 올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제30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눈부신 솜씨를 뽐내며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경기 후 강완진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한 게 2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강완진은 품새 4대 메이저 대회인 아시안 게임·세계 선수권·아시아 선수권·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 그



곽여원

랜드 슬래머가 됐다.

강완진은 국내 무대에서도 빼어난 성적을 남겼다. KTA 품새 최강전 시즌 1 단체전(3인)에서 우승하며 최고수로 자리매김한 강완진은 협회장배 대회 대학·일반부 자유 품새에서 회전 발차기와 아크로바틱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를 두고 양택진 태권도신문 기자는 “이 대회 성공은 앞으로 품새, 그중에서도 최근 크게 각광받는 자유 품새의 발전과 태권도의 방송 미디어 적합성이 태권도계와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할지에 달려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시즌 11가 열렸다. ‘관람형 태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유호경 태권도신문 기자는 “관람형 태권도 대회에 걸맞게 다양한 품새 모습이 미디어로 담길 수 있도록 경기 행정을 펼쳤어야 했는데, 이 점이 다소 아쉬웠다. 비교적 편차가 커 최종 점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진 관중 채점제도 숙제로 남



강완진



이지연

품새 최강전 ‘절반의 성공’

KTA는 지난 3월 ‘재미있는 태권도’를 기치로 내걸고 품새 최강전 시즌 1을 개최했다. KTA가 친미디어·대중화를 겨냥하고 창설한 이 대회는 공인 품새를 제외해 ‘자유 품새 최강전’이라는 비판을 받긴 했어도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최창신 KTA 회장은 “진보냐 도태냐 갈림길에 내몰린 태권도는 변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있다. 변화의 물결은 재미있는 태권도를 요구한다. KTA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좇아 빚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이 관람형 대회다.”라고 창설 배경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이 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파격적이었다. 화려한 무대 장치와 조명, 장내 아나운서의 진행 등 다른 대회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

도를 지향한 이 대회는 참가 종목을 확대했다. 자유 품새만 했던 첫 대회와는 달리 공인 품새와 새 품새까지 문호를 넓혔다. 선수 구성에도 변화를 꾀했다. 자유롭게 3~5명이 팀(남성·여성·혼성)을 구성해 참가하도록 했다. 시즌 1 때 도입했던 상금제(총상금 900만 원)와 관중 심판제는 유지했다. 22명의 심사위원은 KTA 상임 심판 7명, 현장 관중 10명, 방송·공연 전문가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300석이 가득 찼던 시즌 1과 달리 관중이 적어 ‘태권도, 아트(ART)가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퇴색됐다. 또 우승 후보팀이 대부분 경연 앞에 배정되어, 경기가 진행될수록 집중력과 흥미도가 떨어졌다. “추첨으로 경기 순서를 정하지 말고 예선전 순위에 따라 역으로 결선을 진행하는 방식

았다.”라고 지적했다.

두각을 나타낸 품새 팀

경희대학교 단군팀은 품새 최강자로 굳게 뿌리내렸다. KTA 품새 최강전 시즌 1 우승을 비롯해 세계 태권도 한마당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전민우 감독은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서 명실상부한 품새 명가로 자리 잡았다.”라고 자평했다. 우석대학교는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다. 7월 경남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대통령기 대회에서, 대학 1부 남자 개인전(유슬찬)을 위시해 대학 2부 남자 개인전(최윤기), 대학부 남자 단체전(김병권·박경도·유슬찬), 자유 품새 남자 개인전(김상엽), 금강 1부 여자 개인전(박지홍) 우승을 휩쓸었다. ●

8부 능선 넘어선 2020 도쿄(東京) 올림픽행 ... 누가 갈까?

글 한혜진 무카스 미디어 편집장 사진 무카스 제공



2019년 국제 무대에서 무관에 그치고 있는 이대훈(왼쪽)이 2020 도쿄 올림픽 때 금메달에 빛나는 한을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 태권도 결선 무대에 갈 선수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한국 태권도는 2019 월드 그랑프리 2차 지바(千葉) 대회(금 2, 동 2개)와 3차 소피아 대회(금 1, 은 4, 동 1개)를 연달아 거치면서 남녀 8체급 중 6체급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앞으로 모스크바 파이널 대회와 우시(無錫) 그랜드슬램 결과에 따라, 사상 첫 전 체급 출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바와 소피아 대회 주요 경기 결과와 향후 올림픽 구도를 살펴본다.

파죽지세 장준, 4회 연속 우승 ... 김태훈과 내년 초 도쿄행 결판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2020 올림픽 태권도 경기가 펼쳐질 지바 마쿠하리 메세홀(Makuhari Messe Hall) 인근에 있는 지바 포트 알레나에서 열린 2019 월드 그랑프리

2차 대회서, 한국은 남자 -58kg급 장준(한국체육대학교)과 +80kg급 인교돈(한국가스공사)이 금메달을, 남자 -68kg급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과 여자 -49kg급 심재영(고양시청)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10월 18~2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3차 대회가 열렸다. 한국 선수들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부상에다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쌓여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막내 장준이 유일하게 결승전에서 김태훈을 또 넘고 우승을 차지했다. 기대를 모았던 이대훈·이아름(고양시청)·인교돈·김소희(한국가스공사)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모두 저 은메달 4개를 획득했다. 처음 월드 그랑프리 초청받은 명미나(경희대학교)는 기대 이상 활약을 펼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량급은 상위 랭커들이 대거 불참해, 중위

권인 남자 +80kg급 변길영(동아대학교)과 -80kg급 남궁환(한국체대)도 출전 기회를 잡았다. 안타깝게 메달은 따지 못했으나 눈에 띄는 실력을 보이며 차세대 기대주로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장준은 지바 대회와 소피아 대회에서 파죽지세로 4회 연속 및 통산 5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지바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이 체급 절대 강자인 김태훈의 올림픽 랭킹 1위 자리마저 빼앗았다(이하 10월 기준). 승기를 잡은 장준은 이 체급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반드시 2020 올림픽까지 간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한참 어리게만 보던 후배에게 지난해 첫 패배 후 큰 좌절에 빠진 김태훈은 점차 평정심을 찾아가는 중이다. 후배를 상대로 정상을 지켜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이 사라졌다. 이제 정상 탈환이라는 도전자 처지에 맞서게 됐다. 장준과 김태훈은 남은 국제 대회와 관계없이 내년 초 열릴 국내 평가전에서 각자의 필살기를 앞세워 양보 없는 일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전6기 인교돈, 속적 라인 꺾고 금 획득

인교돈은 그동안 여러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있지만, 지바 대회 금메달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듯싶다. 이전까지 다섯 번 붙어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이 체급 독보적 올림픽 랭킹 1위인 블라디슬라프 라린(러시아)을 처음으로 결승전에서 꺾었기 때문이다. '3회전 승부사'라는 별칭처럼 3회전 종료 직전에 극



장준

인교돈

적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인교돈은 우승 후 “무척 기쁘다. 한 선수와 여섯 번 싸워 다섯 번을 연속 지고 처음으로 이겼으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다. 2020 올림픽 전까지 계속 졌다면, 올림픽에서도 아마 자신감이 떨어졌을지 모른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승리 요인은 승부의 집착과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힘이었다. 특히 라린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연습을 거듭한 결과였다. 종료 직전 역전승도 평소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습한 기술이 반사적으로 이뤄진 데서 비롯됐다. 올림픽 개최지에서 숙적을 최초로 꺾은 기억은 올림픽 무대에서도 강한 자신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교돈은 소피아 대회에 라린이 불참해 우승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마이콩 시케이라(브라질)에 3:4 한 점 차로 저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대훈, '금메달 가뭇'에 빠져

겉으로는 태연하다. 우승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초조하다. 올림픽 금메달만 없는 이대훈에게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까지 연승을 이어 가던 중 올 해는 국제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올림픽까지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슬럼프까지는 아니다. 이대훈에게만 통할 수 있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정이다.

실력과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부진해서는 아니다. 그간 경쟁했던 선수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상대 선수들의 체력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체력이 튼튼한 이대훈은 지더라도 3회전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역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바와 소피아 대회에서는 그런 면이 부족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조급함이 눈에 띄었다. 경기를 주도하는 평정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징후다. 게다가 차기만 해도 유효 득점으로 반응하던 몸통 기술이 먹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모든 경쟁 선수들이 이대훈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견제도 이겨 내야 할 숙제다. 따라서 이대훈 역시도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새로운 전략 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심재영 vs 김소희 대결 구도 승자는?

2016 히우(리우) 올림픽에서, 김소희가 금메달을 딴 여자 최경량급인 -49kg급은 이체급 올림픽 랭킹 2위인 심재영과 3위로 내려간 김소희가 올림픽 티켓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심재영은 지바 대회에서 동메달을 땀다. 준결승전에서 중국 우징위(吳靜鈺)에게 졌다. 김소희는 발바닥 인대 파열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소피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렇지만 지바 대회에 이어 우징위에게 2연패를 당한 점은 뼈아프다. 심재영과 김소희는 이제 올림픽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선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동시에 누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필승 전략도 필요하다. 장신의 실력과 빠니빠잉빠따나깃(태국), 티야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 우징위를 극복해야 한다.

사상 첫 남녀 8체급 출전 가능성에 도전!

현재 -58kg급 장준과 김태훈, -68kg급 이대

훈, +80kg급 인교돈 등 남자 3체급과 -49kg급 심재영과 김소희, -57kg급 이아름, +67kg급 이다빈(서울시청) 등 여자 3체급은 올림픽 출전이 확정(이상 랭킹순)됐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다. 한국 태권도가 사상 첫 전 체급에 출전할 가능성이 남았다. 여자 -67kg급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혜리(춘천시청)가 올림픽 랭킹 3위를 기록 중이다. 또 김잔디(삼성 에스원) 역시 7위에 랭크돼 가능성이 있다.

이 체급은 1위 타타르 누르(터키·419.89점)를 제외하면 9위까지 근소한 점수 차로 혼전 중이다. 그런데 두 선수 모두 지바와 소피아 대회에서 추가 점수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에 추격하는 선수들이 입상했다. 따라서 모스크바 파이널 대회에서 오혜리와 김잔디 중 한 선수가 우승하면 극적으로 도쿄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국 남자 체급 중 최약체인 -80kg급도 기적적으로 올림픽 티켓 확보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올림픽 랭킹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우시 그랜드슬램 랭킹 1위에게 주는 올림픽 티켓으로 가능하다. 2017년 첫 그랜드슬램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깜짝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남궁환이 오는 12월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하면 역시 극적으로 도쿄행에 합류가 가능하다.

태권도는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 이후 남녀 각각 2체급씩 최대 4체급으로 출전이 제한됐다. 그렇지만 히우 올림픽부터 자동 출전권(올림픽 랭킹 6위까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전 체급 출전이 가능해졌다.

한국은 이때 5체급에 출전해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이미 확정된 6체급에 남은 2체급까지 모두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현장에서 지켜본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의 $\alpha \sim \omega$

지바(千葉) = 글·사진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2020 도쿄(東京) 올림픽을 10개월 앞두고 태권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일본 지바(千葉)에서 열렸다.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제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 등 거의 같은 조건에서 치러 보는 올림픽 리허설이다. 일반 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서 모두 개최된다. 이번 태권도 테스트 이벤트에서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각각 하루씩 나누어 열렸다. 지난 9월 하순에 열렸던 지바 테스트 이벤트의 이모저모를 분야별로 되짚어 본다.



도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열린 지바시 마쿠하리 메세홀.

언제 어디서 개최됐나?

9월 27일과 28일, 지바시 마쿠하리 메세홀(幕張 Hall)에서 열렸다. 27일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28일엔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각각 진행됐다. 2020 하계 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는 7월 25일부터 나흘간(일반 올림픽), 9월 3일부터 사흘간(패럴림픽) 각기 열린다. 이 점에서, 각각 10개월과 12개월 정도를 앞둔 시점에서 미리 열린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였다. 대회 장소인 마쿠하리 메세홀은 1989년에 개관한 대형 전시장 용도의 컨벤션 센터로, 지바시(市) 미하마구(區)에 있다. 전철 가이힌마쿠하리역(海浜幕張驛)에서 가깝다. 도쿄 시내와 나리타 공항으로부터 30~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마쿠하리는 지명이고, 메세(messe)는 독일어로 견본 시장을 뜻한다. 마쿠하리 메세홀은 도쿄 모터쇼, 도쿄 게임쇼 등과 TV 아시아의 연말 특집 생방송인 '뮤직 스테이션 슈퍼 라이브' 등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

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을 연상할 수 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태권도·레슬링·펜싱이 이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태권도 테스트 이벤트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열렸는데, 내년엔 ▲ 올림픽은 마쿠하리 메세홀 A에서 ▲ 패럴림픽은 마쿠하리 메세홀 B에서 각각 열린다. 또 메세홀 A에서는 레슬링이, 메세홀 B에서는 펜싱이 각기 열린다. 지바시는 도쿄에서 동쪽으로 40km 정도 거리에 있는 인구 90만의 소도시로, 우리로 치면 성남시 정도를 떠올릴 수 있다. 이번 테스트 이벤트 기간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는 구마가이 지바 시장을 만나 명예 6단을 수여하며 성공적 올림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선, 모든 올림

픽 체급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다. 남자 -58kg급과 여자 -49kg급 등 남녀 각 한 체급에서만 경기가 치러졌다. 패럴림픽도 마찬가지로, 남자 K44 -61kg급과 여자 K44 +58kg급에서만 경기가 열렸다.

대회 자체가 본 경기를 앞둔 리허설 성격의 이벤트 경기고 참가 선수들에게 성적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서 뛸 것으로 보이는 WT 올림픽 랭킹 상위 랭커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서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 개최지 일본은 한 체급당 2명 이상이 참가하기도 해서 부족한 참가 인원을 메웠다.

따라서 각 나라와 선수 참여도가 낮다는 점에서, 실제 올림픽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테스트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왔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서 한 선수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운 경기복 도입, 그 반응은?

이번 테스트 이벤트에선, 무엇보다 새로운 경기복이 공식 무대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선보인 태권도 경기복은 옷의 재질과 구조 면에서도 기존 도복과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디자인이었다. 특히 하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태권도복(경기복)이 일반적 바지 형태였던 데 비해 새로운 경기복은 흔히 ‘짚짚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레깅스 형태로 몸에 착 달라붙는 모습이었다. 몸과 옷 사이에 공간이 없다. 기능적 면에서도 정강이 보호대가 옷 안에 부착되어서 고정됐다. 기존 경기도복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인은 물론 일반인에게서도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반응도 뜨거웠다.

우선 실제 경기장이 아닌 사진이나 영상 등

으로 새로운 경기복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경기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태권도를 스포츠로서보다는 무도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요약하자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짚짚이 같은 옷을 입고 태권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또 달랐다. 오히려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디자인에 앞서서 기능 면에서, 새 경기복을 입고 경기를 뒀던 선수들은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재질 자체가 기능적으로 더 향상되어서 땀이 잘 마르는 등 효과가 있었던 데다 특히, 정강이 보호대가 옷에 부착되어서 경기 중에 돌아가는 등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현장에서는 많았다. 지나치게 몸에 달라붙는 형태가, 특히 여성 선수들의 경우 좀 부끄럽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선

수에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도 얼마나 더 운동하기에 편하고 좋으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새로운 경기복에 대한 반응이 갈리는 이유는 역시 태권도를 스포츠로 바라보느냐, 무도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WT는 변화를 시도하는 게 ‘도복’이 아니라 ‘경기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경기복이라는 변화를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는 “도복이 아니라 경기복이다. 기존의 태권도복은 앞으로도 계속 도장에서 입고 수련하면 된다. 문제는 태권도가 더 재미있고 미디어 친화적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경기복은 그러한 변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경기복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 실제 대회에서 사용될지 여부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모스크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다시 한번 반응을 본 후 WT 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파울루 멜루(브라질)가 새 경기복을 선보이고 있다.



남자 -58kg급에서, 선수들이 새 경기복을 입고 경기하고 있다.



고초를 헤치고 핀 동백꽃처럼 '희망꽃' 활짝 필 국기원을 그린다

글 최규섭 사진 양택진

동백꽃은 겨우내 눈바람 맞으며 핀다. 모진 생명력으로 바닷바람을 견디며 붉은 꽃을 피운다. 인고 끝에 피어난 그 모습은 애처롭고 애뜻하다. “눈 녹은 양지쪽에 피어 / 집에 온 누님을 울리던 꽃”(「동백꽃」 중에서·이수복)이다. 푸른 잎새 사이로 수줍게 드러낸 모습에선, 뜨거운 가슴이 엿보인다. 매서운 바람도 그 꺾이지 않는 저항에 저만치 물러선다. 애오라지 희망의 꽃을 피우려는 그 열망에 어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오.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는 동박새가 날갯짓하며 그 품에 안긴다. “꽃을 피워 내일을 맞이하자.”라고 달콤하게 속삭인다. 동백꽃도 기꺼이 화답한다. “손잡고 함께 노래하자.” 아름답고 가상한 중주(重奏)가 울려 퍼지며, 환희로 가득 찬 새 생명이 탄생한다. 절로 찬미의 영가를 읊는다. “고난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소서.” 행복이 영글어 가며 춤을 춘다. 동백꽃이 펼치는 향연에, 온 누리가 붉은빛으로 물들어 간다.





새 출발이다. 얼마나 바라고 입고 싶었던 새 옷인가. 새 부대에 담을 새 술을 만드는 데 10개월의 긴 시간이 들어갔다. 그동안 겪었던 파란과 곡절은 다 헤아리기 힘들다. 괴로움과 어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쳤다. 쓰러질 뻔했다. 눕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내어 일어났다. 그래서일까? 내딛는 첫걸음에 서린 강한 염원의 숨결이 느껴진다. 용솟음치는 힘이 어린 밝은 기운이다. 정성을 다해 빚으려 했기에, 더욱 간절함이 배어날 수밖에 없는 새 술, 곧 새 옷이다.

국기원이 새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원장 선거에서, 최영렬 원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들었다. 2018년 12월 오현득 체제가 무너진 뒤 원장 직무 대행(최영렬) 체제를 거쳐 새로 짠 틀이다. 최영렬 체제의 출범에, 태권도계는 기원한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국기원의 이상에 걸맞은 발걸음을 내딛기를.” 또한 바란다. “세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진정성이 깃든 움직임을 보였으면.” 만개한 ‘희망꽃’으로 뒤덮일 그 날의 국기원을 기약한다. 🌸

INTERVIEW _ 최영렬 국기원 신임 원장

“위기의 국기원을 빛나는 국기원으로 만들겠다”

글 박상욱 WTN 기자 사진 국기원 제공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된 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오노균 후보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 끝에 1표 차 신승을 거두고 ‘빛나는 국기원’ 창출의 뜻을 올렸다. 『태권도』지(誌)가 만난 최영렬 신임 국기원장이다.

“심사의 질적 향상으로 단증 권위 강화”

최영렬 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위기의 국기원’과 ‘빛나는 국기원’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세계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마냥 기쁨에 도취할 수만은 없다. 어깨가 무겁다. 현재 국기원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 빛나는 국기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위기의 국기원을 빛나는 국기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 원장은 ‘심사제도 개혁’과 ‘국제부 확대’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심사제도 개혁과 국제부 강화는 글로벌 시대에 국기원이 생존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든든한 두 기둥이다. 심사제도 개혁의 지향점은 심사의 질을 향상시켜 단증 권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외 심사가 통일돼 있지 않고 제각각이다.”이라고 지적한 최 원장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통일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심사 규격화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각 단에 맞는 매뉴얼 개발도 역설했다. 최 원장은 “각 단의 권위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고 규격화한다면, 심사의 질적



향상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단의 권위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 원장은 실기 중심의 심사에서 정신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심사 체계의 변화도 언급했다.

“국내 심사에서 대충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별 심사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품·단별 수련 및 교육 체계 정립과 함께 9단의 경우 실기보다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심

사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실기 중심으로 심사가 치우쳐 있는데, 정신 영역까지 아우르는 심사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부 확대 및 강화하겠다”

최영렬 원장은 심사제도 개혁과 함께 국제부 확대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임을 밝

했다. 국제부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태권도 발전을 선도하려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평소 소신 때문이다. 국기원 국제부 조직을 대폭 강화시켜 ▲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 모든 국가, 단체, 지도자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륙별 담당 조직을 만들어 운영, 관리, 지원 등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 또한, 태권도 보급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무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국가별 무도위원회를 태권도 가족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 국가 협회 교육 ▲ 수련 프로그램 개발 ▲ 교육 및 경영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임직원과 소통 위해 ‘경청’할 터”

최영렬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소통 부재로 국기원은 물론 태권도계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인지 국기원 운영 기본을 소통에 두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기원이 어려웠던 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기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 가족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태권도를 무너 뜨리고 있다.”

화합도 강조했다. 국기원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임직원 간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원장의 지론이다. 최 원장은 화합의 전제는 소통이고, 소통이야말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화합과 소통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기원 임직원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란 질문에, 최 원장은 “경청”이라고 대답했다.

“소통은 특별한 게 아니다. 소통은 경청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자신만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이다. 국기원 임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



리를 자주 마련하고자 한다.”

“정치 직원 배격하고, 효율적 업무 분배에 힘쓸 터”

최 원장은 소통을 전제로 한 화합으로 집행부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직원들과 함께 국기원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국기원 직원들에 대해 “원장 직무 대행 시절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확인했다. 국기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국기원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내부에서 관찰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국기원 직원들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며, 조직 기강까지 무너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듣고는 좋지 않은 선입견과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막상 맞닥뜨린 대다수 국기원 직

원은 성실한 건 물론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과 기준을 중요시하는 조직의 참다운 구성원이었다.”

최 원장은 이어 “문제는 국기원이 집행부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다는 점이다. 사기 진작을 위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서 그들이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원장은 직원의 정치적 행동을 배격하고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마련에도 방점을 찍었다.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줄서기와 같은 정치적 행동을 철저히 배격하려 한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성실한 직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효율적 업무 분배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일이 편중되지 않게 하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추진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각자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이 국기원 정상화 키워드 ... 통합은 기본

글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사진 국기원 제공

2019년 10월 11일은 태권도 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다. 세계 태권도 본부(WORLD TAEWONDO HEADQUARTERS) 국기원의 행정 수반(首班)인 원장을 첫 경선으로 선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기원에서 치러진 원장 선거는 예상을 깨고 살얼음판이었다. 62명의 선거인이 투표한 가운데, 기호 1번 최영열 후보가 29표를, 기호 3번 오노균 후보가 28표를 각각 얻어 1표 차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1차 투표가 끝나자마자, 선거장 안팎이 술렁거렸다.

선거 전, 두 후보 진영은 당선을 자신했다. 최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하자는 분위기였고, 오 후보 측은 “30표는 득표할 것”이라며 당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양측 모두 당락을 결정짓지 못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최 후보 쪽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거장 주위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오 후보가 3위를 한 김현성 후보의 득표수(4표) 중 3~4표를 가져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하지만 김 후보가 얻은 4표는 두 후보가 각 2표씩 가져가 31표를 얻은 최 후보가 오 후보를 1표 차이로 제치고 힘겹게 당선됐다.

원장 선거 후유증, 법적 공방으로 갈까?

오노균 후보는 1표 차이로 석패했지만, 처음엔 깨끗하게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오 후보는 최영열 당선인과 손을 맞잡고 “최영열 만



국기원장 선거에서, 최영열 후보가 당선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세”, “국기원 만세”, “태권도 만세”를 외쳤다. 오 후보는 “오늘 저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뜻에 부응키 위해 최영열 당선자와 함께 국기원과 태권도 진흥에 일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오 후보는 선거 결과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기한 참모진의 이야기를 듣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국기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를 찾아가 이의 제기를 했다. 원장 선거관리 규정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원장 선거관리 규정을 이사회 의결 없이 유

효 득표 과반수로 정하여 당선인을 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냐고 선관위에 따졌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 쪽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선거 규정 적용에 문제될 게 없다며 최 후보를 원장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국기원 전면 개혁에 앞장서겠다. 힘을 보태 달라.”라고 호소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후보 진영은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하려는 데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한 표로 아쉽게 낙선했으니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다. 법정으로 가면 나도 방어해야 하는데, 만약 당선무효가 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규 이사 선임은 객관성·합리성 보완해야

10월 17일 국기원은 신규 이사 12명을 선임했다. 이날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도 제9차 임시 이사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했다.

지난 8월 8일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추천위원회(10명)를 구성한 바 있는 국기원은 그 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기원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국기원 이사장(직무 대행)이 정한 선임

이사 수 15명의 2배수(30명)를 투표로 선정한 다음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다. 5차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12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돼 국기원 재적 이사는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국기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10월 17일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최영열 원장의 임기 시작일인 10월 12일부터다.

이로써 신규 이사 선임은 일단락됐지만, 과정과 방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새 정관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후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참신성(10점)·도덕성(10점)·전문성(30점)·기여도(30점)·다양성(20점) 등 심사 기준을 적용한 후 이사회에

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12명을 선임했으나,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실과 인맥이 작용해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또 기존 이사들의 잦대로 신규 이사를 뽑는 방식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따라서 3년 후 신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정관을 개정해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선출 못 하고 연수원장만 선임

10월 30일 국기원은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김성태 이사와 전갑길 이사가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재투표까지 했으나,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 미달로 책임자를 뽑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선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장 후보자가 투표할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 모습이다.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적 이사 기준으로 과반 득표를 해야 하는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을 보완·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선출하지 못했어도 1년 임기의 신임 연수원장에 윤웅석 전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연수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해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다.

윤웅석 신임 연수원장은 “투표 성향(찬성 11표 반대 8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는 것 같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풀어 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 연수원장은 이어 “태권도의 원칙이 많이 망가졌다는 지적을 받는데, 원칙을 준수하는 태권도상 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영열 원장 최우선 과제는 ‘통합’

국기원 건립 사상 첫 경선으로 원장을 선출했으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최영열 신임 국기원장은 직무 수행 초기부터 대표성과 상징성에 흠결이 생겼다. 초박빙의 1표 차이로 당선된 데다 투표한 선거인단이 62명밖에 되지 않아 세계 태권도 본부 행정 수반다운 면모(대표성·상징성)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최 원장이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것은 국기원 정상화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화두다.

최 원장은 출마의 변(辯)에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기원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겠다. 아울러 태권도 교육, 태권도 단증,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수련의 가치를 높여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 태권

도 교육 가치 제고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기원연구소 역량 강화 ▲ 국기원 글로벌 태권도 대표성 확보 위한 이미지 제고 ▲ 새로운 심사 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 국가고시 및 입사 시험에서 태권도 단증 가산점 제도 강화 ▲ 태권도 지도자 교육 다변화 ▲ 지도자 자격 제도 세분화 ▲ 매스 미디어를 통한 태권도 수련 홍보 강화 ▲ 태권도 도장 차량 운행법 제도 개선 등을 내걸은 바 있다.

최 원장이 3년 임기 안에 공약을 모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반 이상은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차례 공언한 것처럼 태권도 교육 가치를 높이고 태권도 심사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경선 첫 원장의 의미와 국기원 정상화의 토대가 살아날 것이다.

최 원장은 국기원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수장이 됐다. 과거 국기원의 적폐였던 부조리 쇄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내외 태권도계의 화합과 통합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원장으로 선출된 후 주변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경희대”를 연호하며 당선 축하한 대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 원장은 이제 ‘경희대 교수’가 아니라 국기원 원장이다. 그렇다면 한 대학, 한 계파를 떠나 화합과 통합의 시대 가치를 몸소 실행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 최 원장은 “국기원 단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국기원의 위상이 높아지면, 단증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이 이 같은 소신과 지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또 올해 안에 선출될 새 이사장 및 윤웅석 연수원장과 함께 혼돈의 국기원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이 핵심 키워드

국기원 정상화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이다. 그동안 쌓인 부조리와 불합리한 폐단을 걷어 내고 세계 태권도 본부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임원과 임원, 임원과 직원, 직원과 직원 간의 반목과 갈등 요소를 말끔히 씻어 내야 한다. 국기원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집행부에서 깊게 파인 국기원 노조와 임원 간의 대립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 정관과 규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국기원 발전 방안에 대해 ▲ 신규 이사 선임 제약 ▲ 심사 계약 에이전시 명단 공개 ▲ 정관 개정 소위원회 구성 ▲ 효율적 국기원 조직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천 이사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정관 내용이 있다. 정관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손천택 이사는 “단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정관과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정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각각 의견을 밝혔다.

국기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태권도 교육을 강화하고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운영을 개선하자는 여론도 있다.

임미화 신임 이사는 “국기원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결과물이 교본으로 발간돼 일선 태권도장에 보급돼야 한다.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은 무주 태권도원에 있고, 국기원 태권도연구소는 서울에 있어 교재와 교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될 수 없다.”라며 조직 개편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새 이사장이 선출된 후 국기원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할지 주목된다. 📢

REPORTER'S EYE

의식 개혁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 개선, 갈등의 골 메우기 힘들어

글 고진현

태권도인들의 아름다운 화합을 기대했건만, 또다시 갈등과 분열의 싹이 터 걱정이다.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가 법정 공방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기원장 선거에서, 최영열 전 국기원장 직무대행(71)이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됐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최 당선인에게 1표 차로 석패한 오노균 후보(63)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야 나오게 생겼다. 오 후보 측은 그 뒤 22일 국기원장 직무 정지가 처분 신청을 냈다. 이유야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선거를 통해 정통성과 권위를 회복하려 했던 국기원의 바람은 다시 한번 깨졌다.

태권도계 처지에선, 국기원은 남다른 위상과 권위를 지닌 단체다.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해 10대관(청도관·무덕관·지도관·승무관·창무관·강덕원·정도관·오도관·한무관·관리관) 통합을 이룩한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총본산이기 때문이다. 무도 태권도의 상징성을 지닌 단체인 만큼 태권도 고유의 철학과 가치를 개발하고 승품·단 심사 등 국기원의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사분오열된 태권도계의 화합을 끌어낼 수 있는 존경받는 리더십이 절실했다. 정부도 태권도를 사유화하며 패거리 집단으로 변한 국기원의 끝없는 추락에 2010년 국기원의 법정 법인화를 단행했지만,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독선과 파행적 기구 운영은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라는 제도적 변화를 날

게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특정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기는 심모원려(沈謀遠慮)의 자세가 결여됐던 국기원 사무국의 행정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대체적 견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면서, 오히려 사달이 난 건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선거에 관한 한 최고 전문성을 지닌 중선위가 전문성을 뽐내며 정관과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짚어 내는 것까지는 좋았다. 정관에 명시된 “출석 인원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는 조항과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의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달라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한 중선위는 국기원 사무국과 약정서를 맺어 “유효투표 과반수로 원장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듯했다.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선관위의 선거의 룰을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가로막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사태의 결정적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결선투표에서 31표를 얻은 최영열 후보가 30표를 획득한 오노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데는 무효 1표를 제외한 유효투표 수를 61표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쉽게 고배를 마신 오 후보 측은 “선거 규정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따라서 유효투표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약정서의 내

용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며 국기원장 직무 정지 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기원장 선거 제도는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것 같다. 갈등의 파고가 높고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태권도계 속성을 고려한다면, 선거 규정에 관한 엄정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논란이 돼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유효투표 수와 무효표에 관한 정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선거제도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된 건 아직도 태권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태권도 발전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의 중심에 태권도를 두는 게 아니라 권력과 이권 그리고 패거리를 염두에 둔 태권도인들의 못된 버릇이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자못 뼈아프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태권도계의 권력 쟁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합리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나, 구성원의 의식 개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제도가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사람이다. ☹



이화현 KTA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저출산, 고실업, 고령화에 대비하겠다”

글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사진 박성진, KTA 제공

저출산, 고실업, 고령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꼽을 때, 이 세 가지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지닌 심각성을 크건 작건 느끼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곳은 태권도계가 아닐까?

우선 저출산 문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감소해 가는 출산율로 말미암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라 예고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경고 등은 이미 켜진 지 오래다. 이제는 그 여파가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교와 대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공공 기관 외에 가장 피부로 느끼는 곳은 역시 태권도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생 감소, 그 여파로 관련 수감소는 태권도 지도자와 태권도장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총 74개에 달하는 국내의 태권도 관련 학과에서는 2,500명 이상의 졸업생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1만 2,000여 개로 추산되는 국내 태권도장에서 과연 이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들 졸업생 중에 국내 태권도장에 '취업'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자연스럽게 '고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많은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제 60세는 수사(修辭)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청춘(靑春)이다. 옛날 같으면 환갑이 되면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며 축하한다지만, 요즘 환갑을 대놓고 지내



이화현 KTA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로원에서 60세는 받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KTA 일자리창출위원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터”

여기에 태권도계가 나섰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나섰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출산에 따른 도장 관련 수 하락에 대비함과 동시에 태권도 관련 전공자의 취업률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소년에게 치중해 온 태권도 교육을 60세 이상의 실버 세대에 접목해서 노령층이 건강을 지키는 데 태권도가 앞장서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A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했다. 제100회 전국 체육 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월 8일, KTA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화현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사진)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창설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과 구체적 계획에 관한 토론을 이끌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역설하던 내용이다. 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위원장은 우선 공공 부문에서 태권도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경찰 관련 인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태권도학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태권도인이 준비해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은 시도 태권도협회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의원 등 정치인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엔, 각 구별로 유력 정치인에게 태권도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기회가 될 때마다 알리고 있습니다. 여야 구별 없이, 태권도가 저출산·고실업·고령화 시대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알리는 거죠. 정치인은 유권자인 국민, 시민, 지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원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사무실 사무국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조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 현재까지는 경찰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무도교관직 제도를 280개 일선 경찰서로 확대해서 각 경찰서마다 태권도 지도 교관이 필수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자는 안을 논의했다. 다른 무술의 반발은 법으로 지정된 국기 태권도의 위상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인 공약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이 계획이 실현만 된다면, 태권도계로서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경찰청장기 우수 선수 선발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경찰 채용 혜택의 사례를 볼 때,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가 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 태권도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무조건 대학 입학과 편입,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강조할 것입니까? 그 길을 밟은 태권도인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해결책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태권도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갈 곳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무조건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이다.

“저도 태권도 지도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만 여러 팀을 지도하며 많은 제자를 배출했죠. 그 제자들이 지금도 태권도계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문대성 전 국회의원도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선수를 하는 것도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동시에 해외, 특히 중국 같은 곳으로 우리 태권도 후배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이 위원장의 목소리에선,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음이 엿보였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필요성이 태권도계 전반에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제도뿐 아니라 소방, 해양경찰, 철도청, 교도직까지 태권도가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야 하며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계획은 생각보다도 구체적 단계였다.

“일단 이러한 필요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 각 주요 위원회별로 배

치된 국회의원들의 해당 지역구 태권도협회가 발 벗고 나서서 그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들이 지역 유권자를 만나고 정견을 펼 수 있는 자리를 태권도 대회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엔 여야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앞장서서 우리 태권도를 위해 노력하는 이동섭 의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태권도에 관한 한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을 보다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활약할 수 있는 태권도인을 배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권도 교육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좋고, 품새도 좋고, 시범도 좋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태권도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장과 태권도 학과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태권도장이 성인도 배울 수 있는 도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의 실업 문제, 도장의 유소년 수련생 감소에 따른 경영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적어도 이 위원장은 내놓고 있었다.

“노인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또 나서야 합니다. 노인이 몸에 무리 없이 쉽게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태권도를 보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 그만큼의 태권도 지도자가 필요하니 실업 문제 대책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노인 건강 증진에 따라 기대되는 의료보험 수가 감소 효과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발족식이 끝난 뒤, 이화현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은 최창신 KTA 회장(앞줄 한가운데)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임신자 경희대학교 체육부장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의 등지 만들려 한다”

글 최규섭 사진 최규섭, 임신자 제공

“적자생존의 철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나갔을 때, 시대의 흐름을 좇아 적응하는 능력을 갖춘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지는 배움의 터전을 만들고 싶다. 체육부장을 맡으며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표방한 배경이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부회장으로서 지난 8월 경희대학교 체육부장에 취임한 임신자 교수(55)는 ‘운동·공부 병행론’을 역설했다. 한국 체육 패러다임 변환 시점을 맞아 그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는 ‘의식의 전환’은 순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체육의 균형추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차츰 기울어져 왔다. 그렇다면 엘리트 체육 측면에서 추구하는 최고 선수 양성은 더는 절대 선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시대의 물결을 거슬렀을 때, 도태의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는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를 요구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음은 시대의 순리”

경희대학교는 창학 70년의 연륜을 쌓은 유서 깊은 학문의 전당이다. 고희(古稀)의 역사 속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엘리트 체육의 숨결이 배어 있다.

한국 스포츠가 오랜 세월을 걸쳐 세계로 뻗어 나가며 국위를 선양하는 데, 경희대 체육부는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가 강조하는 ‘시대적 순리’는 자칫 엘리트 체육을 위기에 빠뜨리는 체육 철학으로



지난 10월 어느 일요일, 한국여성스포츠포럼 회의 참석차 울림errick공원을 찾은 임신자 경희대학교 체육부장이 운영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표피를 만진 데서 오는 오해일 뿐이다. 한국 스포츠가 발전하는 데 선두 주자로 공헌해 온 경희대 체육부 아닌가? 결코, 망각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솟구친다.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 선수를 길러 내야 한다.’는 의식은 마음 깊숙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단지 선수에서 은퇴하고 지도자로 변신할 때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 시절에 그 바탕을 다져야 한

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논리다. 곧 운동·공부 병행론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평형과 그 맥이 닿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피상적 관찰을 경계한다는 그는 자신의 ‘평행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두 방안을 소개하며 객관적으로 들여다봐 달라고 주문했다. ▲ 최고 선수 양성론 방향 정책은 체육 특기자 전형 방법 개선이며 ▲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향 정책은 순환형 기숙사 제도 운영이다.

그는 전자와 관련해선 조심스레 생각을 밝

했다. 아무래도 입시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밀고 나아가는 방도라 자칫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음을 염려하는 듯싶었다.

“폐지된 스카우트 제도로 말미암은 엘리트 체육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체육 특기자 전형 보완이 불가피하다. 각 종목 일선 체육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실기 부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시 제도와 관련돼 쉽지 않은 일이긴 해도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그는 순환형 기숙사 제도는 실험 정신으로 도입하려 함을 전제했다.

“현재 운동선수들은 1년 365일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으니 나태하게 굳어지는 습성을 피하기 힘들다. 폐쇄된 상태에서 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 지내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년에 180~200일 정도만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은 집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려 한다. 운동선수들이 스스로 훈련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이미 예고했다.”

그는 숙식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는 지방 학생의 경우엔 자율에 따라 차등을 뒀 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전 정신과 사명감으로 고비를 헤쳐 가겠다”

경희대학교 체육부는 학교 체육의 본산이라 할 만하다. 단체 종목(축구·야구·농구·핸드볼 등)과 개인 종목(태권도·양궁·체조·배드민턴 등)에 걸쳐 13개 종목 팀을 육성하며 230명의 보금자리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다. 이를 모두 통솔하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으

니, 그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능히 헤아릴 수 있다. 얼핏 보아도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가시밭길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 있다는 듯 미소를 머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약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태권도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불교)였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가 닥칠 때마다 버팀목이 된 태권도와 불교라고 밝혔다.

“무도 태권도를 갈고닦는 과정과 불교의 수행 과정은 상통한다고 본다. 두 길 모두 구도 행위가 아닐까? 힘든 일은 고행 과정에서 만나 걸어 내야 하는 하나의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밟아 가야 할 숙명일 뿐이다.”

태권도 외길을 걸어온 그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존재함을 깨우치며 도전 정신도 체득했다.

“초등학교(인천 용광·현 인천 간석) 1학년 때 태권도복을 입은 이래 거의 반세기 동안 태권도는 삶의 전부였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



임신자 체육부장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포근한 미소를 짓고 있다.

온 여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남모른 고비도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태권도의 도전 정신에서 난관을 헤쳐 나갈 힘을 얻었다.”

표면적으로, 그는 줄곧 ‘꽃갈’을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중학교(인천 상인천여자) 2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로 발탁됐을 만큼 일찍 꽃피웠고, 1985 서울 세계 선수권 대회(프레 월드 게임) 우승을 위시해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팀 코치를 거쳐 인천광역시청팀 창단 감독(1995~2002년) 등 지도자로서도 괄목할 만한 발자취를 남겼다. 학문에도 열정을 불태워 2007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스포츠 심리학)를 받았다.

그러나 신의 시험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그는 1992 올림픽이 끝나고 일선 체육관을 운영할 때를 대표적 시련의 시기로 꼽았다. “새옹지마(塞翁之馬)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겠는가?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오목이를 떠올리며 좌절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에 당선된 지 1년 만에 경희대 첫 여성 체육부장에 선임되며 인생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을 경계했다. 늘 온 정성과 힘을 쏟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체육계를 이해하려 노력할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거듭 내비쳤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다보기가 힘들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를 보고 헤아리며 받아들이려 한다. 옛날의 나를 되돌아보고 정리된 현재의 나로 돌아와 앞일과 부딪치고 싶다. 마지막 사명감으로 봉사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다잡겠다.”

KTA와 공동체 인식에서 태권도장은 활성화 첫걸음 내디뎠다

글 서완석 사진 KTA DB



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도장 활성화에 책임이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KTA 예산의 20% 이상이 심사 수수료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즉, 도장 관리들의 승품단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KTA 예산의 20%는 사라진다. KTA가 어느 경기 단체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은 바로 이 돈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KTA는 도장에 빚이 있다. 엄청나게 큰 빚이다. 관장들이 이 같은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각자 열심히 관원을 지도하지만, 자신의 권리 주장에는 약했던 시절이었다. 1990년대가 그랬다. 1998년 IMF 외환 위기의 여파가 태권도장에도 직격탄을 날릴 즈음, 관장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났다. KTA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KTA는 부랴부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탐방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즉각 대응했다. 태권도 종주국이 태권도장 경영법을 배우러 미국으로 떠

난 것이다. 몇몇 태권도 경영 컨설팅 회사가 생겨나 새로운 지도법을 전국 도장에 소개한 것도 이즈음이다. 도장에 도입된 선진 교습법은 나름 일선 도장에 훌륭한 자극제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즈음 이행웅 사범의 성공담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ATA란 단체를 이끌던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700여 개의 체인 도장을 키워 냈다.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한다는 말까지 들렸으나, 실제 상장이 이뤄졌는지는 모른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 있는 ATA 본부에 들러서 받은 인상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태권도 수업료, 즉 관원 회비만을 수입으로 삼지 않았다. 전국 관원의 학용품은 죄다 'ATA' 마크가 찍힌 걸 사용할 정도로 학용품까지 팔고 있었다. 물론 우리와는 정서가 다르나, 관원은 그 학用品을 씌으로써 상호 간에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ATA 소속 학생이면 학교에서 똥똥 뭉치고 있어, ATA 학생이 '왕따' 당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ATA는 독자적인 태권도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수명의 교육 박사들이 모여 태권도를 소재로 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국 도장 교과내용을 통일했다. 일선 관장과 사범에 맡겨져 도장마다 제각각인 우리네 커리큘럼과 달랐다. 또 급수별 교과서도 있었다. 내용은 한국 역사를 포함해 유급자가 각 급에서 숙지해야 할 태권도 교과 내용이 수록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체계적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KTA가 13년째 매진해 온 도장 지원 사업은 ATA의 그것을 능가한다. 도장 경영의 노하우를 겨루는 경진 대회, 태권도장 박람회,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성인부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연수, 태권도장 인성 교육을 위한 지도자 연수, 태권도장 상담법 지도자 연수 등등. 이처럼 다양한 연수 과정은 전국 도장 관장과 사범에게 훌륭한 자양분이 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지도자를 위해 발간한 9권의 실무 지침서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강사들이 도장 경영과 지도에 관한 자신의 노하우를 타 도장 지도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공개하고 공유했다는 점이다. 강사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태권도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필요하면 자신의 도장 탐방을 허용해 가진 것을 모두 내주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태권도가 위기'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발전과 변화를 이뤄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같은 태권도 가족이란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제 KTA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1차 도장 지원 사업을 일단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가지도자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며, 그 교육을 통해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을 보급한다. 표준 교육 과정은 KTA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장이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된다. KTA와 도장은 공동체다. 한 몸이다. ㉞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의 이해

글 이충천 KTA 도장사업부 부장 사진 KTA DB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2007년부터 도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면, 역사가 그러하듯 이 일도 소수의 사람과 소수의 단체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양진방 KTA 기획이사(이하 당시 기준)가 국기원에서 도장교육개발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이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고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한국 태권도장 미래를 설계하며 대안을 준비하며, 싹이 텄다. 제도권에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류호윤 KTA 기획부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류 부장은 승품단 심사 인원 감소와 신설 도장 증가에 따른 경영 구조 악화는 도장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며 도장 간 경쟁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물의 현상을 분

석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 지도자 자아 혁신 ▲ 지도자 교육 ▲ 홍보 방향을 제시했다. KTA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장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구원이었던 필자가 본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표준 교육 과정은 신뢰 회복의 방향타

그렇게 시작된 도장 지원 사업이 올해 13년 차를 맞았다. 10년을 훌쩍 넘긴 긴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와 결과물이 양산됐다. 대표적 결과물로, ▲ 경진대회 ▲ 태권도장 박람회 ▲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 ▲ 미래 인재 양성 과정 ▲ 성인부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연수 ▲ KTA 태권도장 인성 교육을 위한 지도

자 연수 ▲ KTA 태권도장 상담법 지도자 연수 등 지도자를 위한 다양한 연수 과정 개설과 ▲ 지도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 아홉 권 발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결과물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 것은 KTA 강사진이다. 그분들은 도장 경영과 지도에 관한 자신의 노하우를 도장 지도자를 위해 아낌없이 공개하고 공유했다. 경진 대회라는 제도를 통해 KTA 강사로 임명되는 절차 후에 각 개인의 권리보다는 태권도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공감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 줬다. 동료가 참가하는 각종 연수와 교육에 가장 먼저와 가장 늦게까지 자리하고, 단 한 가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밤늦게까

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가자의 강사 도장 탐방 요청을 수락하고 때로는 참가자의 도장을 찾아가 그 질문에 대한 답하기도 했다.

각종 교육에 참가했던 여러 지도자가 이제는 도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연수 참가자 중 경진 대회를 통해 현재 KTA 강사로 활동하는 분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차 도장 지원 사업을 완료하게 됐는데, 필자는 그 기간을 2007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어떠한 근거로 이 기간을 1차 도장 지원 사업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과 KTA 태권도장 교과서 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일선 도장에 보급·적용됐기 때문이다.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KTA 등록 도장에서 수련하는 수련생과 제자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과 교과서는 각 띠별과 단별 과목 구성, 수련 시간,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KTA는 궁극적으로 태권도 교육을 통한 참다운 시민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태권도계 공동의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태권도 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태권도 교육의 신뢰 회복은 도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승품·단 응시생은 43만여 명이었다. 이를 우리 인구에 대비하면 점유율이 0,83%에 불과하다. 신뢰 회복을 통해 점유율을 3%로 높일 수만 있다면, 지금 태권도장 경영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결국, 신뢰 회복이란 기업이 기술과 제품 그리고 가치를 통해 표현한다면 태권도는 교

육이 아닌가? 즉, 그 교육을 받은 수련생 또는 그와 관련된 가족 또는 부모가 태권도 수련생의 기술 수준, 인성, 태도 등을 보고 태권도 교육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신뢰 회복은 더디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뢰 회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지도자에게 표준 교육 과정은 로드 맵이 되고 지침서가 되리라 본다. 지금까지 이런 지침서나 교과서나 학습 지도안 등을 제공받은 지도자는 아마 없을 듯싶다. 그런데도 태권도는 기적과도 같이 전 세계 최고 무술 도장 산업으로, 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발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향후 계획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이제 1차로 제정됐다. 따라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도 수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보완된다. 당연히 표준 교육 과정도 기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개정·보완돼야 한다. 그리고 KTA는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에 일선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교육에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

2020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가 지도자 교육을 필수로 진행한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을 보급한다. 이 연수를 이수한 지도자에게 국기원 심사 추천 ID를 재인증한다. 이를 위해 시도에서 추천한 강사 직무 교육을 지난 10월 19~20일(1박 2일) 열었다. 또 오는 12월 7~8일(1박 2일) 2차 연수를 진행한다. 강사 그룹은 KTA와 17개 시도 지부 강사로 구성되어 보급하는데, 중요한 점은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KTA와 도장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KTA는 공통체 의식을 바탕으로

회원을 위해 존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

끝으로 도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도장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고 시장의 확대다. 이번 표준 교육 과정 제정과 보급으로 일선 지도자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일부 개인의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도장 교육을 벗어나 표준을 준용하고 규정된 교육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태권도와 땀과 사범이 있는 교육이 이뤄지는 도장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그 과정을 규정한 것이다. ㉠

2019 제1차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 연수 강사 명단(총 70명)

▲ KTA(17명) = 강익필 강재홍 권기덕 박수를 박한섭 신창섭 윤정민 이동찬 이세환 이평원 임미화 정문자 정상민 조민정 진재성 최중구 황영민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4명) = 권택희 김동석 최훈민 한철규 ▲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4명) = 문정대 박태형 이상호 이정환 ▲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2명) = 심윤보 장상욱 ▲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4명) = 김경환 민병학 박운서 이희우 ▲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2명) = 박성준 유진호 ▲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4명) = 강권구 양일구 전홍석 조현도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1명) = 여상홍 ▲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4명) = 김국일 신경제 진정호 최호승 ▲ 경기도태권도협회(3명) = 박남희 이창익 차환 ▲ 강원도태권도협회(3명) = 권오철 윤정민 조영복 ▲ 충청북도태권도협회(4명) = 김양우 김명철 신광철 전병철 ▲ 충청남도태권도협회(4명) = 심미란 이태화 임태희 장진환 ▲ 전라북도태권도협회(3명) = 권형남 김민화 서영애 ▲ 전라남도태권도협회(3명) = 김창호 마여빈 장필호 ▲ 경상북도태권도협회(4명) = 박재성 신기철 이재덕 조희락 ▲ 경상남도태권도협회(1명) = 김신호 ▲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3명) = 소병관 이창준 장덕성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태권도 교육의 설계도

글·사진 박상욱 WTN 기자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 강사 연수 참가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교육받고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태권도장의 내실 있는 태권도 교육을 위해 그 설계도 격인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제1차 강사 연수를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다. 이 표준 교육 과정은 10년이 넘는 숙성 기간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이번이 제1차 결과물이다.

KTA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 태권도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태권도의 정통성과 미래성을 모두 담아 표준화된 교육 과정의 모습으로 탄생됐다.”라고 설명한다. KTA는 또한 “앞으로도 태권도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및 글로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가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TA는 이번 제1차 연수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7~8일 제2차 강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필기 및 실기 평가를 통해 지역별 강사를 선발하고 배정할 방침이다. 임명

된 시도 강사는 교육 과정 총론 등 과목별 과정 지도를 담당하고, 시도 강사를 통해 표준 교육 과정을 연수받은 지도자에게 ID가 부여된다. KTA는 2020년부터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수 시간 채워야 승급 및 승품·단 응심 자격 부여

교육 과정은 유급자용과 유품·단자용으로

구성돼 있다. 유급자용과 유품·단자용 모두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두 과정은 다시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필수 과정은 ▲기본 과목이 품새, 격파, 겨루기, KTA 인성 등 네 개로 ▲심화 과목이 KTA 호신술, KTA 실전 손기술, KTA 코어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선택 과정은 ▲기본 과목이 KTA 태권 체력, KTA 태권 체조, KTA 태권도 시범 등으로 ▲심화 과목이 KTA 태권 리더십, 익스트림 태권도, 무기술 등으로 각각 이뤄져 있다.

이 표준 교육 과정은 유급 과정부터 유품·단 과정까지 이수 시간 기준을 안내하고 있고, 각 이수 시간이 채워지는 경우에만 승급 및 승품·단 응심 자격을 부여한다. 유급자는 1~9급까지 진행되며, 각 급별 40시간씩(2개월) 수련 기간(2개월×9개급=18개월)에 총 360시간의 이수 시간이 요구된다. 유품·단자는 1품·단 총 12개월(240시간), 2품·단 총 24개월(480시간), 3품·단 총 36개월(720시간)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급자와 유품·단자의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을 지도할 때, 반드시 태권도의 동작 요소(사용 부위, 준비 자세, 꺾기, 넘기기, 던지기, 뛰기, 막기, 밀기, 빼기, 서기, 잡기, 지르기, 찌르기, 찌기, 차기, 치기, 피하기, 특수품)를 포함하여 지도해야 한다.

선택 과정의 경우, 유급자용 기본 과목(KTA 태권 체력, KTA 태권 체조, KTA 태권도 시범) 중에서 최소 한 개 이상, 유품·단자용 기본 과목(KTA 태권 체력, KTA 태권 체조, KTA 태권도시범)과 심화 과목(KTA 태권 리더십, 익스트림 태권도) 중에서 최소 두 개 이상을 태권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다섯 항목의 태권도 지도 방향 설정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은 태권도의 지

도 방향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는데, “태권도 지도는 수련생과 적극적 상호 작용을 통해 태권도 교육 내용을 탐색 및 분석함으로써 태권도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지도 방향으로, ▲태권도 정신과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적 지도 ▲태권도 과목 내 이론과 실기 융합 지도 ▲수련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지도 ▲IT 기술을 활용한 창의 융합적 지도 ▲도장과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지도 등을 주문하고 있다.

먼저 태권도 정신과 가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직접 체험하는 수련 활동과 함께 간접 체험하는 수련 활동(예: 말하기,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모든 과목을 지도할 때 과목 안에 있는 이론적 내용(예: 태권도 역사, 전통, 과학적 원리, 경기 규칙 등)과 실기적 내용을 모두 융합하여 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태권도 이론과 실기의 융합 지도 방향과 방식은 태권도 과목별 지도 계획안의 구성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수련생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지도는 수련생의 태권도에 대한 흥미, 운동 능력, 체력, 적성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태권도 수련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로, IT 기술 활용 창의 융합적 지도는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고도화한 과학 기술을 태권도 수련, 시범, 공연, 분석, 경기 등 다각도적 부문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넘어서 태권도 참여와 체험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도 방향을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도장-가정-지역사회 연계 지도

는 도장에서 수련한 내용이 일상생활 속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지도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태권도장에서 수련생들이 배운 태권도 내용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태권도 수련 활동을 연계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태권도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도자 간 신뢰 속 강제성 있어야

제1차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 강사 연수엔, 78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연수생 대다수는 “십 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1차 결과물을 토대로, 향후 2, 3차 표준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오랜 시간이 걸려 꽃을 피운 표준 교육 과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국기원을 포함한 유관 기관의 협조와 강제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표준 교육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이수 시간 및 교육 내용이 국기원 심사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국기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강제성과 관련해 연수생들은 “어느 도장에서는 유급자 이수 시간 18개월을 지키고 어떤 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경우 학부모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 의문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어야 이수 시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도자 상호 간 신뢰가 있어야 표준 교육 과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긴 시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표준 교육 과정이란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KTA의 또 다른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㉞

KTA 지상 강좌 지도법 <6>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 <2·끝>

글·사진 엄재영 KTA 강사(대망 태권도장 관장)



엄재영 KTA 강사

태권도는 한 가지 기술이라도

다양한 해석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기본 손기술 지르기 1~6번과 던기를 익혔다. 배웠던 기본 손기술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각 도장에서 다양한 지도법으로 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은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이하 손기술)의 핵심 방어 동작인 맞추어 공방법과 1품이 배우게 되는 연결 지르기 1~12번을 배우도록 하자.

태권도는 겨루기 경기를 통해 발차기의 전술과 복합 동작이 매우 다양해지고 변화무쌍하게 발전해 왔다. 또 활기차게 움직이는 겨루기의 특성상 다양한 발차기로 기술이 개발되고 변형됐다. 그렇지만 정작 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태권도 손기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고 이렇다 할 복합 동작이나 응용 동작이 없다.

이 고민을 해결한 것이 바로 맞추어 공방법인데, 유급자 기술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 막기를 이용해 규칙적 패턴을 만들어 쉽게 익힐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막기의 자유로운 사용은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호신술 중 하나다. 초보 수련생 때부터 막기의 방법과 사용 부위를 익힌다면, 상대와 격전을 벌일 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호신과 정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추어 공방법은 1~3단계까지 있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 책에서는 1단계를 소개할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2019년 광주광역시 지도자 연수 손기술 강의 중 모습이다

맞추어 공방법이란?

태권도는 온몸의 움직임을 통해 스피드와 파워를 만들어 내고 몸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 몸의 중심선을 잘 이해하고 균등하게 사용하는 수련 방법을 모른다면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의 기술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초보 수련생이 품새 동작을 익힐 때 많은 방향 전환과 회전 및 균형 동작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를 표현해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맞추어 공방법은 이 점을 인식하고 더 쉽고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맞추어 공방법을 통해 막는 방향을 배우고 막는 타점을 익히며 상대와 거리를 계산해 내는 등 태권도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이 기본적 기법 체계를 통해 다양한 겨루기를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생기게 되고 겨루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수련으로 정신적 측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1. 맞추어 공방법 1단계

공격자와 방어자가 마주 보고 주춤서기로 선다. 주먹을 뺀어 기본 방어법 1단계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맞추어 공방법 1단계				
수행자 명칭	공격자		방어자	
기법	① 아래지르기	② 아래지르기	① 아래막기	② 아래막기
	③ 몸통지르기	④ 몸통지르기	③ 안팔목 몸통막기	④ 안팔목 몸통막기
	⑤ 몸통지르기	⑥ 몸통지르기	⑤ 몸통막기	⑥ 몸통막기
	⑦ 얼굴지르기	⑧ 얼굴지르기	⑦ 얼굴막기	⑧ 얼굴막기
	⑨ 몸통지르기	⑩ 몸통지르기	⑨ 바깥막기	⑩ 바깥막기
	⑪ 앞차기	⑫ 앞차기	⑪ 아래막기	⑫ 아래막기
	⑬ 아래막기	⑭ 아래막기	⑬ 앞차기	⑭ 앞차기

방어자는 공격자가 지르는 주먹의 거리와 순간과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 낸 다음 순서대로 공격자의 주먹지르기를 막아 낸다. 맞추어 공방법 1단계는 명칭 그대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가 지르기

를 수행하는 동안 지르기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빠르지 등을 알 수 있고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맞추어 기본 공방법 1단계 : 주먹
MACHUO GYEORIUGI BASIC STEP : JUMEOK





지난해 벨기에 손기술 세미나 중 모습이다.



연결지르기 2번

동작이 사진으로 보기가 어려움이 있어 동영상을 첨부하였다. 이 QR 코드를 이용해 영상을 보면 좀 더 보기 쉽게 습득할 수 있다.



2. 1품자를 위한 연결지르기

유급자에서 습득한 손기술 지르기는 1~6번이었다. 이 기본 지르기를 이용해서 유급자가 배우는 연결지르기를 습득할 수 있다. 기본 지르기를 잘 숙달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연결지르기 동작을 배워 보자. 연결지르기는 말 그대로 날 동작으로 배운 반대지르기, 바로지르기, 돌려지르기 등을 연결하여 지르는 동작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연결지르기 1~12번은 태권도는 물론 종합 격투기나 타 무술에서도 빈도 구사가 가장 많고 효율적인 것으로 요약하여 체계화했다.

1품 연결지르기 1~12번

단계	번호	명칭	급
1단원	1	두 번 지르고 팔굽치기	12
	2	두 번 지르고 돌려지르기	11
	3	두 번 지르고 치지르기	10
	4	두 번 지르고 돌려지르고 치지르기	9
2단원	5	바로지르고 반대지르고(팔굽치기)	8
	6	바로지르고 반대지르고 돌려지르기	7
	7	바로지르고 반대지르고 치 지르기	6
	8	바로지르고 반대지르고 돌려지르고 치 지르기	5
3단원	9	반대지르고 반대지르고 바로지르기	4
	10	반대지르고 반대지르고 바로지르고 돌려지르기	3
	11	반대지르고 반대지르고 바로지르고 치 지르기	2
	12	반대지르고 반대지르고 바로지르고 돌려지르고 치 지르기	1

이 연결지르기를 계속 연마하면 많은 운동량으로 발차기 일련도의 태권도 수련에서 자연스럽게 상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터득한다. 이것이 이 연결지르기의 학습 목표다.

모든 동작을 이 책에 실을 수 없어 하나만 보기로 들었다. 대한민국 태권도협회(KTA)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자 연수 과정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태권도 지도자라면 누구나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다.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연수받아야 하는 KTA 태권도장장 표준 교육 과정에 필수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3.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 과정 속에 손기술이?

KTA 태권도 표준 교육 과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념 교육 커리큘럼으로, ▲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및 교육 영역 ▲ 교육 목적과 목표 ▲ 교육 내용 체계 ▲ 지도 방향 및 계획 ▲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고려해 태권도장에서 활발하게 수련하는 기술들을 국기원 교본의 기술체계를 고려하여 개발하였고, 교육목표를 각 지도안에 선정하고 그 내용 체계를 세분화했으며, 교수 학습 방향을 쉽게 설명했다. 평가 방향은 태권도의 기술-인성-정신 등에 맞춰 개발하였다. 이 과목들 중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대한민국 태권도장에서 손기술을 더욱 체계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셈이어서, 다양한 지도법으로 변형되어 태권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등부와 유치부 초보 수련생을 지도할 때 항상 어렵게 느껴졌던 손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런 장점들을 살려 발차기와 적절한 복합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초등부 손기술 수업 모습이다.



성인부 손기술 수업 모습이다.

성인은 사실 어린이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지식 수준이 높아 어설픈 기술로 지도할 수 없다. 설사 지도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KTA는 성인을 지도하기 위한 KTA 성인 활성화 지도자 연수를 10년 전부터 실시해 왔다. 그 핵심 과목이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이다. 손기술은 성인에게도 인기가 높아 많은 도장에서 지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인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와 건강, 그리고 호신술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태권도 손기술은 해외에서 더 유명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은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지금까지 미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나라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복싱 강국'으로 유명한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벌써 7년째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 정도로 관심이 높다. 외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체계적 구성, 실전 기법 연결, 태권도 기술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적 마인드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에서 실시한 손기술 세미나를 소개한 한 독일 잡지 표지다.



북경체육대학교 정문에서 포즈를 취한 필자.

5. 베이징(北京)체육대학교 기본 과목으로 교육?

중국은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필자는 지난 9월 1일자로 베이징(北京)체육대학교 교수를 맡아 중국에 와 있다. 베이징체육대학교에서는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본 동작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싶다고 한다. 필자는 이곳에서 태권도 전공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기본 기술과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생이 강의를 들으러 수업에 참여한다. 때로는 70명이 넘는 수강생이 몰려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필자의 설명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정신을 집중하고 가끔은 이해하지 못한 채 동작만 따라 하기도 한다. 필자는 최선을 다해 몸짓과 발짓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베이징체육대학교는 중국 최고의 스포츠 대학이다. 14억의 인구 중 가장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런 데에서 태권도 손기술을 교육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머지않아 중국에서 태권도 손기술 대회가 생기길 희망하며 'KTA 태권도 실전 손기술' 강좌를 마무리한다. (10)



필자가 베이징체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손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KTA 지상 강좌 경영법 <6>

공개 심사 매뉴얼

글·사진 손선동 KTA 강사



손선동 KTA 강사

태권도 지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공개 심사를 해야 할 때가 온다. 태권도장에서 공개 심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태권도로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태권도 지도자로서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개 심사! 겁먹지 말자. 누구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도장을 들렀을 때, 충격은 너무 컸다. 말로만 들었지 매일 태권도장에 부모들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매일 매일이 공개 심사라 여기고 제자들을 가르치자. 그러면 공개 심사는 그냥 지도의 일부일 뿐이다.

공개 심사의 의미

심사는 급이나 단을 부여함으로써 무도인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함에 있다. 그러나 공개 수업은 수업의 내용을 일부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사와 수업을 구분해야 함도 명심해야 한다. 공개 심사를 할 것인지, 공개 수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다음 과정이 쉽게 펼쳐진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지도자도 즐겁고 제자도 즐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하자. 가끔 공개 심사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제자를 많게는 몇 개월 전부터 힘들게 교육시키는 지도자가 있다. 지도자는 제자가 준비 기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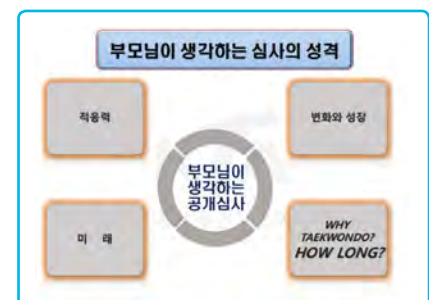
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공개 심사는 수업 내용의 평가라 여기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보면, 공개 심사는 준비가 아니다. 그렇지만 공개 심사를 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시작하면, 이미 제자는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담을 느끼는 공개 심사! 제자에게 그리 유익하고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평상시 수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장의 태권도 교육이 정착되어 있으면 공개 심사를 하기에 그리 어렵지가 않다. 반면에 태권도 수업 내용이 없는 도장은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지도자와 제자가 힘들게 된다. 분명 부모도 태권도 하는 자녀를 보고 싶어하지 도장에서 교육이 빠진 놀이하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개 심사를 통하여 '왜?'라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왜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지?', '왜 발차기를 해야 하고, 왜 품새를 해야 하는지?', '왜 힘든 체력운동이 필요하고, 왜 스트레칭이 필요한지?' 등 태권도

에 대한 수많은 '왜?'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속에 지도자의 철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공개 심사의 의미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태권도장과 부모가 생각하는 공개 심사 성격

태권도장과 부모가 생각하는 심사의 성격은 다르다. 도장 심사는 태권도의 정신 및 실기교육, 지도자 철학, 태권도인으로서 사명감, 공개 심사를 통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심사의 장을 만드는 것이 주된 성격이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심사의 성격은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태권도를 배우면서 변화와 성장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나의 아이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왜 태권도여야 되고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궁금증으로 태권도를 찾는다. 이렇듯 태권도장에서 교육도 중요하나, 부모의 심리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사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격을 파악하고 계획하면



라 의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유품자 공개 심사 겸 대회는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적절한 경쟁 상대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갖고 대회의 성패를 떠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도장 외 공개 심사

도장 외 공개 심사는 전체 제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고 체크해야 한다. 태권도장의 모든 콘텐츠를 한번에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규모가



큰 만큼 시간과 지도진 소임이 중요하다. 도장 외부(학교 강당 및 체육관) 여건도 잘 파악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회의해야 한다.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험해 봄으로써 심사 당일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 제자 교육에 있어서, 질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아무리 공개 심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제자의 질서가 엉망이면, 보고 있는 부모의 생각도 엉망으로 변한다.

공개 심사 과정

◆ 공개 심사

1. 한 달 전 심사 통신문 발송으로 공개 심사 공지, 요일별 심사자 선별, 태권도장 스케치 영상 및 홍보 영상 제작.



① 공개 심사 통신문 발송: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 심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통신문을 작성한다. ② 피심사자 구성: 4~5일 동안 제자의 공개 심사 인원을 편성할 때 함께 올 수 있는 법을 많이 모색한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제자, 부모끼리 친분 있는 제자, 친척 등을 동반해서 '같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피심사자를 구성한다. ③ 피심사자 영상 준비: 도장 홍보 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는 자식이 나오는 모습을 기다린다. 그래서 요일에 따라 제자의 사진을 각각 준비하여 똑같은 구성의 다른 사진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2. 3주 전 변동 인원 파악 및 부모 참여 여부 확인, 전화 요청과 전체 문자 메시지 발송, 카드 뉴스 밴드 공지.

① 제자와 부모에게 연락해 날짜와 이동 인원을 파악 후 변동 인원 확정 후 심사 일자를 공지한다. ② 자동 예약 문자 메시지 설정(1주일, 3일, 하루 전, 당일)을 해 놓음으로써 혹시나 빠뜨릴 염려를 미리 해결한다. ③ 부모에게 반드시 전화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참석을 유도한다. ④ 밴드에 감쪽한 카드 뉴스를 올려놓아 시각적으로 참석의 부담을 줄인다.

3. 2주 전 식전 영상, 시나리오, 심사 채점표, 타임 테이블(Time Table) 작성.

① 식전 영상(국가대표 시범단 시범, 도장 홍보 영상, 당일 공개 심사자 영상 등)을 확인한다. ② 타임 테이블 및 시나리오를 작성해 구체적 시간과 할 말을 만들어 놓아 당일 지도자가 연변에 머뭇거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심사 채점표 및 인성교육 용지를 출력해 채점 기준 및 인성교육(화합의 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1주 전 참석 예약 메시지 확인, 피드백 문자 메시지 예약, 상황별 음악 순서 배열, 영상 및 음향 시뮬레이션 해 보기.

① 예약 문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② 요일별 피심사자 그룹을 만들어, 심사가 끝나면 미리 만들어 둔 피드백 문자를 전송한다. ③ 영상과 음악을 순서대로 PPT에 삽입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 본다.

5. 하루 전 다과 준비 및 체크 리스트 작성, 승급할 띠 수량 파악, 요일별 정리.

◆ 심사 당일

1. 도장 정리, 승급 띠 배열, 다과 세팅 시작 1시간 전 도장 정리, 승급 띠 배열, 다과 및 음료 준비를 완료한다.

2. 지도자 위치, 시범단 안내, 참석자 확인 및 식전 영상 지도진은 준비해 놓은 심사 채점표를 들어오는 부모에게 나눠 주고 심사 채점 안내 사항을 고지한다. 입장하는 학부모에게 시범단 인사, 공개 심사자 정렬, 신발 정리, 다과 및 음료 알림, 자리 안내(자녀 가까운 곳으로) 등을 한다. 사범 및 교범은 심사 시작 20분 전 참가자를 확인하고 불참자가 있으면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받는다. 식전 영상을 밝게 시작해 자연스럽게 공개 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3. 심사 시작 모든 심사는 PPT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표시하는 게 좋다. 지금 수련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빔을 통해 알린다. 국민 의례, 지도자 소개 및 인사말, 공개 심사 주제 및 심사 채점표 채점 방법 등을 설명한다.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해 제자와 부모의 긴장이 풀리면 심사를 시작한다.

4. 마음 다지기 좌선을 통해 마음이 안정돼 심사를 준비하도록 한다. 승급 심사 자리라

는 점을 제자에게 부각시킨다. 부모 앞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승급 심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5. 준비 운동(Warming-up) 평소 도장에서 실시하는 제자리 스트레칭, 체력운동, 태권체조 등 제자의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운동이면 괜찮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가지 정도는 부모와 함께하는 준비운동이 되어도 좋다.

6. 주제별 심사 20~30분 정도 안에 주제별 심사를 끝마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도자의 교수법이다. 평소 승급 심사는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지만, 공개 심사는 지도자가 뛰어 들어가 함께 호흡해야 하는 자리다. 열정적 모습, 제자를 한 명 한 명 빠뜨리지 않고 세심히 챙기는 모습, 잘하는 제자 칭찬, 잘 안 되는 제자 격려 등을 부모가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주제별 심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제자의 실력이 그대로 보여져야 한다.

7. 시범단, 지도진 시범

피심사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롤 모델이 있다. 제자에게도 롤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평상시 수련하는 제자들은 시범단의 시범 모습이나 지도진의 시범을 볼 기회가 많이 없다. 그들에게 롤 모델을 만들어 주고 부모에게 태권도를 언제까지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가장 확실한 답인 것 같다. 공개 심사가 끝나고 심사 채점표를 볼 때면, “우리 아이도 꼭

시범단 시킬 겁니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을 정도로, 효과가 크다.

8. 지도진 소임 공개 심사에서, 관장 그리고 사범과 교범의 소임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공개 심사에 오면 자녀가 지도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가져온다. 사범이나 교범의 구실이 중요한 까닭이다. 움직이는 동선과 태도 변화에 따라 적당히 관심을 가져 주고, 만일의 사태(화장실이 급한 경우 등)가 있을 수 있으니 표정 변화를 유심히 살피며, 산만하거나 소심해서 힘든 제자에게 파이팅을 외쳐 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9. 인성교육(화합)의 장 관장이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일이다. 수많은 인성교육 주제를 만들면서 교육하고, 때로는 서로를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크게 웃기도 하며, 다 같이 노래 부르며 마치기도 한다. 이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주제 하나로 사랑은 내리사랑이 잘되지 치사랑은 잘 안 되는 걸 느끼게 하며, 눈앞에 있는 자식만 사랑할 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할 생각이 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

다. 인성교육(화합)의 장은 태권도장의 덕목을 한 번 더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아울러 태권도장의 따뜻한 이미지를 뿌리내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10. 공개 심사 마무리 심사를 끝내고 마무리 말이 나오면, 지도진과 시범단은 배웅할 준비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입구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도장 입구에서 질서 있게 부모와 피심사자를 안내한다. 관장은 출구 바깥에서 부모와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인사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 둔 피드백 문자를 보낸다.

공개 심사 효과

태권도장에는 태권도가 있어야 한다. 공개 심사는 지도자가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전달하고, 부모가 소중한 자녀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대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및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끄럼 없이 지도하면, 제자는 스승에게 존경심을 가질뿐더러 더 나아가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꿈꿀 수도 있을 듯하다.

공개 심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지도자가 많다. “말주변이 없어서”,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신경 쓸 일이 매우 많아서” 등 갖가지 이유를 든다. 이 이유의 대부분은 안 해서 안 되는 것들이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주관 교육에서, 필자는 외치는 구호를 아주 좋아한다. “내가 변하면 도장이 변하고, 도장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변화의 시작은 지도자 바로 자신이다. 공개 심사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태권도’와 ‘변화’에 있다. 공개 심사를 통해 ‘믿음이 가는 태권도장’, ‘정감 있는 지도자’, ‘존경받는 스승’ 등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이미지의 태권도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도장 탐방 <11> 코리아 태권도장(대전광역시)

“태권도장은 태권도다워야!” ... 실전과 무도 추구하는 ‘강한 도장’

대전=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유품자 수련생이 실물 격파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밤 9시 32분.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주택가 골목. 서늘한 가을밤은 적요(寂寥)했다. 사방은 어두컴컴했고, 행인의 발길도 서서히 끊길 즈음, 한 건물의 2층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전에서 ‘실전 태권도’로 유명한 코리아 태권도장(관장 이태규)에서 퍼져 나오는 외침이었다. 도장에 들어서자 땀 냄새가 가득했다. 갈끔하고 쾌적한 여느 도장과는 달리 수십 년 동

안 이어져 온 수련과 단련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다.

실전 추구하는 굳세고 강한 도장

도장 곳곳에 붙어 있는 문구는 코리아 태권도장이 무엇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또렷하게 보여 주었다.

“허약한 자식은 부모도 원하지 않고 국가도

구하지 않는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고 꾸준한 자에게 돌아간다.”

“도복을 입지 않은 수련생은 집으로 가라.”

“승리에 우연이란 없다. 천일(千日)의 연습을 ‘단(段)’이라 하고, 만일(萬日)의 연습을 ‘련(鍊)’이라 한다. 단련(鍛鍊)이 있고서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여느 도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있는 굳세고

강경한 문구가 마치 선수들을 육성하는 선수촌과 비슷했다. 여러 문구 중에 “도복을 입지 않은 수련생은 집으로 가라.”라는 문구를 내건 배경이 궁금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코리아 태권도장 관장은 “태권도장에서 입는 도복은 학교의 교복과 같고, 수영장의 수영복과 군대의 군복과도 같습니다. 도복은 태권도를 배우겠다는 수련생의 마음가짐과 정신 자세를 나타내죠.”라고 밝혔다.

코리아 태권도장은 수련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되 그들의 기호(嗜好)에 억지로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도장 개관 취지와 태권도 교육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선, ‘태권도장은 태권도다워야 한다’는 이 관장의 소신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날 수련 도중 유품자 수련생이 산만한 태도로 허튼 행동을 했다. 이 관장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만무했다. 곧바로 호된 꾸지람이 떨어졌다.

“수련 시간에 왜 집중 안 해! 탄탄하려면 도장에 있지 말고 집에 가!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태권도를 하겠어. 나는 그런 제자 원하지 않아!”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 수련생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코리아 태권도장의 교육 방향을 단박에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 관장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곤 도복을 입고 남상검 수석 사범, 주진규 부사범과 함께 태권도를 가르친다. 그것이 관장이 마땅히 해야 할 술선수범과 언행일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관장의 제자들인 두 사범은 그가 추구하는 태권도 교육 철학을 이해하며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30년 전 허허벌판에 도장을 세우다

코리아 태권도장은 30년 전 개관했다. 정림

동 터줏대감으로 한곳에서 30년을 이어 온 역사와 전통의 도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다. 요즘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도장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이 관장은 30년 전 이곳에 어떤 이유로 도장을 개관했을까? 그의 고단한 인생살이가 오버랩(Overlap)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찍 입대했어요. 그리고 제대 후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 근처에서 막노동하며 500만 원을 저축했죠. 그 돈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낸 대전에 내려와서 소일거리를 찾았죠. 그때 친구들과 이곳으로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정감이 있더라고요. 당시 이곳은 물은 깨끗했어도 허허벌판에 자갈밭이 많았어요. 장마철이면 흙탕물이 흘러내렸으니까요.”

대전에 내려올 때 특별한 인생 설계를 하지 않았던 이 관장은 목돈 500만 원으로 태권도장을 차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1989년 어느 날, 보증금 250만 원에 월세 임대료 27만 원으로 계약하고 덜컥 코리아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당시 한 달 수련비가 7만 원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수련생 50명 정도 모집하면 먹고 사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한창 젊었을뿐더러 태권도와 합기도 등 무술에 심취하고 있을 때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밀어붙였죠.”

‘엄하고 강하게’ 태권도 무도성 강조

20대 중반이었던 이 관장은 엄하고 강하게 수련생을 지도했다. 툼툼이 수련생과 함께 갑천 둔치와 자갈밭을 뛰고 마을 청소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서서히 코리아 태권도장을 알렸다.

코리아 태권도장의 교육관은 ‘엄격하고 강하게’다. 학교 체육과 놀이형 프로그램을 배제

하고 수련과 단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관장의 특기를 살려 실전 격파와 실전 겨루기를 중시했다.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은 15km 정도 되는 갑천을 구보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강한 체력을 키웠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동네 주민들은 “코리아 태권도장은 태릉선수촌 같다.”라고 수군댔다. 그래도 이 관장은 ‘스파르타식 교육관’을 포기하지 않으며 수련생에게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동네에 코리아 태권도장은 엄하고 강하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수련생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도에 주안점을 둔 소신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실전을 중시하며 수련과 단련을 거듭해 온 코리아 태권도장 수련생들은 각종 대회에 나가 메달을 휩쓸었다. 대전 지역에서는 그들을 이겨 낼 수 없을 정도로, “코리아 태권도장은 실전이 강한 도장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코리아 태권도장을 떠올리면 실전과 무도가 연상되게 했습니다. 도장 내부를 화려하고 깔끔하게 꾸미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처럼 옛날 무도 방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도장에 땀 냄새가 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수련생도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대회 참가를 앞두고 수련생의 사기 진작과 도장 홍보를 위해 동네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펼침막이 없어지거나 흠집이 나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관장이 유심히 관찰할 결과, 인근 도장 관장이 야밤에 펼침막을 훼손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이 사람을 붙잡은 이 관장은 화를 참을 수 없어 “나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라고 따졌다. 아마도 코리아 태권도장을 시샘한 모양이었던 그 관장은 창피함과

낭패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났다.

‘태권도 안에 답이 있다’ 깨닫고 실천

코리아 태권도장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관장의 소신과 성향에 따라 쌍절곤·검·장봉 등 무기술을 가르쳤다. 학창 시절 태권도 이외에 우수·킥복싱·합기도를 두루 섭렵하며 영화배우를 꿈꿨던 이 관장의 인생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장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 더는 무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2016년 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시행하는 성인 활성화 지도자 연수(5기)를 받았는데,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특히 태권도는 맨손 무예기 때문에, 굳이 태권도장에서 무기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들은 ‘태권도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타 무술과 무기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장이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점은 도장에서 놀이형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다. 수년 전 “놀이형 태권도는 지구를 떠나거라!”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동네에 내걸 정도로, 도장에서 피구·축구·농구 등을 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이 관장은 “가끔 본격적 수련을 앞두고 줄넘기로 몸을 푸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줄넘기를 남용하고 도장 안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은 태권도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권도장은 태권도 안에서 교육의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코리아 태권도장은 승품 심사에 60명이 응심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것이 도장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실력과 자세를 갖추지 않은 수련생에겐 응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실력과 자세를 갖춘 수련생에게만 응심할



청소년 수련생들이 실전 겨루기를 하고 있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100%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자랑거리가 됐다. “태권도장은 태권도가 우선이고 태권도다워야 한다.”라는 이 관장의 소신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도장 경영과 홍보

코리아 태권도장은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련생을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수련비를 몇 개월 무료로 하거나 장난감을 주며 호객 행위를 하듯이 입관을 유도한 적도 없다.

이 관장은 태권도 실력을 제대로 키우면 도장 홍보는 저절로 된다는 신념이 강하다. 몇 년 전 태권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MTA’에 가입해 그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장 현장에 맞게 응용·활용하는 것도 태권도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 관장은 “리더십 프로그램과 스파링 프로그램 등 좋은 것을 받아들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권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 도장 경영이고 홍보죠.”라고 말했다. 코리아 태권도장은 다른 방법으로 도장을 홍보하고 학부모와 소통한다. 인스

타그램을 만들어 태권도 수련 사진과 영상을 제공·공유하고, 네이버 밴드도 만들어 학부모에게 행사를 공지하고 가정 통신문을 보낸다.

독특한 유단(품)자 가입식은 통과 의례

코리아 태권도장은 1년에 네 번 유단(품)자 가입식을 한다. 승품·단 심사에 합격했다고 해서 품증과 단증을 바로 주지 않고 일종의 ‘의례(儀禮)’를 거쳐야 한다. 촛불 의식 등 1~6 관문을 통과하면 품·단증을 준다. 그리고 띠에 날짜와 이름을 새겨서 준다. 이것은 코리아 태권도장의 전통이다.

유단(품)자 가입식을 할 때는 학부모를 초청한다. 또 15년 전 구성된 유단자회에서 지원금을 전달한다. 유단자회는 사회 활동으로 태권도를 하지 못해도 연결고리 구실을 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련생의 속마음을 읽다

코리아 태권도장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많다. 그들은 어떤 마음과 희망을 안고 밤늦게까지 태권도를 수련할까?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다. 어렸을 때 형을 따라서 코리아

태권도장에 들어온 노민섭 군(충남기계고등학교 1학년)은 “선수부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고 대회 성적도 좋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었으나, 사범님과 선배의 관심과 격려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태권도장에서 배운 내용을 덧붙였다. “처음에는 기본기, 품새, 실전 활용 기술을 배웠어요. 또 선수부로 활동하면서 발차기, 경기 운영, 체력 훈련을 배우고 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았죠. 다른 도장과는 다르게 선수부라고 해서 겨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 시즌이 끝나면 시범에 대한 기초 기술과 격파 등 태권도에 대한 전반적 기술을 배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투지, 용기, 인내, 겸손, 실천을 배우고 본보기로 삼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는 유주은 양(복수고등학교 3학년)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태권도를 그만둘 위기가 있었지만, 관장님과 사범님의 배려로 학교 일정이 끝난 늦은 시간에도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유 양은 “코리아 태권도장은 놀이 위주의 태권도장과 달리 정통적 태권도를 합니다. 겨루기, 시범, 격파, 호신술 등 많은 태권도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좋아요.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무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내심, 용기, 예의 등 인성 부분도 배우고 있죠. 신체적 체력이 강해지면서 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유튜브에서 태권도 시범 영상을 보고 태권도를 시작했다는 장형서 군(봉우중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코리아 태권도장에서 대충 운동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수련해 왔습니다.”라며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태권도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올바른 예절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학업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키가 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한 서유정 양(복수고등학교 3학년)은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태권도를 하는 시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태권도를 하면서 무엇이 좋냐는 질문에, 서 양은 “단체로 운동하면서 배려하는 마음과 단합심을 기를 수 있어요. 태권도는 손과 발과 몸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 운동 기능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루기를 하면서 예의와 규칙 준수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태규 관장은 믿음직한 가장이자 큰형

며칠 전 이태규 관장은 대전 서구 복수동에 새 도장을 개관했다. 태권도 3단 아내가 적극 권유했다. 만달 규칙 씨(4단)는 겨루기 선수 출신으로 현재 헤어 디자이너가 됐고, 둘째 딸 태희 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겨루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막내아들 진석 씨는 겨루기 선수로 활동하다가 입대했다. 이 관장의 동생들도 모두 태권도를 하고 있다. 자신이 경영하던 태권도장을 남동생 현규·종규 씨에 대가 없이 넘겨준 믿음직한 형이다. 📞

코리아 태권도장 지도진 - 이태규 관장(가운데), 남상겸 수석 사범(오른쪽), 주진규 부사범



대망의 두 번째 마당, 황홀한 환상극으로 펼쳐지다

글 최규섭 사진 양택진



‘홍일점’ 박어원(가운데)을 ‘필승 카드’로 내세운 김지원-김태경-이옥현-한상희 조가 음악과 안무가 완벽하게 일치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 품새여, 길이 뻗어 나가리라!”

대망의 염원을 담은 품새 한마당다웠다. 한국 품새 최고수를 가리는 장(場)에 걸맞게 절제미와 균형미가 어우러진 몸놀림이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첫 마당의 감흥과 열광이 빼닮듯 재현됐다. 두 번째 마당 역시 폭발적 반응을 끌어내며 긴 여운을 남겼다.

2019 KTA 품새 최강전 시즌 II가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22일 하오 4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경연은 흥분과 감동을 자아낸 멋들어진 한 편의 환상극이었다. ▲ 빼어난 연기 ▲ 전문성과 독특성을 아우른 채점 ▲ 환호와 박수갈채 ▲ 치밀한 구성과 연출, 그야말로 현대 스포츠의 4요소인 선수-심판-관중-방송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호흡을 이룬 무대였다.

당연히 극찬이 쏟아졌다. 태권도 팬은 물론 일반 팬도 “품새, 나아가 한국 태권도가 새롭

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환상적 무대였다.”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재미있는 태권도’의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은 ‘품새 농사’는 풍성한 가을걷이를 이루고 끝났다. 앞으로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역사의 품에 안긴 2019 추수였다. ‘대풍가’를 소리 높여 노래한 흥취를 소중히 간직하며 2020년에 다시 만나리라 기약하는 다짐을 가슴속 깊숙이 아로새겼다. 내년에 돌아와 선보일 그 모습에선, 분명 더 힘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배어나오리라.

외연 확장, 품새 전 분야 망라한 경연 펼쳐져

이번 무대는 2019 KTA 품새 최강전 시리즈의 마지막 막이었다. 지난 3월 열린 제1막이

끝나자, 팬은 물론 언론까지도 “KTA 58년사에 없었던, 새 지평을 연 획기적 무대였다.”라고 한결같이 호평한 바 있다. 그 갈채에 고취된 KTA가 팬들의 사랑과 성원에 부응키 위해 7개월 만에 올린, 야심에 가득 찬 기획을 바탕으로 내놓고 꾸민 무대였다.

이 맥락에서, 제1막에서 새롭게 개척했던 경지의 외연을 확장했다. 자유 품새만 경연했던 제1막과 달리 이번 무대에선, 공인 품새와 새 품새까지 문호를 넓혔다. 제1경기로 공인 품새와 새 품새(하나 선택)가, 제2경기로 자유 품새가 각각 펼쳐졌다.

발상의 전환도 신선하다. 품새는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번 최강전에선, 그 근본 개념에 초점을 맞춰 자유 품새 연기 때 이를 응용한 몸놀림을 펼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각 팀이 고심 끝에 창안한 응용 동작이 다양하게 펼쳐져 한결 보는 재미를 배가했다.

또한 선수 구성의 폭을 넓혔다. 복식전(2명)과 단체전(3명)이 벌어졌던 첫 대회와 달리 자유롭게 3~5명의 팀(남성·여성·혼성)을 구성해 참가토록 함으로써, 박진감과 함께 관전의 묘미를 더했다. 이에 따라 이번 무대에 오른 10개 팀 가운데, 8개 팀이 5명으로, 2개 팀이 3명으로 각각 호흡을 이뤄 경연에 나섰다.

올해를 재미있는 태권도 정착의 원년으로 내세운 KTA는 그 근본 개념에선 이탈하지 않았다. 첫 대회 때 ‘팬과 호흡을 함께하는 태권도’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희망의 불빛을 보았던 KTA는 깊은 인상을 남겼던 특징은 그대로 유지했다. ▲ 상금제 ▲ 공연장 무대 ▲

관중 심사제 등 그때까지 한국 태권도계에
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독특한 발상으로
가득 찻던 특색 있는 무대가 이번 대회에서
도 재연됐다.

이번 대회 상금은 총 900만 원이었다. 1위가
500만 원, 2위가 300만 원, 3위가 100만 원
의 상금을 각각 받았다. 전문 공연 무대인 K-
아트홀에서, 경연이 펼쳐진 점도 눈길을 끌
었다. 팬들은 열연을 펼치는 선수들의 땀과
호흡을 느낄 수 있어 그만큼 쉽게 일체감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팬 친화적 무대로 꾸
미기 위해 도입한 관중 심사제도 역시 흥미
를 자아낸 요소로 기능했다. 22명의 심사위
원 가운데 10명이 현장 관중으로 이뤄졌다.
5명의 영상-무대 전문가도 일종의 관중 심판
으로 볼 수 있어, 그 수는 총 15명에 달했다.
KTA 품새 상임 심판은 7명에 지나지 않았다.
집단 심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채점에
큰 차가 없어, 팬들의 시각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이 엿보였다.

곽여원, '태권도, ART가 되다' 주역 열연 ... 강완진, 이번의 제물

이번 대회는 KTA가 주최·주관하고, SPOTV
가 주관 방송사로 나섰으며, 문화체육관광
부와 태권도진흥재단과 아디다스가 후원했
다. 네이버 TV가 생중계하고 SPOTV가 엿새

뒤(28일) 오후 6시부터 녹화 중계함으로써,
열기를 높이는 데 톡톡히 한몫했다. 한국 태
권도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는 데엔, 미디어
와 상생이 필요하다고 본 KTA의 판단이 적
중했음을 보여 줬다. TV로 지켜본 시청자들
은 품새의 멋들어짐에 듬뿍 빠졌다. 이들은
“망각했던 ‘국기(國技)’ 태권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칭찬을 아
끼지 않았다.

밀도의 높이를 가능하기조차 힘들 만큼 한
바탕 펼쳐졌던 경연은 자연스럽게 품새 최고
수를 다투는 경연장, 올림픽공원 K-아트홀을
후끈하게 달궜다. 저마다 “내가 ‘태권도 종가’
의 품새 일인자다.”라고 사자후를 토하는 듯
했다. 그 기세에 걸맞은 몸놀림은 눈길을 사
로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음악과 조화를 이룬 몸놀림은 현란하고 폭
발적이었다. 뛰어난 연기는 공간을 수놓으며

최창신 KTA 회장(가운데)을 둘러싼 입상자(1~3위)들이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곧 뒤흔쳐나올 듯한 맹호를 담은 한 폭의 동양
화를 연상케 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곽여원-김지원-김태경-
이옥현-한상희(K. 강화군청-수리온)였다(표
참조). 고난도 발차기-아크로바틱을 바탕으
로 한 안무가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5인
의 환상적 열연은 관중의 넋을 빼앗았다. 시
즌 I 때 10대의 윤규성(서울 아이티고등학
교 2년)과 짝꿍을 이뤄 복식전 정상을 밟았
던 곽여원은 시즌 II도 휩쓸며 당대 품새의
일인자임을 다시금 뽐냈다.

지난 7월 나폴리 유니버시아드에서 2관왕
(개인전-단체전)에 오르며 품새 그랜드 슬램
의 영광을 일궈낸 강완진(경희대학교)의 물
락은 뜻밖이었다. 시즌 I에서 단체전 우승
을 쟁취했던 강민서-임승진을 비롯해 박지
원-이소영과 호흡을 맞춘 강완진은 불안한
몸놀림 끝에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한국 품새 선수층의 두꺼움을
실감케 한 순간이기도 했다.

잔치는 끝났다. 제작물은 명품이었다. 그러
나 결과물에 만족하고 기쁨에 도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 KTA가 다시 행보를 옮기려 하
는 까닭이다. 더 나은, 완벽한 작품을 내놓으
려는 마음에서, '인고의 길'에 나섰다. KTA가
칭찬과 고언을 함께 담은 비평을 가슴속에
새기며 재미있는 태권도의 세계를 향한 발걸
음을 다시 힘차게 내딛기 시작했다. (M)

2019 KTA 품새 최강전 시즌 II 순위

순위	이름	소속	점수	시즌 I 입상자
1	곽여원 김지원 김태경 이옥현 한상희	K. 강화군청-수리온	85.780	곽여원, 복식전 1위
2	권재영 안정현 이동영 이재준 장한별	미르메	80.685	장한별, 복식전 2위 안정현-이재준-장한별, 단체전 3위
3	김상엽 신우섭 이현렬 장현아 최수빈	21C 한국 태권도장	80.085	
4	박현규 윤보미 추선우	가천대학교	79.375	
5	김경규 유재홍 최원영 한다현 황유정	태성-안화도장	79.315	
6	강민서 강완진 박지원 이소영 임승진	경희대학교 A	78.320	강민서·강완진·임승진, 단체전 1위
7	김경수 김화진 원윤호 차예은 홍세진	트리플 제이	78.235	
8	김민기 김성훈 김현우 박원경 최양준	백석대학교 C	77.985	
9	김경록 김종희 서준혁 이수빈 정민기	백석대학교 B	74.530	
10	김종우 김현호 장지원	SOO 태권도 A	74.520	



K. 타이거즈-강화군청-수리온 연합팀이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기합을 내지르고 있다.



무대를 박차고 뛰어오른 미르메팀의 연기에선, 조명을 뚫고 나갈 듯한 힘이 엿보인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선수를 축으로 각자가 다양한 자세를 취한 21C 한국 태권도장팀이다.



가천대학교팀이 '더 높이, 더 힘차게!'를 표현하고 있다.



태성-안화도장 연합팀의 뛰어엮차기는 한 몸이 된 듯한 착각마저 일으켰다.



뛰어올라 먹이를 낚아채는 사자들을 연상케 한 경희대학교 A팀이다.

PICTORIAL

화려하게 돌아와 몽환적으로 펼쳐졌다

글·사진 양택진

그들이 돌아왔다. 지난 3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야심 차게 기획해 선보인 품새 최강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관람형 태권도'의 새 옷을 입고 시즌 II로 팬들과 다시 만났다. 첫 품새 최강전 복식전 우승의 주인공인 곽여원(강화군청), 복식전 2위와 단체전(3인) 3위에 오른 장한별(미르메), 단체전 우승의 주역인 강완진(경희대학교) 등이 출전해 환상적 연기를 펼쳐 지난 10월 22일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새 품새와 자유 품새의 황홀한 무대가 열렸던 품새 최강전 시즌 II를 화보로 만나 본다. ㉔



트리플 제이팀이 멋진 아크로바틱 동작을 펼쳐 보이고 있다.



백석대학교 C팀은 힘이 넘치는 뒤차기를 선보였다.



백석대학교 B팀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뛰어엿차기를 하고 있다.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키는 SOO 태권도 A팀의 연기다.



시상식에서, 최창신 회장과 준우승을 차지한 미르메팀이 희극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춘우 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 단장은 구수한 '명품 해설'로 대회를 빛냈다.



현장 관중, 영상·무대 전문가, KTA 상임 심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앞 두 줄)은 대회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 이색적 요소로 작용했다.

태권도와 축구가 처음 만난 그곳은 환호와 갈채로 뒤덮였다

글 최규섭 사진 박혜정, KTA 국가대표 시범공연단, FC 서울 제공



겨구기와 품새를 대표하는 인교돈(왼쪽)과 광여원이 멋진 태권도 기술을 펼친 뒤(1) 시속하고 있다(2).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무도 스포츠다. 축구는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다.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의 한 분야라는 데서 서로 맥은 닿으나, 특별한 공통점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무도와 구기가 만났을 때, 별다른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듯싶다. 꼭 그럴까? 이런 보통지식을 뛰어넘는 융합이 일어났다. '태권도와 축구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무척 신선했다. 강한 인상을 주며 마음을 사로잡는 힘으로 다가왔다. 태권도와 축구의 접목은 상상 이상이였다. 태권도가 축구장에 나타났다. 출현한 곳은 더욱이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이었다. 수만 명의 환호와 갈채로 천지가 진동하는 한국 스포츠 으뜸의 각축장에서, 태권도가 '종가(宗家)'의 눈부신 솜씨를 뽐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어떤 곳인가! 2002

FIFA(국제축구연맹) 한·일 월드컵 개막전(프랑스-세네갈)과 준결승전(한국-독일)을 비롯해 술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가 벌어지는, 한국 축구의 총본산이다. 또한 프로 축구 명가 FC 서울의 홈그라운드로서, K리그가 살아 숨 쉬는 마당이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밟아 보고 싶은, 그야말로 '꿈의 무대'다. 환상적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과 인교돈(한국가스공사)·광여원(강화군청)이었다. 국가대표 시범단은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고, 인교돈·광여원은 마지막 한 점을 그려 넣었다 [畫龍點睛·화룡점정]. 완벽한 완성도를 뽐낸 한 편의 연극이었다. 지난 9월 1일 K리그 1의 양대 명문인 FC 서울과 전북 현대가 맞붙은 대회전을 더욱 열광 속으로 몰아간[漸入佳境·점입가경] '깜짝 연희(演戲)'였다.

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 환상적 묘기 펼쳐 눈과 마음 사로잡다

제1막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펼쳐졌다. 경기 시작 전 20분 동안 선보인 KTA 국가대표 시범단의 공연은 수많은 축구 팬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갔다. 국가대표 시범단이 숨 쉴 틈 없이 빚어내는 묘기에, 팬들은 넋이 나간 듯 연신 "아!", "우아!"라고 탄성을 자아내면서 박수갈채를 쏟아 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 일사불란한 품새 시연으로 막을 올린 국가대표 시범단은 차츰 수준을 높여 가는 격파로 팬들을 시나브로 몰아의 지경에 빠뜨렸다. 사람 넘어 뛰어 옆차기, 뛰어 앞차기에서 비롯된 격파가 돌려차기 3단계, 가위차기 5단계를 거쳐 1080° 돌개차기, 720° 돌개차기 4단계에 이르자, 팬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손뼉을

쳤다.

공중을 땅으로 여기는 양 거침없이 허공으로 솟았다 내려오며 얼을 나가게 하는 격파 숨씨는 끝을 모르고 전개됐다. 그때마다 팬들은 아연한 표정을 짓곤 하다가 정신을 차리기도 했다. 특히, 눈을 가리고 한 격파 장면

에 이르러선, 숨죽였다가 격파물이 날아가는 순간 절로 환성을 터뜨렸다. 장애물 딛고 격파가 일곱 가지 형태로 구현될 때, 팬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이어 아리랑과 애국가를 모티프로 한 음악을 배경으로 품새 동작이 실현될 때엔,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팬들이 적지 않았다.

기본 연합 동작으로 국가대표 시범단의 공연이 막을 내리자, 태권도의 마력(魔力)에 흠뻑 젖었던 팬들은 모두 하나가 돼 극찬의 성원을 보냈다.

국가대표 시범단도 축구 팬의 열광에 고무됐다. 유세빈 시범단원(한국체육대학교)은 “축구 경기장에서 공연은 처음이라 설레고 긴장됐다. 어린이 팬이 없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뜻밖에도 많은 팬이 몰려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반응을 보여 나 자신이 흥분했을 정도다. ‘이게 뭐야?’ 하는 분도 나올 듯 싶어 염려했는데, 다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공연을 기획하고 KTA에 제안했

던 김태주 FC 서울 마케팅 팀장도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팀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멋진 공연이었다. 축구 팬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숨씨가 연출됐다. 꼭 다시 초청해 더 많은 팬에게 환상적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번 공연이 경기장 바깥에서 펼쳐져 더욱 많은 팬이 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김 팀장은 당초 경기장 내 그라운드에서 공연을 열려는 기획 아래 이를 추진했으나, ‘잔디 보호’를 이유로 내건 서울시시설공단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교돈·곽여원, 독특한 ‘태권도 시축’으로 환호 자아내다

‘태권도의 하루’였던 이 연극의 대미는 인교돈과 곽여원이 장식했다. ‘Today’s V-kick’이란 제목 아래, 한국 태권도 겨루기와 품새를 대표하는 인교돈과 곽여원이 연기했다. 2만 5,000명이 넘는 많은 관중 앞에서 선보인 시축이었다.

악성 림프암을 극복한 인교돈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세계 무대를 누비는 승부 근성, 2018 타이베이(臺北) 세계 선수권 대회 자유 품새 복식전에서 정상에 오른 곽여원은 범접하지 못할 최고수의 기량이 각기 돋보이는

태권도 스타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이 한국 축구 본무대에서 보인 시축 연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태권도 명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동작에, 수만 명 팬은 환호했다. 홈 팬들의 기대 섞인 눈에, 먼저 “FC 서울 파이팅!”을 외친 두 사람은 이어 멋들어진 태권도 동작 뒤 시축으로 폭발적 반응을 끌어냈다. 일련의 몸놀림, 곧 앞차기→뒤돌려차기→(공중) 옆돌기 뒤 공을 힘차게 차 박빙의 승부가 시작됨을 알렸다.

인·곽 듀오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했다. 두 사람은 “축구와 별다른 연이 없어 경기장 분위기가 생소했다. 더구나 그토록 많은 관중 앞에서 시축하려 하니 경기할 때와 또 달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미있겠다는 느낌도 들었다. 태권도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그것도 훌륭한 경기장에서 한국 프로축구를 대변하는 두 팀의 경기 시축에 나서 자부심과 함께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곽 듀오는 시축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했다. 인교돈은 “공으로 하는 운동엔 취약하다. 그날은 슛보다는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찾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곽여원은 “딱히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공이 멀리 날아가 기분이 좋았다.”라고 모두 흠족해했다.

2019년 9월 1일은 태권도 시범으로 시작돼 태권도 시축으로 끝난 ‘태권도의 날’이었다. ㉠

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의 환상적 품새 연기와 격파는 관중을 태권도의 마력(魔力) 속으로 이끌어 갔다.



열악한 재정 자립도의 한국 체육, 새 체육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글 고진현 사진 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지난 7월 11일 대한체육회는 창립 99주년 기념식 및 IOC 위원 선출 축하 행사를 열었다. 백수(白壽)를 맞이했지만 대한체육회의 장래는 낮은 재정 자립도 때문에 불투명하다.

무릇 조직 운영의 안정성은 탄탄한 물적 토대 구축에 있다. 든든한 재정 뒷줄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직이 목표하고 의도한 사업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을뿐더러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역시 튼실하게 짤 수 없기 때문이다. 체육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관심 밖에 머물던 한국 체육의 재정 자립도 중요성이 거론되는 건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국 체육의 재정 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재정의 90% 이상을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존해 왔다. 올해는 전체 예산 3,106억 원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938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4.6%를 차지했다. 자체 수입은 168억 원에 불과해, 재정

자립도는 달랑 5.4%에 그쳤다. 사실상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대한체육회의 구조적 특수성은 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 단체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65개 회원 종목 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55.8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65개 회원 종목 단체 중 34개 단체는 50% 미만의 재정 자립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단체는 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금 절대적 의존 구조 ... 관치 체육의 그늘

한국의 체육 구조가 자립할 수 있는 물적 토

대를 갖추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불똥이 튈다.

체육의 재정 자립도 미흡이 한국 체육의 어두운 그림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현격하게 뒤떨어지는 재정 자립도는 정치가 체육을 지배하는 독특한 문화를 낳는 결정적 계기가 됐음은 물론 체육인들의 의식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돈이 개입되면,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재편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정부와 체육계의 관계는 대등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금이 가장 중요한 체육의 존립 근거가 되면서, 둘의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

황으로 내몰렸다. 지원금을 매개로 정부와 체육계는 수직적 위계질서의 관계로 편입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 결과 체육계는 체육의 자율성을 외치기보다는 정부 권력에 순응하는 게 낫다고 보고 스스로 알아서 가는 '을'의 처지로 전락한다. 한국 체육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치 체육'은 결과적으로 체육계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게 정확한 지적이다. 체육인의 낮은 자존감은 따지고 보면 정부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부정부패의 원인

체육계가 유독 부정부패에 쉽게 빠지는 현상도 낮은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원금을 금쪽같이 여기며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 정부의 돈을 '공돈'으로 보는 나쁜 버릇이 체육계에 만연했던 게 사실이다. 시대정신과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걸맞지 않게 공공의 재원을 교묘하게 사적으로 취득하는 게 체육 권력의 특권으로 통했다. 최근 이러한 적폐는 체육 주체들의 각성과 국민 여론에 힘입어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체육계의 구습으로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체육계가 부정부패에 빠지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체육계의 재정 자립도가 체육 개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체육계의 물적 토대가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가 땀 흘려 만들어 낸 결실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풍토가 조성되고 감히 그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취득하는 구태는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기업 유인책과 비인기 종목의 공동 마케팅 전략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한국 체육계가 현격하게 뒤떨어진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최순실의 체육 농단 이후 뜻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체육계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떠나는 기업을 체육계로 다시 유인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 체육의 장래는 그야말로 어둡다. 기업이 체육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거나 물적 토대가 빈약한 비인기 종목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묶어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전략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회장 출연금 약정 문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한국 체육 단체에선, 결과적으로 회장 출연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역설적으로 체육계에선 기업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체육 농단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워낙 큰 파문을 몰고 온 결과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낫 놓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체육계의 사정은 한가하지 않다.

대부분 단체가 돈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회장 출연금 문제가 자칫 한국 체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연금을 내놓을 수 있는 재력 있는 회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때 체육계를 떠났던 체육 마피아들의 회장 입성도 다시 눈에 띈다.

체육에 기생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선거 전에

는 출연금을 약속해 놓고 당선된 뒤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안면을 몰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선거 전 출연금 약정을 합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 했으나, 향후 체육계의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출연금 약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칭 펀드 시스템

매칭 펀드 시스템(Matching Fund System)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정부 지원금을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종목 단체 스스로가 조성한 재원에 걸맞게 배분하는 방식을 쓴다면, 체육의 재정 자립도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체육 현실이 이러한 선진적 시스템을 받쳐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기대하기란 무리다.

매칭 펀드 시스템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단체엔 강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어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모든 단체가 새로운 체육 생태계에서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종목 단체별 재정 불균형성은 더욱 커진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한국 체육의 낮은 재정 자립도는 관치 체육과 고질적 부정부패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돈은 늘 그렇듯 양면성을 지닌다.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재정 자립도 문제가 자금의 체육계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



김운용 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늘 앉던 레스토랑 지정석

글·사진=서완석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939년부터 20년간을 쿠바에서 머물렀다. 그는 아바나 동쪽 약 10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 코히마르에서 대부분 시간을 낚시하며 보냈고, 시간이 가면 글을 썼다. 그는 단골 식당 라 테라사에서 어부들과 한잔하며 담소하길 즐겼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쓴 소설이 바로 『노인과 바다』다. 그가 자주 들렀던 라 테라사의 햇볕 잘 드는 창가 탁자엔, 그의 지정석이 있다. 지정석은 예약석처럼 깨끗하게 세팅돼 있어 당장이라도 그가 찾아올 듯하다. 그 지정석은 헤밍웨이를 대신해 수많은 관광객의 순례 코스가 되고 있다.

2016년 어느 가을날, 김운용 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약속한 식사 장소는 여의도 KBS 옆 어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다. 그 한 해 전에도 그는 같은 데서 밥을 먹자고 했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면 한 보따리 가득 자신의 자료집을 건네곤 했다. 1988 서울 올림픽 비사를 쓴 '위대한 올림픽' 책이 없다고 하니, 며칠 뒤 집으로 부쳐 주기도 했다. 그 자료집은 1년 후 그가 타계한 뒤 생애사를 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마치 필자가 자신의 생애사를 쓸 것으로 예견한 것처럼, 자료집은 그의 생을 총정리한 것이었다. 레스토랑에서 그의 좌석은 항상 같은 자리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누구라도 곧장 찾을 수 있는, 맞은편 액자 아래 좌석이다. 그가 레스토랑에 들르면, 지배인은 항상 그 자리로 안내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3년 만에 다시 찾은 그 레스토랑은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탁자 위치를 옮겼냐?”라고 주인에게 물어보자, “10년째 그 자리에 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데없네.”라고 노래한 옛 시조가 생각났다. 인걸은 갔고, 세월이 흐른 탓에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산천(탁자)이 낯설었던 것이다. 이제 김 전 총재가 늘 앉았던 좌석이 헤밍웨이의 그것처럼 지정석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를 기억하는 태권도인이면 한 번쯤 그 지정석을 찾아가 생전 그가 좋아하던 스테이크를 먹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

온 하늘과 땅을 놀라게 했던 격분의 함성이 되살아날 그 날을 기억한다

정음 = 글·사진 최규섭





“들린다! 성난 민초의 울분에 찬 울부짓음이
드센 본격의 외침 온 천지를 진동하도다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한다는 드높은 함성에
하늘과 땅도 놀라니 하늘며 탐관과 오리 어찌 잠을 이룰까나.

보인다! 노여운 백성의 격분에 찬 항거가
이처럼 거센 격노의 물결이 언제 있었던 말인가
나랏일을 돕고 민중을 편안하게 한다는 기치의 격랑에
탐욕스럽고 포악한 무리 두려워 도주의 발길을 재촉하는구나.

읽힌다! 마음을 바로 하고 하늘을 공격하려는 애씀이
주먹을 불끈 쥐고 조국을 간두 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념이도다
간악하고 흉포한 외세의 무리에 짓밟힌 녹두의 다짐
아, 정녕 이 통분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날의 함성, 세월을 건너뛰어』·춘추필)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았다. 절로 그곳으로 향한 발길이었다. 고즈넉했다. 눈에 부신 가을 햇살만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산새들도 들새들도 경건함에 울음을 삼가고 날개짓을 사린 듯, 고요가 깃든 네 에움(四圍·사위)이다. 돌연 들리고 보인다. 정적을 깨는 분노의 함성과 격렬한 저항의 몸짓에선, '기억의 강'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한결같이 도도히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도 감화받은 양 통탄의 격랑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친다.

황토현 전적(사적 제295호)! 역사의 숨결 속에서, 오늘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한 채 125년 전의 각축전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죽창으로 맞서 대첩을 일군 백성의 기개가 엿보인다. 녹두장군(綠豆將軍·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나로 어우러진 민초의 생명력을 그 누가 짓누르려 했던 말인지... 무심한 하늘이다. 그날의 기억은 애잔함을 부채질한다. 꺼뜨린 불씨를 되살리고 싶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 열망을 이룰 그날이 기다려진다. 아! ㉠



새 출발을 알리는 여걸(女傑)의 ‘거수경례’

창녕=글·사진 류호경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정든 코트를 떠나려니 시원섭섭하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 마지막 시상대에 오른다.

발차기 하나는 전국 최강이지만, 막 배운 ‘거수경례’는 도복을 처음 입을 때처럼 어색하다.

‘경찰청장기’ 무도 특별 채용 첫 번째 주인공, 안새봄(춘천시청, 왼쪽 두 번째)과 김빛나(인천광역시 동구청, 왼쪽 세 번째)의 모습이다.

태권도 레전드 출신 이선희 경사(맨 왼쪽), 심혜영 경장(맨 오른쪽)이 후배 선수들을 아낌없이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함께하고 있다.

위풍당당한 ‘여걸(女傑)’ 같다. 차렷! 경례!

태권도 전국 최강 자리에 선 여걸의 새 출발을 『태권도』가 응원한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 니폰 부도칸(日本武道館)과 마쿠하리 메세(幕張メッセ) 사이

내년 여름 열리는 2020 도쿄(東京) 올림픽은 개최지 선정 이전부터 우리 태권도인들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라테 때문이었다. 역사적인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태권도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역시 가라테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 당연히 개최국인 일본은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포함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권도와 가라테가 올림픽 안에서 고스란히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 예상대로 일본은 자신들이 강세인 야구-소프트볼과 함께 가라테를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천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야구-소프트볼과 함께 가라테를 정식종목으로 승인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유도를 올림픽 종목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유도는 동양에서 시작된 종목으로는 최초로, 그리고 레슬링과 복싱 같은 고대 올림픽에서 유래한 종목을 제외하면 무술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때부터 유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될 때까지, 동양 무술로는 유일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올림픽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왔으며 그 위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2020년, 56년 만에 다시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제는 유도에 이어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포함시키고 위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가라테 세계가 꿈꿔왔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라테 처지에서는, 가라테에서 파생된 아

류썸으로 생각하는 태권도가 가라테를 위협하는 세계적 무도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것도 모자라서 가라테보다 훨씬 앞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뼈아픈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가라테가 도쿄 올림픽에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가라테가,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태권도를 누르고 올림픽 정식 종목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태권도와 가라테, 도쿄올림픽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미디어에, IOC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승부다.

그 결과는 1년 후에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 경쟁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태권도와 가라테가 열리는 경기 장소다. 가라테가 열리는 곳은 니폰 부도칸(日本武道館)이라고 불리는 일본 무도관, 즉 부도칸이다. 부도칸은 일본 도쿄 시내 중심가인 지요다 구 기타노마루 공원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으로, 일본 무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유도를 포함해 검도, 스모, 가라테, 아йки도 등 일본을 대표하는 무도 대회가 열리는 '일본 무도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가라테가 열리는 곳이 바로 부도칸이다. 유도 역시 부도칸에서 열린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막과 함께 부도칸에서 유도로 시작(7월25일)해서 가라테로 막을 내리는(8월8일) 일정을 잡았다.

이에 비해 태권도가 열리는 곳은 엄밀하게 말

하면 도쿄가 아니다. 도쿄에서 1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지바(千葉)라는 중소도시다. 장소도 독립적인 체육관이 아니라 마쿠하리메세(幕張)라는 대형전시장의 공간 일부분이다. 물론 마쿠하리메세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태권도만은 아니므로 태권도를 홀대한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 서양무술스포츠를 대표하는 레슬링과 펜싱이 태권도와 같은 곳에서 열린다.

다 좋다. 어차피 그 정도의 텃세(?)는 이미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제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 태권도와 가라테가 대놓고 비교와 평가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태권도는 어떤 면에서는 가라테뿐만 아니라 유도와도 비교당할 수 있다. 태권도가 열리는 기간은 유도와 겹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가라테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미 정식종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태권도는 앞으로도 계속, 가라테뿐만 아니라 유도, 우수 등 유사한 무술스포츠 종목들과 비교를 당할 것이다. 태권도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 그 관점에서 전 세계가 우리 태권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태권도는 어떻게 현대화됐나?

① 스포츠 태권도의 의의

글 서완석 사진 KTA DB

해방 직후 태권도란 명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가라테의 우리 식 한자 발음인 당수도(唐手道), 공수도(空手道)로 불리던 시절이었다. 이원국(청도관), 황기(무덕관), 전상섭(조선연무관 권법부), 윤병인(YMCA 권법부), 노병직(송무관) 등 1세대 관장들이 대부분 가라테를 배웠기 때문이다. 훗날 오도관을 창설한 최홍희도 일본 유학 시절 가라테를 배웠다. 따라서 수련법도 가라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1955년 최홍희가 전통 무예인 '태권'에서 힌트를 얻어 옥편을 뒤진 끝에 작명한 것이 바로 '태권도'였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태권도는 여전히 가라테 수련법을 답습하고 있었다. 가라테 수련법은 크게 품새인 형(型), 겨루기인 대련(對鍊), 그리고 격파(擊破) 등 세 가지다.

대부분 동양 무술이 그렇듯, 무술 수련의 목적은 끊임없는 신체 단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자기 완성에 이르는 것이었다. 누구를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련을 통한 수양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격파 수련을 위해 하루에 수천 번 권고대(단련대)를 치는 이도 있었다. 손날, 손등, 정권이 주요 수련 부위였다.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십 몇 대 일로 싸워 이겼더라.", "지붕을 훌쩍 뛰어넘더라." 하는 무협지에 나올 만한 과장이 사실처럼 전해지기도 했다.

가라테 수련법의 핵심은 형에 있었다. 가라테 기술과 정신이 형에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련은 품새 수련에 비해 주목받



1968년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지 못했다. 자유롭게 상대와 기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공격·방어의 틀을 미리 정한 약속 대련 위주였다. 자유 대련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격 목표 부위 앞에서 손발을 멈춰야 했다. 이른바 '촌지방식(寸止方式)'의 대련이다. 지금도 정통 가라테 도장은 이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대련은 혹 생길지 모를 위험을 사전에 막는다는 의도가 깔렸었다. 왜냐하면, 수련생은 각자 일격필살(一擊必殺)의 주 무기를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살상의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황기 관장은 아예 "무술이란 생명을 마주해 대련하는 것으로 경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1950년대의 도장 풍경이다.

지도관의 혁명적 사고방식

이런 가라테 수련 방식에 반기를 든 유파가 나타났다. 이종우 관장이 이끄는 지도관이

었다. 그는 “태권도가 가치를 높이려면 스포츠화로 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스포츠라 함은 상대와의 경쟁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가라테 수련법 가운데 형은 자기 수련이다. 지금이야 형(가타)을 연기함으로써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종목이 됐지만 기본 속성은 수련이 목적이다. 혼자 하는 품새 수련은 대중의 흥미를 끄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자기 수련은 상대방과 겨루는 게 속성인 스포츠와는 거리가 멀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련이 제격이다. 발로만 하는 축구나 손으로 하는 농구처럼 태권도도 어느 스포츠처럼 특화된 모습이 있어야 했다. 격투기 가운데 손을 위주로 하는 복싱이 있다면, 태권도는 발기술로 특화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라테의 자유대련은 부상을 염려해 가격 부위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촌지방식이었다. 이종우는 이런 대련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다.

“수련생들이 차고 때리면 정말 위험할까?”
 “상대를 가격하지 않는 격투기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

타격 직전 공격을 멈추는 가라테의 자유대련은 득점 부위가 불명확했고, 판정도 주관



1962년 11월 제일동포 가라테 선수들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체육관의 지도관 선수들과 경기를 갖고 기념 촬영했다. 지도관이 3:1로 승리했다.

적이었다. 지도관에서는 실제 싸움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실전 겨루기를 허용했다.

이종우는 “상대가 있어야 서로 경쟁력이 생기고, 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기술이 발전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다. 지도관의 겨루기 방식을 두고 다른 도장에서는 “사람 죽는다.”라며 말들이 많았다. 실전 겨루기에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경기규칙을 보완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경기 중 부상을 없앨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이종우는 “죽긴 뭘 죽어, 밥을 죽여?”라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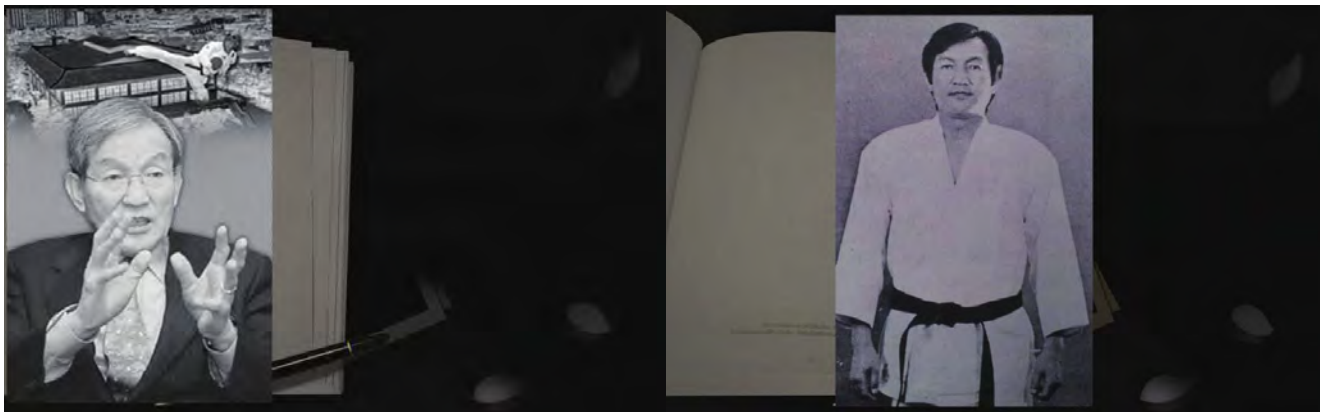
신의 신념을 밀고 나갔다. 실전 훈련을 쌓은 지도관이 타 도장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강했음은 불문가지다. 직접 치고 받아야 태권도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그는 이미 1950년대에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권도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가라테와 차별화한 콘텐츠, 첫 출발은 이처럼 겨루기 위주의 스포츠 태권도로 발전의 방향을 튼 것이다. 태권도가 이후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우수, 가라테 등 유사 무술들을 제치고 올림픽 종목으로 가장 먼저 진입한 바로 그 이유가 된다. 가라테 수련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 겨루기를 시작한 태권도에 이제 ‘현대 태권도’, ‘태권도 현대화란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듯하다.

1963년 10월 전북 전주고등학교에서 전국 체육대회 사상 첫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 태권도 경기 모습.



스포츠화하는 태권도 경기... 경기규칙 제정

태권도의 스포츠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급물살을 탔다. 군사정부는 태권도 단체들이 통합하면 대한체육회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해 9월 16일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모여 대한태수도 협회를 만든다. 최홍희는 ‘태권도’를 주장했지만 태권도의 ‘태’와 공수도, 당수도의 ‘수’를 합



친 '하이브리드' 태수도협회가 탄생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이를 모태로 삼는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도관을 제외한 타 관에서는 촌지방식의 경기가 주류를 이뤘다.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지금처럼 호의적이지 못했다. 심지어 태권도하는 사람을 깡패, 건달 취급하던 시절이었다. 대한태수도협회의 대한체육회 가입의 키를 쥔 김종렬 대한체육회 전무조차 "태수도는 무술이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 전무는 대한태수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려면 경기 규칙, 심판 규정 등 모든 규정을 아마추어 스포츠 기준에 맞게 고쳐 오라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 태권도 경기는 주로 지도관 중앙본관이 있던 한국체육관, 국민회당, 장충체육관, 서울운동장 등에 마련한 마룻바닥과 땅바닥에서 행해졌다. 다른 관(館)의 수련장에서도 겨루기를 했지만, 여전히 통일된 경기규칙은 없었다. 각 관마다 달랐다. 가라테의 영향으로 경기는 연령, 체중, 체급에 관계없이 이뤄졌다. 경기 형태는 1회전 단판이었다. 심판도 주심만 있다가 나중에는 부심이 추가됐다.

경기규칙을 만들어 오라는 대한체육회의 재

촉에 이종우는 청도관 관장 엄운규와 머리를 맞댔다. 태권도는 무술이란 이유로 보급이 더뎠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널리 깔려 있었다.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가입이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1962년 11월 협회 통일 경기규칙이 제정됐다. 기술심의회 의장을 맡은 이종우가 주도했다. 겨루기 경기규칙에 관해 그만큼 경험과 지식을 쌓은 태권도인은 없었다. 엄운규와 창무관장 이남석도 지혜를 보탤 때. 태권도 2세대 젊은 관장들의 리더였던 이들은 대한체육회 가입에 힘을 보탬으로써 협회의 정착과 초기 태권도 스포츠화에 공을 세웠다. 엄운규의 증언이다.

"내가 상근부회장이 되고, 이종우씨가 기술심의회장을 했다. 모든 기술 관계는 그분한테, 그리고 전무는 창무관 관장 이남석씨. 이 조직(대한태수도협회)을 말쑥 없이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가 욕심내지 않고 상의해 당선은 뭐, 당신은 뭐, 이렇게 군소리 없이 같이 가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협회(대한태권도협회)가 된 거지."

경기규칙은 1962년 10월 대구 전국체육대회 시범 경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

든 경기규칙을 바탕으로 해 수정 보완됐다. 앞선 10월 대구 체전에는 경북과 전북 두 팀만이 출전했다.

전북팀이 만든 호구가 처음 사용됐다. 이를 처음 착용해 본 경북 선수들은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생소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경기규칙이나 제반 경기 운영방식이 채 가다듬어지지 않아 두 팀이 공동 우승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한태수도협회는 마침내 1962년 12월 대한체육회에 가입하고 이듬해 2월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28번째 가맹 경기단체가 됐다. 협회 사무실도 무교동 대한체육회 빌딩에 버젓이 입주하게 됐다. 이제 태권도는 대한체육회 가맹 스포츠 종목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게 됐다.

양진방(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은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논문을 통해 태권도 스포츠화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태권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술에서 경기로의 전환"이라며 "태권도 경기화는 엄운규 이종우 이남석 등 2세대들이 기술을 경기에 적응시키고 발전시켜 경기 태권도의 기술체계를 완성하는 데 큰 구실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㉞



1963년 첫 국가대표팀, 일본에 가다

1963년 12월, 대한태수도협회(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전신) 임원들과 국가대표팀이 정장을 하고 김포공항에 모였다. 일본 주오대학교 공수도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하러 가기 위해서였다.

그에 앞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는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12차 선발전을 거쳐 이승완·조점선·안대섭·최영렬·이용준·김용태 등 6명이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선수들의 대부분은 전북 전주의 지도관(智導館) 출신이었다. 그만큼 지도관은 다른 관에 비해 태권도 경기화에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주장은 이승완(전 국기원장)이었고, 막내는 고교 3학년 최영열(현 국기원장)이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정장 차림을 한 선수와 임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들은 노병직(감독), 전일섭·이병로(코치), 이금홍(주무) 등 대한태수도협회 임원들과 함께 일본 주오대학교를 방문, 그곳에 마련된 권투 경기장에서 공수도 선수들과 경기를 했다.

경기 결과는 4:1로 한국이 승리했다. 당시 선수들은 검도 복장을 차용한 호구를 입고 경기를 했다. 오사카에서 열린 2차 친선경기는 5:0으로 완승했다.

당시 친선경기에 참가한 이승완 원로는 “일본 공수도 선수들의 발차기는 형편없었다.”라고 회고했다.



1989년 제1회 국제 주니어 대회 종합 우승

1989년 8월, 제1회 국제 주니어 태권도 대회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올림픽 훈련센터에서 열렸다. 대한태권도협회는 ▲ 박종식 단장, 송동석 감독, 김세혁 코치, 송인호 트레이너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 동성 중고 남자 선수 10명, 천안 동여중 3명, 천안여고 1명 등 18명으로 대표선수단을 구성했다.

남자 선수는 소병관·박성호·이재욱·장대순·여원제·강성봉·천현욱·김태수·김용환·김승재였고, 여자 선수는 윤영·금은화·서경숙·서연화였다.

이 대회에는 한국, 미국, 스페인, 대만, 이집트, 캐나다, 이탈리아 등 7개국 선수들이 참가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해발 1,839m 고지대로 기압이 낮고 건조해, 청소년들이 현지 적응을 하는 데 고충이 많았다.

한국대표팀은 남자 10체급과 여자 4체급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했다.

김세혁 코치는 “청소년 선수를 감안해 경기 시간은 2분 3회전으로 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굳은 신념 덕분”이라며 “놀라게 성장하고 있는 각 국 선수들을 대비해 기술개발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

“열정과 도전 의식이 식을 때는 지도자 관둬야”

글 박상욱 WTN 기자 사진 박상욱, 함준 제공

뜨거운 열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함준 고양시청 감독은 전주초등학교 4학년 때 선수로 첫발을 내디딘 후 활동한 시간보다 더 많은 세월 지도자 삶을 걸어왔다. 임팩트 있는 선수 생활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작된 지도자의 길이었다. 『태권도』는 함준 감독을 만나 그의 평탄하지 않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선수 시절 세 번의 터닝 포인트

2020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으로 가는 티켓의 주인공을 가리는 2019 경찰청장기 남녀 우수 선수 선발 대회가 열렸던 경상남도 창원에서 함준 감독을 만났다. 단풍이 붉게 물든 10월,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부는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마주한 함 감독은 “제가 『태권도』지(誌)에 실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군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태권도를 처음 접하게 된 이유부터 말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예체능을 못 하셨어요. 자식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태권도를 배워 보라고 권유해서 태권도를 접하게 됐죠.”라고 설명했다. 그 시절 함 감독은 전주 종합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을 했다. 재미도 있었고, 흥미도 많이 느꼈다고 회상한다. 3년의 시간이 흐른 초등학교 4학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함 감독을 선수로 첫걸음을 내딛게 한 첫 번째 스승 고(故) 이영기 선생을 만난다. “은사이신 이영기 선생님께서 저를 보기 위해 체육관으로 오셨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선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완산중학교



1989 세계 선수권 대회 밴텀급에서 우승한 후 은사 이승국 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과 함께했다.

에 진학해 이영기 선생님의 지도를 계속 받았습니다.” 스승은 기본기를 수없이 강조했다. 여기에 스텝의 중요성까지 덧붙여 강조했다. 이러한 지도를 받았던 함 감독은 특정한 기본기와 스텝을 갖추게 됐다. 중학교 1학년 때 그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다. “중1 때 전라북도 대회에 나가 패한 뒤 선생님께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후 동계훈련까지 혹독하게 훈련했죠. 그런데 힘든 시기를 버티고 나니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한 뼨 성장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함 감독은 종별 선수권 대회, 전국 소년 체육 대회 등을 휩쓸었다. 당시 국내 대회가 많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굵직한 대회서 획득한 금메달은 너무나 값진 것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함 감독은 이 시절을 첫 터닝 포인트로 꼽았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전북체육고등학교 진학 후다. 당시 하용성 코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체고로 부임했다. 함 감독은 하용성 코치와 함께 재미있게 많은 훈

련을 소화했다. 그는 “지방에 있다 보니 당시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게 쉽지 않아 많은 훈련으로 이를 보완하려 했죠.”라고 술회했다. 결과는 좋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돼, 흘린 땀만큼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1988 서울 올림픽 최종 선발전 직후에 다가왔다. 당시 국제 대회가 많지 않아 국가대표 1진 아니면 국제 대회 참가가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부 터 한국체대 3학년까지 그는 대표 2, 3진에 머물러 국제 대회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한국체대 3학년 때 1988 서울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패했다. 그런데 그는 패한 이튿날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1988 올림픽 최종 선발전 전까지는 남 탓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다음날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운동선수로서 자존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노력이 부족했고 노력하지 않은 선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개인 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첫 대표 1진 선발,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까지

그 뒤로 함 감독은 2년 동안 경기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 1989년 드디어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돼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출전하게 된다. 그는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

했다.

“그때는 정말 훈련을 많이 해서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서 운동량이 많아 몸도 가벼웠고 체력도 대단해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날아다닐 것 같았던 그것기에,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획득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는 1989 세계 선수권 대회 예선부터 결승까지 상대 선수에게 단 1점만 허용하며 우승했다. 지금과 다른 경기 규칙과 다른 환경이어서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단 1점만 허용한 것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듯싶다.

그가 첫 대표 1진에 이어 세계선수권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간절함’이었다.

“대표 2, 3진을 오가며 국제 대회 경험이 부족했어요. 대표 1진과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이 무척 간절했기에,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패한 게 저를 훈련장으로 이끌었던 듯합니다.”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는 1990 마드리드 월드컵으로 이어진다. 함 감독은 이 대회에 출전해 3위에 머문다. 전년도 세계 선수권자인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당시 월드컵 패인에 대해 “내가 너무 자만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꼽았다. 함 감독은 “자만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함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경기에 패해도 무엇이든 하나 배워야 된다.’는 점을 깨달은 게 수확이었다.

26년간 심포 없이 달려온 지도자의 길... “행복한 시간”

이후 함 감독은 한국체대 졸업을 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한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선수생활을 하고 고향인 전주로 발길을 돌린

다. 전주시청 소속 선수로 1995년 포항 전국 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후 은퇴를 선언한다.

지도자 생활은 1993년부터 전북체고에서 시작했다. 그의 나이 26세. 젊은 나이로 선수 생활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도자로서 꿈이 더 컸다. 하지만 의욕이 앞선 지도자로, 함 감독은 마치 천둥벌거숭이 같았다. 그는 “지금 돌이켜 보면 의욕만 앞섰지 제대로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했던 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라고 고백했다.

팀을 맡으면 최고로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그 팀의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 선수들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해야 됴에도, 함 감독은 선수들 수준을 높게만 봤다. 어린

선수들이 따라 올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 부임 후 첫 1년간 전국 무대에서 메달이 없었다.

“수준에 맞게 소통하며 지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북체고를 맡은 5년의 시간은 제가 어떤 지도자 유형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한 시간이 되었죠.”

1998년 함 감독은 모교인 한국체대 코치로 자리를 옮긴다. 이 시절에 대해 그는 “운 좋은 지도자였어요.”라고 말한다. 전북체고에서 5년간 시행착오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 밑바탕이 되었고, 좋은 선수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1998년도에 한국체대 코치로 갔는데, 전년도 졸업생들이 이동안, 최만용 등 최고의 성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재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998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정재은과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2001 제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정재은과 작전을 짜고 있다.

적을 낸 선수들이었죠. 부임 첫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국 전 총장님과 문원재 교수님께서 신입생 선발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한 좋은 신입생은 노현구, 민병석, 장지원, 정재원 등 대한민국 태권도를 빛낸 인물들이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운동한 지 1년 만인 1999 에드먼튼 세계 선수권 대표 명단에 4명의 이름을 올리는 결실을 올렸다.

국내 대표 선발전이 끝난 후 함 감독은 이승국 전 총장으로부터 꽃다발을 선사받는다. 그는 “꽃다발을 받을 때 잘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굉장히 기쁘죠.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을 1년 만에 성장시켰고, 인생 경기로 꼽을 수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함 감독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맞이한다. 시드니 올림픽은 그에게 꿈도 주었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절실히 느끼는 계기도 됐다. 지칠 대로 지친 함 감독.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수들이 첫 번째 주인공이고 ‘이승국-문원재’ 투톱이 두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이후 그는 새로운 꿈과 도전을 위해 한국체대를 떠나게 된다.

“제가 하나에 빠지면 다른 것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한국체대에서 가능성 많은 선수들과

호흡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실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드니 올림픽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지친 것 같아요.”

그가 택한 선택지는 고향이었다. 한체대에서 조교를 할 수 있는 2년이 남았지만 함 감독은 고향으로 내려가 갔다. 그리고 2003년부터 전북 전임 지도자로 자리를 옮겨 7년간 활동한다. 이듬해 2004년 결혼도 했다. 함 감독은 “아마 그때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2009년 고양시청 지도자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까지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스물여섯 살 젊은 나이에 지도자 생활을 한 이후 26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행복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라고 털어놓았다.

‘태권 여제’ 황경선과 만남

전북 전임지도자 시절 고양시청 지도자 선발 공고에 응했던 이유는 ‘태권 여제’ 황경선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도한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꿔 왔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양시청을 택했고, 거기에 황경선이 있었다. “사실, 황경선 선수가 없었더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경선 선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고, 선수와 혼

연일체가 되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도전하고픈 꿈이 너무 컸습니다. (황)경선이 같은 경우 제 꿈을 이루게 한 선수죠.”

함 감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무릎 부상으로 수술 후 재활중인 황경선과 첫 만남을 가졌다. 그는 “고양시청에 가 보니 경선이 부상으로 수술하고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재활까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황경선은 국내 대회에 출전해 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릎부상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황경선은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다.

“2011년 전지훈련에서 또 무릎을 다쳤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무릎 상태를 박지성 선수와 비교하더군요. 그런데 경선은 명절 때 휴가를 줘도 쉬지 않고 남아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선수 의지로 극복하고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지,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애절한 마음과 함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들었죠.”

현재 황경선은 은퇴 후 중국으로 건너가 지도자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 감독은 “경선이 잘되길 기원합니다. 중국에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죠.”라고 말했다.

10년 연속 전국 체육 대회 금메달에 도전장

함 감독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열정과 도전을 꼽았다. 여기에 기본을 지키고, 작은 약속도 묵숨처럼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열정이 없고 도전할 목표나 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그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열정이 식고 도전이 없으면 지도자를 그만둘 것입니다. 월급만 받을 것 같으면 지도자 생활 못 합니다. 고양시청에 온 지 10년 동안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10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올해 전국 체육 대회(전국 체전)를 통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도전에 나섰다. 전국 체전서 고양시청 팀 선수가 10년 연속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한 팀에서 전국 체전 10년 연속 금메달 획득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저희 팀이 6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 서울 전국 체전에서 저희 팀보다 더 긴 팀이 있더군요. 한 성고등학교가 9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

표를 잡았습니다. 10년 연속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0년 연속 전국 체전 금메달 획득이란 목표와 함께 함 감독은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 현재 고양시청 소속으로 이아름이 여자 -57kg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심재영도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49kg 출전이 가능하다. 함 감독은 심재영 경기를 또 하나의 목표로 정했다. 그는 “내년 1월 선발전에서 지도자 생활 중 인생 경기를 펼쳐려 합니다. 경기 승패를 떠나 선수와 호흡을 맞춰 노력할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청이 마지막 ...

“끝까지 열정 태우고 도전하겠다”

함 감독은 고양시청에서 지도자 삶의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태우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선수들과 호흡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가 마지막이라 여기

는 팀에 대해 궁금해졌다. 10년간 몸담았던 직장이자 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그는 “저희 팀은 색깔이 명확해요. 소통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하죠. 특히 회사(고양시청)를 생각하는 애사심이 매우 큼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소통 없이는 모든 게 안 된다는 게 함 감독의 소견이다. 그래서 그는 선수들과 소통하며 기술을 가르쳐 주기보다 생각을 바꿔 주고 있다. 또 작은 약속을 지키며 서로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그는 “단 한 번도 선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선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수들의 생각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또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만들어 주는 게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에서 경기 때마다 세컨드를 보는 데 그때도 큰 틀만 잡아 줍니다. 흥분했다든지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경기를 망치기에, 이를 막아 주는 게 지도자의 소임입니다.”

함 감독은 “지금도 경기할 때마다 실수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실수하고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죠.”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선수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두렵습니다.”라고 덧붙혔다.

고양시청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함 감독은 “100% 만족할 만큼 지원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죠.”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체육정책과도 직장 운동부를 잘 관리하고 협조해 줍니다. 이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도쿄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청 선수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사제의 정을 나누고 있다.



함준 고양시청 감독이 경기 휴식 시간에 선수를 지시하고 있다.

치명적 비각술의 고수 박성호 씨

전통 무술 '수뺨기'를 현대화한 '동이택견'

글·사진 이길우 한겨레신문 전 선임기자

인간의 다리는 인체의 각 부분에서 가장 길다. 길기만 한 것이 아니다.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무술에서는 다리로 하는 공격 기술이 중요한 수련 과목이다. 그러나 인간이 다리를 허공으로 드는 순간, 많은 빈 공간을 노출한다. 한 발을 올리면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렵게 되고, 그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많은 기능이 중심 잡는 것에 집중된다. 중국 영춘권의 경우 다리를 공격 무기로 쓰더라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않는다. 다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런 인간의 두 다리를 동시에 공중으로 날려 상대를 공격한다면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공하면 상대방에게 치명상, 실패하면 상대방 공격에 무방비. 두 다리를 공중으로 그냥 띄우는 것이 아니다. 공중 회전을 하면서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다.



치명적 발기술 '휘몰차기'

동이택견의 고수 박성호(62) 씨가 다리를 공중으로 날려서 구사하는 공격 기술인 비각술(飛脚術)은 30여 가지가 된다.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휘몰차기'를 보자. 상대방과 맞서 있다. 상대는 당연히 박씨의 주먹과 다리의 움직임에 주목할 것이다. 이 순간 박씨의 몸은 상대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신을 향해 공중제비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마치 체조선수가 평균

대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던지며 정면으로 360도 돌아 공중회전하듯이, 갑자기 얼굴이 없어지면서 박씨의 발뒤꿈치가 공중에서 날아 들어오는 것이다. 박씨는 상대방 쪽으로 머리를 숙이는 동시에 힘차게 땅을 디며 솟구친다. 공중에서 허리를 강하게 비틀며 기운을 발뒤꿈치에 집중시켜 상대의 얼굴이나 몸을 가격하는 것이다. 공격을 마친 몸은 부드러운 낙법으로 땅에 착지한다. 그 속도가

눈 깜박할 사이다. 만약 상대가 몸을 옆으로 비틀어 박씨의 공격을 피한다면, 땅에 붙어 있는 박씨의 몸은 상대의 공격에 취약할 것이다. 그러니 공격에 실패하면, 그 결과는 눈에 훤히 보인다.

박씨는 그런 상황에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한다. "몸의 탄력을 이용한 강력하고도 번개같이 빠른 발질이기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의 화려한 비각술은 다른 무술에선 찾기 어려

운 고난도 기술이다.

동이택견 품밟기는 네 가지 동작

‘택견’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품밟기다. ‘이 크’, ‘엑크’하면서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무릎

요. 몸을 좌우로 전진하며 다리를 눌러 밟듯이 하죠. 골반은 전진 방향을 향하되, 허리는 반대 방향으로 크게 틀어줍니다. 고관절과 무릎, 오금과 허리 근력이 놀랍게 강해져요. 호흡법을 같이 하면 숨이 고르고 깊어지죠.” 몸을 마치 마른 수건 짜듯 심 없이 비트니 엄

은 대나무를 그리 깔끔하게 절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도끼로 내리쳐도 대나무는 껍질이 질기고 강해서 깔끔하게 자르긴 어렵다. 박씨가 과거를 회상한다.

“어느 날 산속 오솔길을 걷다가 사람 키만 한 오리나무의 굵은 줄기가 눈에 띄었어요. 산속 수련한 지 3년째였어요. 문득 발길질로 격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뺏어나갔고, 오리나무 줄기는 흰 속을 보인 채...”

각목 열개를 ‘잘라낸’ 강력한 발길질

그의 발길질은 독특하다. 체중을 몽땅 발질에 싣는다. 디딤발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있다. 속도는 발길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대나무와는 90도 각도로 부딪친다. 발목을 안으로 당겨 정강이를 ‘낫’처럼 만든다. 발목 인대와 정강이뼈 조직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선다. 대나무와 접촉하는 다리의 면적을 최소화한다. 정강이가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는 것이다. 그는 한때 각목 열개를 한꺼번에 ‘잘라낸’ 적도 있다고 한다.

‘동이택견’이라는 용어는 그가 만든 것이다. 그가 산속에서 배웠다는 무술은 ‘수밟기’.

“수는 천지도수(天地度數)의 수이고, 밟기는 이치를 밝힌다는 뜻이죠.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이치를 밝히는 무술’이 바로 제가 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무술이죠.”

수밟기라는 무예를 그가 속세에 전파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동이택견이다. 동이족의 택견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하늘의 이치를 밝히는 무술 ‘수밟기’

그럼 이제 할아버지와 박 씨와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기록이 없으니 그의 이야기에 의



을 살짝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동시에 앞으로 갔다가 좌우로 가는 품밟기는 택견의 강력한 발차기를 가능케 하는 기본 수련 동작이다. 동이택견은 이런 품밟기의 동작이 네 가지다. ‘갈지(之)자’, ‘디근자’, ‘품(品)자’, ‘삼수’ 보법 등 네 가지다.

“남들이 보면 휘청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갈지자걸음을 걷곤 하죠. 네 가지 가운데 갈지자가 가장 중요해

청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박씨를 세상에 무술의 고수로 부각시킨 것은 대나무 격파였다.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대나무를 발길질로 잘라낸 것이다. 대나무는 나무결이 단단해 각목보다 격파가 어렵다. 그런 대나무를 박씨는 정강이로 절단한 것이다. 대나무의 부러진 면이 마치 톱으로 자르듯이 반듯해서, 많은 이들이 그의 발길질을 의심하기도 했다. 인간의 발길질로 저리 굵



존해야 한다.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충남 아산에 있는 친척 집에 맡겨졌다. 일곱 살이었다. 동네 뒷산은 영인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과 산속에서 칩뿌리를 캐 먹으며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움막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흰 수염의 할아버지는 춤추듯 손과 발을 넘실대며 운동을 했다. 신기했다. 매일 멀찌감치 숨어서 엿보았다.

“숨어 있지 말고 나오너라.”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불러냈다. 당시 할아버지 나이는 98세. 호리호리한 체격에 눈매는 날카롭고

외모는 50대의 아저씨였다.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흔쾌히 어린 아이를 제자로 받아주셨다. 그날부터 아이는 학교를 마치면 할아버지에게 가서 무술을 배웠다.

할아버지 이름은 임태호. 평북 출생의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가 당대 택견의 고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친구에게 자식을 부탁했고, 임씨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금강산에 들어가 택견을 익혔다고 한다. 6·25전쟁이 터지자 월남한 할아버지는 충남 아산의 영인산까지 내려와 머물다가 우

연히 아이를 만난 것이다. 3년 동안 물 길고, 얼르는(걷기) 동작만 배웠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13년간 가르침을 주었다. 한문을 모르는 아이에게 사서삼경과 주역, 심지어 제왕학도 가르쳤다고 한다. “한자를 모르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 날 뜻이 깨쳐졌어요. 왕의 덕목도 강조하셨어요. ‘내가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111세에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헤어지기 6개월 전 세 가지 부탁을 했다.





‘초심을 잃지 말고, 현실(속세)에 적응하고, 한곳에 5년 이상 머물지 마라.’

16년간 산속 수련 후 제자 가르쳐

할아버지가 사라진 뒤 혼자 전국의 산을 다니며 계속 수련하던 박씨가 속세에 나온 것은 서른여섯 살 때다. 16년간 홀로 산속에 있던 박씨의 소문을 들은 거창고등학교 교사들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당신의 몸짓을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에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심어주기 위해 산속에 묻혀

있던 무술의 고수를 찾아간 것이다. 박씨가 거절하자, 교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수관을 만들었다. 도장을 차려준 것이다. 박씨는 하는 수 없이 속세로 내려와야 했다. 이후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서울대생들에게 동이택견을 가르치기도 했고 강원 홍천, 전북 전주·임실, 대전 등에서 전수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지리산 자락에서 제자를 키우는 그는 틈나는 대로 활을 쏜다. 그는 활을 ‘흘려 쏜다’. 활채를 당기면서 비트는 것이다. 비스듬히 비껴 잡아당겼다가 놓는다. 비트는 힘을

우리말로 ‘짚심’이라고 한다. 짚심을 실은 화살은 강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 마치 총탄이 그렇듯이 그가 쏜 화살은 회전하며 날아간다. 강력하게 먼 거리를 날아간다. 그가 비틀어 쏘면, 손바닥에 있는 경락과 근육을 대각선으로 비틀리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손바닥에 있는 기혈이 자극된다. 그가 활을 흘려 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는 평생 화살을 흘려 쏘듯 온몸을 비틀며 단련해 왔다. 그래서 그의 몸은 강하게 뒤틀린다. 마치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강력한 회전을 하며 목표물에 명중하듯이. ㉞



『태권도』 선정 ‘9·10월의 선수’ 인교돈

악성 림프암 이겨 낸 ‘3회전의 마법사’

글·사진=양택진

결승 3회전 종료 2초 전, 블라디슬라프 라린의 오른발 견제를 뚫고 거리를 좁혔다. 왼발 페인팅으로 시선을 빼앗은 후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왼발 머리 내려차기가 작렬하는 순간, 전광판 점수가 뒤집히며 짜릿한 역전승이 완성됐다. 여섯 번째 대결 만에 거둔 승리다.

악성 림프암을 이겨 내고 2020 도쿄(東京)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확정된 한국 남자 헤비급 간판스타다. 『태권도』는 ‘9·10월의 선수’로 일본 지바(千葉) 월드 그랑프리 3차 시리즈에서 5전6기 만에 남자 +80kg급 올림픽 랭킹 1위 라린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인교돈(한국가스공사-올림픽 랭킹 2위)을 선정했다.

3회전, 그 찰나의 승부사 인교돈

인교돈의 별명은 ‘3회전의 마법사’다. 1, 2회전 팽팽한 승부를 하다가도 3회전서 경기를 뒤집는다. 상대를 파악한 후 승부처를 유도해 찰나의 순간에 확실한 중지부를 찍는다.

2015년 용인대를 졸업하고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한 그는 국내 메이저 전국대회인 협회장기, 대통령기, 국방부장관기를 비롯해 전국 체전까지 남자 -87kg급을 석권하며 이 체급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그의 경기를 지켜본 많은 경기인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3회전의 마법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전자호구가 도입된 후 인교돈과 같은 스타일은 흔치 않다. 언제 어떤 발에서 득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압박과 이를



프로필

생년월일	1992년 6월 27일
키	190cm
몸무게	99kg
태권도	초등학교 1학년
입문 시기	
출신 학교	화도진중학교→인평고등학교→용인대학교(→한국가스공사)
주요 성적	2017 우시(無錫)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1위 2017 런던 월드 그랑프리 1위 2018 모스크바 월드 그랑프리 1위 2019 지바 월드 그랑프리 1위

뒷받침해 줄 체력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 어떻게 보면 과거 일반호구 스타일이다. 상대의 신장과 경기 운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자신의 스텝과 모션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묶고 견제발로 상대방의 반응 형태와 속도를 관찰해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3회전서 자신이 파악한 상대의 반응 속도와 형태에 따라 움직임을 유도한 후 결정적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린다. 특히, 3회전 인교돈의 호쾌한 뒤후리기와 뒷차기 역

전 공격의 성공은 역시 “3회전의 마법사”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한다.

도쿄 올림픽 1년 앞두고 악성 림프암 완치 판정

그러나 ‘3회전의 마법사’라는 그의 별명은 악성 림프암과 싸워 이긴 그만의 절대 전략이었다.

인교돈은 2014년 경주 코리아 오픈 이후 악성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 1년 전부터 목의 멍울이 생겼지만 방치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중증 암환자 명단에 등록되며 4개월에 걸쳐 총 여덟 번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거듭하면서 점차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갔다. 진단 3년차에는 암이 재발되어 재수술을 했다. 인교돈은 “대학교 4학년 때 암 진단을 받고, 운동을 더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은 일반인보다 못해졌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런데 박종만 감독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겠다.’며 입단 약속을 지켜주셨다. 함께 방을 썼던(차)동민이 형(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80kg급 금메달리스트)이 몸에 좋은 거라며 먹이라고 뭘 자꾸 주는데 헛구역질이 올라와 먹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체력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전략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전에는 경기할 때 발을 많이 차는 스타일이었다. 지금은

‘3회전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5년이 이어진 악성 림프암과의 싸움은 지난 8월 8일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인교돈은 암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차동민의 뒤를 이어 한국 남자 헤비급의 간판스타가 되어 2020 도쿄 올림픽 자동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부활한 인교돈, 그랑프리에서 그랜드슬램까지 종횡무진

2016년 필리핀 아시아선수권 대표로 선발된 인교돈은 당시 올림픽 랭킹 2위인 우즈베키스탄의 자수르 바이쿠지예프를 준결승전에서 맞아 3회전 주먹공격으로 승부처를 만들며 내친김에 우승까지 차지한다. 그리고 2020 올림픽 자동출전권을 향한 긴 여정의 첫 깃발을 꽂는다.

사실 인교돈은 스무 살의 나이로 2011년 광주 세계선수권 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당시 16강전서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이탈리아 선

수를 맞아 연장전에서 패했다. 이후 잦은 부상과 재활치료로 코트보다는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얕친 데 덮친 격으로 악성 림프암까지 발병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다. 그러나 ‘3회전의 마법사’라는 별명과 함께 부활한 인교돈은 2016년 아시아를 넘어 2017년 무주 세계선수권 동메달, 그리고 같은 해 모스크바 그랑프리 1차 시리즈를 시작으로 2020 올림픽 자동출전권 레이스에 명함을 내민다.

2017 모스크바 그랑프리 1차전 첫 출전에서 2위를 거머쥔 인교돈은 같은 해 런던서 열린 그랑프리 3차전서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그리고 중국 우시에서 열린 월드그랜드슬램 챔피언스시리즈 결승전서는 ‘3회전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증명하며 종료 2초 전 몸통 공격 성공으로 상금 7만 달러(8,100만여 원)의 주인공이 되었다. 어느새 올림픽 랭킹 2위까지 꿰차며 승승장구한 인교돈의 난적은 바로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블라디슬라브 라린.

지난 9월 지바 그랑프리 2차 시리즈 전까지 총 5번 만나 모두 패했다. 그러나 도쿄 올림



인교돈이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모습이다.

픽을 앞두고 언제까지 패배를 이어 갈 수는 없었다. 패배의 맥을 끊어야 했다. 그리고 결국 지바 그랑프리 남자 +80kg급 결승전서 연패의 맥을 끊었다.

인교돈은 “사실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머리 내려치기를 연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았다. 갑자기 머리가 반짝하며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올림픽 전에 한 번은 이겨야 했다. 라린의 맥을 끊어 봤으니 지금부터는 심리적으로 내가 유리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다.

욕심 많은 인교돈, 결과로 자신을 증명한다

인교돈은 상금 욕심 많기로도 유명하다. 힘든 훈련과 승리의 압박을 이겨내는 나름의 동기부여다. 또 자신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교돈의 말은 확실하다. “선수촌 생활은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다시 운동하고 밥 먹고 자는 반복의 연속이다. 그 반복을 이겨내기 위한 나만의 동기부여가 바로 상금이다. 한 판 더 이기면, 또 한 판 더 이기면 상금이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설정한다. 또 내 경기에 대해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이기는 경기를 하는 사람이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결과로 나를 증명하겠다.”

2019 지바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결승전에서, 블라디슬라브 라린을 상대로 여섯 번째 대결 만에 승리한 인교돈이 포효하고 있다.



「태권도」 선정 '9·10월의 유망주' 이예지

“연습은 끝났다”... 아시아 정상 노리는 경상북도 딸내미

글·사진 = 류호경

“대진번호 123번. 경상북도 이예지, 3코트 출전 대기!”

이예지(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 3년)의 금메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부진 몸놀림이었다. 매 경기 점수 차 승 릴레이가 계속됐다.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이예지는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이하 전국 체전) 4경기서 150득점을 올렸다. 한 경기당 평균 득점이 40점에 육박했다. 상대 코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체전 첫째 날, 이예지는 그야말로 펄펄 날았다. 경상북도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이자, 2년 연속 전국 체전 금메달을 안기는 순간이었다. 『태권도』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난해 고교생 신분으로 성인 국가대표 타이틀을 획득한 여고생 파이터로서, 번개 같은 공격으로 올해 경량급 전관왕을 차지한 이예지를 9·10월의 유망주로 선정했다.



프로필

생년월일	2001년 08월 18일
출생지	경상북도 상주시
신장·체중	165cm 46kg
출신 학교	풍각중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태권도 입문	9세
주요 성적 및 경력	2015 무주 세계 카뎃 선수권 대회 -44kg급 금메달 2016 버너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2018 함마메트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 -49kg급 동메달 2018 -46kg급 국가대표 2018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 -46kg급 동메달 2018 파리 국제 대회 -46kg급 금메달 2017 충북 전국 체육 대회 -46kg급 은메달 2018 전북 전국 체육 대회 -46kg급 금메달 2019 서울 전국 체육 대회 -46kg급 금메달

국 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함마메트 세계청소년선수권과 유스올림픽 세계예선대회 국가대표로 동시 선발되면서 이 체급 셋별로 떠올랐다. 당시 두 대회 국가대표로 동시에 선발된 건 이예지와 강미르(성주여고), 단 둘뿐이었다. 시니어 무대도 접수했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1차선발전에서 3위로 최종선발전 티켓을 확보한 이예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진천선수촌 막내 자리는 이예지의 몫이었다. 이렇다보니 이예지는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이 잦았다. 청소년 대표 자격으로 튀니지와 아르헨티나를, 성인 대표로는 베트남에 다녀왔다. 그렇지만 유스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아시아선수권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 선수단에 선발돼 파리오픈 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지는 “아시아선수권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 내년 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가 가장 가까운 목표이기도 하다. 우수선수선발대회와 최종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고등부에서 우승할 때도 좋았지만, 하루빨리 대학에 진학해 언니들과 경쟁을 시작하고 싶다. 펼쳐질 상황들이 기대되고 설렌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전국 체전의 기억

이예지에게 남다른 기억이 있다. 바로 전국

을 목에 걸었다. 경북 청도군 풍각중으로 진학을 한 이예지는 2학년 때 카뎃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무주에서 열린 세계카뎃선수권에서 여자부 열 체급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안겼다. 이란이 다섯 체급을 휩쓸고 있는 사이에서, 홀로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이예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듬해인 2016년이다. 중학생으로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버너비 세계청소년선수권에 출전했다. 흥해공고로 진학한 해에 전

떡잎부터 달랐던 유망주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이예지는 초등학교 시절 통학이 어려워 태권도에 입문했다. 평소 태권도에 관심은 없었고, 피아노를 좋아하던 소녀였다. 태권도장 차량 운행이 훗날 국가대표를 배출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예지가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태권도장 소속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한 태권왕 대회(2012년)에서 금메달

체전이다. 이예지는 지난해 유스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튿날 홀로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전북에서 열린 전국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유스올림픽을 치르고 힘든 몸 상태로 스무 시간 가까운 비행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심지어 체중관리 때문에 찝뭉쳐야 했다.

유스올림픽은 -49kg급, 전국 체전은 -46kg급에 출전했기 때문에 감량을 하며 긴 시간을 버텼다. 당시 전국 체전 경기는 귀국 후 이틀 뒤였다. 숨 쉴 틈 없는 강행군이었다.

운이 따랐던 것일까. 이예지는 결승에 안착했다. 상대는 2017 전국 체전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대전광역시 소속 선수였다. 부담은 커졌고 아니나 다를까 2회전까지 0:3으로 리드를 빼앗기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이예지는 머리 공격으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종료 4초 전 결승 포인트를 획득하며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도해경 흥해공고 코치와 열싸안으며 첫 전국 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제100회 전국 체전에서는 강미르-보라자매와 함께 여고부 경량급을 휩쓸며 경상북도의 종합 3위를 이끌었다. 내년 전국 체전 개최를 앞둔 경상북도는 여고부 3인방 덕분에 웃음꽃을 피웠다.

“국제 대회 부진, 말끔히 씻어 내겠다!”

이예지는 국내에서 ‘발놀림 1인자’로 통한다. 앞발로 시작하는 공격 패턴이 지배적인데, 이예지는 상체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스텝을 자유자재로 이용한다. 전국 체전에서도 발놀림을 이용한 공격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그러나 이예지에게 국제 무대는 ‘아킬레스건’이다. 금메달과 유독 인연이 없는 편이다. 세계청소년선수권에 2회 연속 출전했지만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유스올림픽 세계예선대회에서 8강에서 졌지만 가까스로 본선행에 올랐다. 국내 대회에선 또래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올해 제주평화기, 여성가족부장관기, 문체부장관기, 광주 5.18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할 만큼 실력이 입증됐다. 그래서인지 ‘국내용’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예지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부진에 대해 이예지는 “경험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외국 선수들은 신체조건도 그렇지만, 전체적 스타일이 한국 선수들과는 다르다. 부딪쳐보면서 느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패배한 경기들을 모두 녹화해 놓고, 저녁 시간에 돌려보곤 한다.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겼고, 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진천선수촌에서 배운 ‘이것’

이예지는 진천선수촌 생활을 일찍 경험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선수에게 대표팀 선배들은 선망의 대상이자, 교과서 같은 존재였다. 그중에서도 ‘개인 훈련법’에 대해선 보고 배운 점들이 많다. 이예지는 “선수촌에서 훈련하면 언니, 오빠들은 필요한 운동을 알차게 한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훈련한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다. 그저 훈련에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훈련을 찾아서 한다. 그런 점이 대표팀에 꾸준히 있는 선배들의 비결 같다. 나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특히 춘천시청 헤리 언니와 삼성에스원 김소희 언니가 정말 잘해줬다.”라고 전했다.

졸업을 앞둔 이예지는 경희대 진학을 결정했다. 대학에 가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밤늦게 놀아보기”라며 씩긋 미소를 짓는다. 여느 여고생과 다를 게 없었다. 이예지가 내년 46, 49kg 통합급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을지, 아시아 무대에서 설욕전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자신 있다!” 『태권도』 9·10월의 유망주로 손색없는 한마디였다. ●

제100회 전국 체전서 우승을 차지한 이예지(오른쪽)의 결승전 경기 장면이다.



이예지가 유스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맹탕’ 준결승·결승전 속출, 제도 변화로 모순점 극복해야

문경 = 글·사진 박상욱 WTN 기자

제28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가 지난 9월 19~26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엔, 총 2,439명(중학부·고교부·대학부·일반부·군인부)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었다.

지난해 별도로 열렸던 군인부가 이번 대회부터 함께 열려 뜨거운 열기를 더하며 관중석 분위기를 압도했다. 군인부에선, 해군이 126점(금 3, 은 1, 동 3개)을 얻어 특수전사령부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국방부장관기를 품었다. 특수전사령부는 해군과 같은 메달을 획득했지만 종합 점수(106점)에서 뒤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상작전사령부가 92점(금 1, 은 3, 동 2개)으로 종합 3위에 입상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남자 중학부에선, 울산중학교(금 1, 은 1, 동 3개)·신관중학교(금 1, 은 1개)·천안 성정중학교(금 1, 은 1개)가 각각 1~3위에 올랐다. 여자 중학부에선, 울산동평중학교가 금 2개로 국방부장관기를 가져갔고, 광주체육중학교(금 1, 은 1개)와 정각중학교(금 1, 은 1개)가 각각 그 뒤를 따랐다.

남자 고교부에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가 금 2, 은 1, 동 1개를 획득하며 5년 만에 메이저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금정고등학교(금 1개)가 준우승, 전북체육고등학교(금 1개)가 3위에 각기 입상했다.

여자 고교부는 강화여자고등학교(금 3, 은 1, 동 1개)의 독무대였다. 강화여고는 발군의 기량을 선보인 황예빈(-46kg급 금), 이승민(-53



제28회 국방부장관기 단체 대항 대회 남자 고교부 -54kg급 결승전 경기에서, 김종명(오른쪽)이 중요 직전 승부를 결정짓는 오른발 돌려차기 상단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kg급 금), 김나희(-67kg급 금) 등의 활약에 힘입어 정상에 올랐다. 성안고등학교(금 1, 동 1개)가 준우승, 백석고등학교(금 1개)가 3위에 각각 이름을 내밀었다.

대학부에선, 용인대학교(금 3, 은 1, 동 1개)와 한국체육대학교(금 4, 동 3개)가 각각 남녀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2, 3위는 경희대학교(금 1, 은 2개)와 상명대학교(금 1, 은 1, 동 2개)에 각기 돌아갔다. 여대부에선, 용인대와 막판까지 경합한 경희대(금 3, 동 2개)가 2위에 자리했고, 조선대학교(금 1, 은 2, 동 1개)가 3위에 입상했다.

남자 일반부에선, 한국가스공사가 금 3, 은 1, 동 1개로 국방부장관기를 휘날렸다. 김포시청(금 2, 동 2개)과 국군체육부대(은 1, 동 3개)가 그 뒤를 이었다. 여자 일반부에선, 성

주군청이 금 1, 은 2, 동 2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제시청(금 1, 은 2, 동 1개)과 동래구청(금 1, 은 1)이 각각 2, 3위에 자리했다.

제도 보완 절실

이번 대회 고교부·대학부·일반부 1~3위 입상자에겐, 2019년도 경찰청장기 전국 우수 선수 선발 대회 출전권이 부여됐다. 우수 선수 선발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으로 가는 단 하나의 마지막 관문이다. 국방부장관기 대회 참가 목적이 우수 선수 대회 출전 티켓을 따내려는 데 맞춰져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뚜껑을 여니 예상이 빗나갔다. 더 집중하고 지닌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만큼 출전 티켓을 부여하는 데서 적지 않은 폐단이 드러났다는 게 이번 대회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미 우수 선수 대회 출전권을 확보했거나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엿보였는데, 우수 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는 고교부·대학부·일반부의 경기력은 기대했던 만큼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기력이 크게 떨어져 큰 실망을 받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모 지도자는 “우수 대회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이 대회에 출전했

다. 4강 진출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부상 방지 차원에서 선수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당연히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대회 우승자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의견부터 1~3위 입상자에게 똑같은 특혜보다 차등 있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은 현행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요구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 최창신 KTA 회장은 “태권도의 가치와 정신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평화 시대의 도래에 앞장서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열을 아로새기며 닦을 올린 이 대회는 30년 가까운 연륜을 쌓으며 태권도가 이 나라에 평화 정착의 기수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대회 의미를 강조했다.

이방현 국군체육부대 부대장도 민간·군이 함께한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갖고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경기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의 성취는 물론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선수 여러분의 패기 넘치고 역동적 경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란히 입상한 김혜원(오른쪽)-종명 남매.

국가대표 최종전에 이름을 올린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불참함으로써, 경기력 저하는 물론 메이저 대회로서 권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었다.

대회 우승이 아닌 우수 대회 출전권 획득

을 목표로 세워 8강전까지는 그런대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지만, 준결승전부터는 ‘맹탕’ 경기가 대다수였다.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은 “중학부는 그나마 메달 획득과 종합 우승을 향한 각 팀

김혜원-종명 남매, 나란히 은-금 획득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번 대회에서, 남매가 나란히 메달을 획득해 눈길을 모았다. 주인공은 대전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혜원(3학년)-종명(1학년) 남매다. 두 남매는 사이좋게 입상자 단상에 올랐다. 우수 선수 선발 대회 출전권 획득보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남매의 파이팅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생이 더 높은 곳에 오라며 남고부 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김종명은 남고부 -54kg급에 출전해 선배들

기세를 꺾는 화력을 뿜어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겁 없는 김종명은 “이번 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다.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올려 무척 기쁘다. 체력과 유연성을 기르고 연결 동작을 가다듬어 나날이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언니는 여고부 -57kg급에서 은메달을 수확해 긴 슬럼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받아 온 김혜원은 “그동안 정

신적으로 힘들었다. 금메달을 목표로 많은 훈련량을 쌓았다. 코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슬럼프를) 극복하려 노력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나와 탈출의 계기가 된 것 같다.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남매는 “응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부모님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 드린 듯싶어 뿌듯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4연패 노리던 경기 꺾고 종합 우승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전국 체육 대회 효시는 192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 야구 대회다. 올해 제100회 대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이유는 최초 개최지로서 '100회'의 상징성을 기리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서울, 15년 만에 종합우승

'안방'의 이점을 살린 서울특별시가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노렸던 경기도를 꺾고 15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우승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대회 3일째까지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좌불안석이었다. 서울의 저력은 후반부에 폭발했다. ▲ 남자 대학부 -74kg급 김지석 ▲ 여자 대학부 -46kg

급 김정은, -53kg급 임금별, -57kg급 김유진, +73kg급 윤도희 ▲ 여자 일반부 -67kg급 서소영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2,142점(금 6, 은 8, 동 8개)로 종합 1위를 했다. 최진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임원-지도자-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15년 만에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금메달 8개를 획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개최점수 부여 제도의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울에 밀려 1,968점으로 종합 2위에 만족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는 가장 많은 메달(금 8개, 은 8개, 동 6개)을 수확했다. 여자 고교부 경량급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상북도가 1,383점(금 3, 은 4, 동 11개)으

로 3위에 자리했다.

군계일학 우수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일반부 -54kg급 배준서(인천), -68kg급 이대훈(대전), -74kg급 김석배(울산), -87kg급 조철호(강원)를 비롯해 여자 일반부 -49kg급 심재영, -57kg급 이아름(이상 경기), -73kg급 오혜리, +73kg급 안새봄(이상 강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58kg급 결승전에서, 김태훈은 2019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표 정찬호(인천)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3회전 종료 전 원발 돌려차기로 결승점을 뚫으며 금

종합 1~3위를 차지한 서울특별시-경기도-경상북도가 나란히 단상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맨 왼쪽은 최창신 KTA 회장.



메달을 차지한 김태훈은 2011년 첫 우승 이후 통산 여덟 번째 정상을 밟았다.

‘충남의 자랑’ 장준은 세계태권도연맹 올림픽 랭킹 -58kg급 1위다웠다. 결승전에서, 박주연(부산)을 맞아 머리와 몸통 공격을 매끄럽게 성공시키며 3년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인교돈(대구)도 남자 일반부 +87kg급에서 1위를 해 5연속 금메달을 일궜다.

여자 고등부 -46kg급 최강자 이예지(경북)는 이번을 허용하지 않았다. 상대 선수와 비교도 안 되는 월등한 기량으로 점수 차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이예지는 폭발적 득점력을 뽐내며 2년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이예지는 “우수 선수 선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출전권을 확보해 내년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창단한 충남도청팀은 6명이 출전하며 금을 노렸으나 무산됐다. 충남도청은 비록 금을 캐내지는 못했어도, 조희은과 윤현승이 각각 동메달을 따 충남 종합 순위에 한몫을 보냈다.

대회 운영과 진행

올해 체전에서는 ‘보조 심판(TA: Technical Assistant)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한 조에 5명 심판이 배정됐다. 보조 심판은 ▲ 경기 중 전광판을 주시하면서 득점·벌칙·시간이 정확히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주심에게 통보하고 ▲ 기록원과 긴밀히 업무 연계를 하면서 주심에게 경기 ‘시작’과 ‘그만’을 알리며 ▲ 모든 득점·벌칙·비디오 판독 결과를 보조 심판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보조 심판 제도를 운영해 경기장에 안전감이 있었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KTA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자 일반부 -73kg 준결승전에서, 신현선(서울·오른쪽)과 김신비(인천)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판독위원회는 고생을 많이 했다. 경기가 네 개 코트에서 열렸는데,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만 위촉되어 피로감을 토로했다. 편하게 휴식하면서 교대로 영상 판독을 해야 하는데, 위촉된 인원이 적다 보니 ‘과부하’가 생겼다. KTA는 영상판독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인원을 2명 더 위촉할 계획이다. 전국 체전에서 처음 사용한 대도 전자호구는 ‘유령 득점’ 등 큰 문제는 없었지만 부심 채점기 오류로 주먹 득점 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전국 체전이 열린 고려대 화정체육관의 비좁은 주차장과 편의시설은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체육회를 통해 체육관 밖에 차려진 간이 식당은 가격(한 끼 7,000원)에 비해 음식이 불품없어 원성을 샀다.

친자매 금메달리스트 강보라·미르

이번 전국 체육 대회에서, 여자 고교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보라(성주여고 3년)-미르(성주여고 1년) 친자매가 눈길을 모았다. 언니 강보라는 -53kg급에서, 동생 강미르는 -49kg급에서 각각 월등한 기량으로 정상

에 올랐다. 특히 강미르는 결승전까지 149점을 뽑아 차세대 유망주로서 면모를 톡톡히 뽐냈다. 경북이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한 두 자매는 금메달 획득 비결에 대해 “할머니와 부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활짝 웃었다.

강보라는 “3년 전 동생과 함께 소년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이번 전국 체전에서도 같이 정상에 오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강미르도 “한 채급 올려 참가해서 힘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소년 체전 4년 연속 우승에 이어 전국 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무척 기쁘다. 고교 1학년이지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자매가 함께 태권도 선수 활동을 하는 데 대해, 강보라는 “같은 종목에서 선수로 동생과 함께 활동하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많고, 슬럼프가 와도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북 성주에서 태권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아버지 강호동 감독은 “두 딸 모두 궤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태권도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무도 특채’ 안새봄-김빛나, 환하게 미소 짓다!

촬영 = 글·사진 류호경

별들의 전쟁이 끝났다. ‘왕중왕’을 뽑는 무대였다. 한 해 최고 선수를 가리는 우수 선수 선발 대회가 올해도 마침표를 찍었다. 태극마크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다.

1963년 신설된 이래 5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의 걸작인 이 대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KTA가 경찰청과 손을 맞잡고 ‘경찰공무원 특채’를 내걸었다. 대회 명칭도 ‘경찰청장기’로 새롭게 단장했다. 선수, 지도자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며 기뻐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장기가 이런 권위 있는 대회와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 체급 우수자 중 6명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많은 종목 중 태권도 선수 채용 인원이 많은 이유는 국민과 경찰이 태권도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최창신 KTA 회장 역시 “경찰청과 손을 마주 잡고 개최하는 역사적 대회다. 경찰청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대회가 뜻깊고 훌륭한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개회식에선, 최영길 KTA 고문의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 최 고문은 청소년 국가대표 손태환(전주 영생고등학교), 남민서(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등 유망주 16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 밖에도 이춘우 단장이 이끄는 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의 멋들어진 시범을 시작으로, 우수 선수 선발 대회 막이 올랐다.



여자 -73kg급 정상에 오르며 특채 실기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김빛나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새봄-김빛나, 경찰청장기 ‘특채 1호’

경찰청장기 수혜자는 안새봄(춘천시청)과 김빛나(인천광역시 동구청)였다. 둘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며 경찰 특별 채용에 지원했다. 둘은 각각 1위를 차지해 실기 점수에서 만점을 획득하면서 곧바로 최종 면접으로 가는 혜택을 누렸다. 사실상 도복을 벗고 경찰 제복을 입게 됐다.

여자 +73kg급 결승전에서, 안새봄은 김효정

(안산시청)과 맞붙었다. 쉽지 않은 결승전이였다. 몇 번이고 발을 뺐었지만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다. 안새봄은 작전을 변경했다. 장기인 주먹 공격으로 득점 활로를 뚫었다. 결국 안새봄은 6:2로 김효정을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이 결정되자, 안새봄은 코트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소속 팀 엄광흠 춘천시청 코치와 고교 스승인 염관우 KTA 이사(강화군청 감독)도 기쁨을 함께했다. 우승 소감으로, 안새봄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일들도 많았다. 이런 목표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 아쉽지만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훌훌 털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빛나 역시 어려운 결승전을 치렀다. 신현선(서울시청)과 3회전까지 접전을 벌였다. 안갯속 승부였다. 그러나 김빛나는 내려찍기로 싸기를 박으며 여자 -73kg급 금메달을 목

태권도 선수 출신인 이선희 경사와 심혜영 경장이 무도 특채 지원자로 우승한 안새봄-김빛나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이선희 경사, 안새봄, 김빛나, 심혜영 경장.



에 걸었고, 동료들의 열띤 축하를 받으며 마지막 시상대에 올랐다. 김빛나는 “대회 전까지 부상도 잦았다. 성적도 좋지 않아서 걱정도 많이 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쿠데타 일으킨 고교생

예상대로 고교생들의 반란도 일어났다. 대학과 일반부 선배들과 맞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력이 수두룩한 선배들 앞에서 겁이 없었다. 인상 깊었던 ‘고교 5인방’이었다. 남자 -54kg급에 출전한 송태량(홍성고등학교 3년)이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송태량은 올해 유독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다. 고교 무대에서 2, 3위를 맴돌며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에선 달랐다. 결승전에서, 송태량은 지난 9월 국방부장관기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김중명(대전체육고등학교)에게 역전승을 거둬 그 의미를 더했다. 3회전에서만 오른쪽 돌려차기 타이밍을 잡아 14득점을 올려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라이징 스타’ 진호준(안중고등학교 2년)도 대학 선배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남자 -63kg급 패권을 거머쥐었다. 진호준은 준결승전에서 형인혁(동아대학교)을, 결승전에서 2019 나폴리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김태용(경희대학교)을 각각 돌려세우며 유망주 진면목을 톡톡히 뽐냈다.

여자부에서도 ‘고교 우등생’이 탄생했다. 여자 -46kg급에 출전한 황예빈(강화여자고등학교 2년)은 준결승전에서 김수림(성주군청)을, 결승전에서 이 체급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강미르(성주여자고등학교)를 체력으로 각기 무너뜨리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고교 스타’ 강보라 역시 무난하게 우수 선수

선발 대회를 통과했다. 준결승전에서 나폴리 유니버시아드 대표 조혜진(영천시청)을 꺾은 강보라는 결승전에서는 화려한 머리 공격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점수 차 승을 거뒀다. 강

에 따르면, 남자 선수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대회 특성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KTA가 승인한 전국 규모



남자 -54kg급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한 송태량(홍성고등학교·오른쪽)의 결승전 경기 모습이다.

보라는 우승 직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량급 기대주인 송다빈(효정고등학교 3년)도 여자 -67kg급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송다빈은 준결승전에서 한현정(용인대학교)을, 결승전에서 장유진(한국가스공사)을 각각 격파하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티켓을 확보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고교 5인방의 돌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찰청장기 특채 확대하려면...

기대만큼이나 아쉬움도 컸다. 당초 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6명을 특별 채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과물은 달랐다. 안새봄과 김빛나를 제외하고 특채 지원자 중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부의 경우 8강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었다. 이번 경찰청 공고

대회 입상자들이 출전할 뿐만 아니라, 올해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까지 폐지되면서, 대회 열기가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병역 필 조건 때문에 아예 지원하지 못한 선수도 수두룩했다. 이렇다 보니 이 조건을 갖췄더라도 우승을 차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회 현장에 파견된 경찰청 이선희 경사(2000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와 심혜영 경장(전 플라이급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었다. 이 경사와 심 경장은 대회 넷째 날까지 특채 지원자가 나오지 않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경사는 “특채 지원자가 많이 없었던 해도, 남자는 병역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은 경찰공무원 임용 후 병역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병역을 필하지 않아도 돼 특채 지원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배려’와 ‘화합’ 이 살아 숨 쉬는 CBTA, 부활을 노래한다

청주 = 글 최규섭 사진 최규섭, CBTA 제공

공자가 주공을 모신 태묘에서 예를 올리게 됐다. 예를 행하는 절차를 하나하나 태묘 관리인에게 묻고 그에 따랐다. 공자가 누군가? 당대에 그 누구보다 예에 밝다고 이름이 드 높은 공자답지 않은 모습이였다. 그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예라면 으뜸으로 알려진 분이 왜 저러지? 예를 전혀 모르는 듯싶는데.” 수행하던 제자들은 속상했다. 마뜩찮은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스승에게 어쨌었다. “예에 통달하신 분이 어찌 저런 비난을 자초하시는지요?” 공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그것이 바로 예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 안다고 관리인을 무시하면 그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가 과연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 예의 실체를 꿰뚫고 행한 공자의 참모습이 엿보이는 일화다. 신분의 귀천과 지식의 다소를 떠나 맡은 직분을 존중해 줌으로써 소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은 거룩하게까지 느껴진다. 세상과 인간을 진심으로 대하고 도와주거나 보살피려 주려고 마음을 쓴 성현의 정신과 자세가 배어 나온다.

‘배려’와 ‘화합’, 이적(異蹟)을 창출

충청북도태권도협회(CBTA·회장 성정환)를 상징하는 두 핵심어가 있다. ‘배려’와 ‘화합’이다. 거죽은 다르나, 내리(內裏)는 같다. 그 근저엔, 공통적으로 사랑이 흐른다. 서로서로 감싸 안고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애정을 공통 요소로 한줄기를 이룬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이성에 앞서 감동적 요소인 정으로 어우러진 일맥이다.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



성정환 충청북도태권도협회 회장.

를 자아내는 안식처, 곧 CBTA다. 하나가 된 충청북도 태권도인의 동질감이 짙게 서린 교류의 장(場)이자 쉼터다. 갈등과 반목이 틈새를 노릴 수 없는 순백의 공동체다.

허사(虛辭)가 아니다. 단연코 허울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현상이 입증한다. CBTA는 ‘청정 지역’이다. 58년의 CBTA 역사에서, 진정·고소고발 등 잡음이 전혀 없다. 도태가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다. 질서와 시기가 난무하는 태권도계 풍토에선, 선뜻 믿기 힘든 기이(?)한 기록이자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이상향을 꿈꾸는 CBTA의 방향성은 홈페이지(www.cbtkd.

kr)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신명 나는 태권도협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성정환 회장의 인사말에서, CBTA가 얼마나 배려와 화합을 중시하는지 쉽게 읽힌다.

CBTA의 철학은 성 회장의 소신에서도 묻어 나온다. 성 회장의 소신은 ‘가족론’으로 압축된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초등학교 선수 육성에 열정을 불태운 지도자답게 ‘양육론’이 바탕을 이룬 신념이었다.

“가족을 사랑하듯 회원을 보살피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 어린 선수를 돌보는

심정으로, 회원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해 왔다. 서로 돕고 보살피며 정겹게 어우러질 때, 그 총화에서 비롯된 힘은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58년의 숨결과 함께 회장 추대 전통 쌓아

CBTA는 1961년 출범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와 같은 연륜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켜켜이 쌓인 전통은 오늘날의 CBTA를 빛어냈다. 세월의 풍파마저도 비껴간 가장 빛나는 전통 계승은 용화가 빛은 회장 선출이다. 회장 선출 선거 규정은 있을지라도, 추대와 지명을 통해 CBTA를 이끌어 갈 수장을 뽑아 왔다. 치열한 각축이 벌어짐으로써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상처를 줄 염려가 있는 선거를 피하려는 배려와 화합에서 우러나온 미풍(美風)이었다.

위기가 닥칠 뻔했다. 3년 전,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되며, 회장 선거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풍도 미풍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성 회장이 통합 수장에 올랐다. 회장 선거에 나선 모든 선거인이 한마음으로 성 회장을 지지했다. 선거 형식을 빈 추대였다. 가족 같은 애정을 바탕으로 화기애애한 CBTA엔, '시샘'과 '미움'이 빌붙을 자리란 없었는지 모른다.

이로써 CBTA는 대대로 이어져 온 뿌리 깊은 회장 계승 양식을 온전히 지켰다. 정익진 초대 회장부터 조기선(2대)→ 정갑순(3대)→ 박석암(4대)→ 신원근(5대)→ 전종윤(6~12대)→ 정만순(13~14대)→ 성정환(15~16대) 현 회장까지 모두가 티끌 한 점 일으키지 않고 수장에 올랐다.

하나의 관습처럼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온 이 같은 전통은 계속 언급하였듯 배려와

화합의 정신이 기저에 깔린 데에서 세워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CBTA를 지탱하는 두 지주인 배려와 화합은 언제 어떻게 형성됐을까? 궁금증은 곧 풀렸다. 성 회장은 물론 자리를 함께하고 있던 지민규 상근 부회장이 한목소리로 속 시원하게 처방전을 써 줬기 때문이다.

“정만순 전 회장님의 가르침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텄으며 꽃이 폈다. '남을 배려하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분의 일깨움이 없었더라면, 이곳 태권도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배려와 화합의 마음가짐은 싹이 트지도 않았을지, 또 언제 사그라졌을지 모른다.”

성 회장과 지 부회장은 약방문을 계속 써 내려갔다. 정 전 회장을 향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처방이었다.

“정 전 회장님은 늘 '한 조직체가 튼실하게 커 가기 위해선, 영양분으로 배려와 화합이 필요하다. 남을 살뜰하게 아끼고 정답게 어울리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고 강조하십니다. 조직 생활뿐 아니다.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무의식적 상태에서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초심을 잃지 마라.'고 깨우쳐 주시곤 한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될 수밖에 없다.”

2019년도 CBTA 지도자 체육 대회에서, 스승 정만순 전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제자 성정환 회장(그 왼쪽 옆)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 전 회장과 성 회장은 사제지간이다. 그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정이 각별하다. 스승은 사랑하고, 제자는 흠모한다. 그 애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회장직을 둘러싼 미담이다.

2014년 2월, 정 전 회장은 국기원장으로 영입됐다. 세계 태권도 총본산의 수장으로 가게 됐으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선뜻 국기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충청북도 태권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정 전 회장의 눈엔 CBTA가 어른거렸다.

반민하던 정 전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제자인 성 회장이 떠오르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마음을 굳혔다. 제자를 부른 스승은 간단히 한마디만 했다. “회장직을 맡아 더욱 힘을 내 봉사하라.” 제자도 즉답했다. “알겠습니다.” 스승이 회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줄곧 부회장으로 보필하던 제자는 그날부터 CBTA를 이끌어 오고 있다.

훈련 체제 재건으로 힘차게 부활의 날갯짓

이처럼 정만순 전 회장은 충청북도 태권도인의 가슴속에 태두로 자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이 불사른 일생이 이 지역 태권도의 영욕

에 배어 있음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충북 태권도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에서 물어 나온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충북 태권도는 넘보기 힘든 아성을 쌓았다. 당대를 주름잡는 빼어난 선수를 술하게 배출하며 '한국 태권도의 중핵'으로 성가를 드높였다. 똑같이 세계 선수권 2연패(1983 코펜하겐 대회~1985 서울 대회)에 빛나는 한재구와 이동준을 위시해 1977 시카고 세계 선수권 챔프 여성기와 1988 서울 올림픽 금지용석 등 이제는 전설이 된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잇달아 나온 시기도 이 무렵이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지민규 상근 부회장이 그때를 되짚었다. 수궁이 가는 설명과 분석이었다.

“정 전 회장님이 틀을 잡은 훈련 체제에서 비롯된 결실이었다고 본다. 지역과 학교를 떠나 모든 선수가 한곳에 모여 다 같이 훈련했다. 정 전 회장님이 청주에서 운영하시던 청도관이 그곳으로,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하며 기량을 갈고닦았던 충북 태권도의 보금자리였다. 자연스럽게 통일된 지도 방식과 훈련 방법이 운용됨으로써 충실한 훈련량을 쌓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다. 여건이 갖춰지면서,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술 향상을 꾀했다. 충북 태권도가 활짝 꽃피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꽃이 피면 지듯, 영광의 나날만 있을 리 없었다. 역풍이 불어왔다. 학생의 합숙 훈련을 금지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뒷서리를 맞았다. 침체의 골은 깊었다. 가뜰이나 약한 도세가 늪을 벗어나려는 발목을 잡았다. 우수 선수가 타 시도로 빠져나갔다. 2016 히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여자 -49kg급) 김소희도 이 지역 체천동중학교 출신이었으나 서울로 등지(서울체육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를 옮겼다. 속이 타긴 해도, 그들을 붙잡을



성정환 회장(오른쪽)과 지민규 상근 부회장은 CBTA의 쌍두마차다.

유인책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속절없이 흘러간 30여 년이었다.

그러나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2016년 5월 국기원장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온 정 전 회장과 성 회장을 중심으로 뿔뿔 뿔쳐 중흥의 길에 나섰다.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해 회생을 노렸다. 통일된 훈련이 절실함을 다시금 깨닫고 그 실현 방안을 찾았다. 여전히 합숙 훈련 금지가 족쇄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통일된 훈련 효용을 올릴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침내 묘방을 구했다. 지도 방식의 공유였다. 지도자끼리 자주 만나 훈련 방법을 토의하고 자신이 개발한 훈련법을 서로 소개하면서, 전성기 때 구현했던 통일된 훈련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었다.

2019년, CBTA는 비로소 반전의 실마리를 풀었다.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종합 우승 3회(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 경희대학교 총장기, 우석대학교 총장기)의 개가를 올린 데 힘입어 부활의 나래를 활짝 폈다. 전국 체육 대회에서도 약진했다. 지난해 제99회 대회 때 14위(금 1, 은 2, 동 5개)에서 올 제100회 대회 때 10위(금 1, 은 3, 동 7개)로 네 걸음 더 나갔다.

‘찰떡궁합’으로 미래를 밝힌다

성정환 회장은 ‘태권도 외길’을 걸어왔다. 우

리 나이 열 살 때 태권도복을 처음 입은 뒤 59년 동안 선수, 지도자, 행정가로서 태권도와 맺은 연을 단 한순간도 끊은 적이 없다. 중고 시절 선수로 활약했고, 1973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태권도장을 세우며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다. 31년간 초등학교(강외·만수·주성) 지도자 생활을 병행하며 전국 대회에서 3회 정상에 섰던 명감독 출신이기도 하다. 1990년대 경기 위원장으로 CBTA에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심판위원장과 부회장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회장으로 재임하며 행정가의 자질도 엿 보이고 있다.

성 회장에겐 짝궁이 존재한다. 지민규 상근 부회장이자. 두 사람이 완벽한 화음을 이뤄 연주하는 멋진 이중주는 CBTA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성 회장은 역시 선수 출신으로 지도자를 거쳐 1988년 CBTA에 들어선 지 상근 부회장과 2000년부터 20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심중을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성 회장은 “스승인 정 전 회장님이 정신적 버팀목이라면, 지 상근 부회장은 흥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지 상근 부회장은 “성 회장님은 구수한 인간미 속에 강한 추진력을 담은 든든한 큰형 같다.”라고 서로를 생각하는 진솔한 마음을 밝혔다.

배려와 화합을 추구하는 CBTA의 장래는 밝다. ‘찰떡궁합’의 두 사람이 빛어내는 이부합주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충북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전 회원이 열망하는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CBTA가 한마음 한 뜻의 ‘열린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성정환 회장-지민규 상근 부회장이 굳게 다지는 마음가짐이다. ㉞

글 서완석·최규섭 사진 KTA DB, 태권도신문, 태권도진흥재단, 국군체육부대 제공



지난 9월 4일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린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맨 가운데)은 영광의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축하했다. 노 차관 오른쪽 두 번째로부터 차례대로 최영길 KTA 고문, 이종관 ATU 품새위원장, 김건형 KTA 상임심판이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성공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 펼쳐져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려

태권도여, 영원하여라! 전 세계 으뜸 무도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광영을 누릴 패자(霸者)로서 자리매김하리라.

2020 도쿄(東京)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성공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4일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세계태권도연맹(WT)·국기원·태권도진흥재단(TPF)·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기념 행사는 2020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선전과 화합을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이 참석

해 한결 고조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및 황인홍 무주 군수를 비롯해 최창신 KTA 회장, 홍일화 국기원 이사장, 이상욱 TPF 이사장, 이대순 TPF 명예 이사장,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이상철 미국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프라케시 슌서 라나 네팔태권도협회(NTA) 회장 등 400여 명이 자리를 같이해 ‘태권도의 날’을 기렸다.

KTA 국가대표 시범공연단의 힘과 기가 어우

2019 태권도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 명단

이름	소속
최영길	KTA 고문
이종관	아시아태권도연맹 품새위원장
김중욱	전라남도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김건형	KTA 상임심판
김호석	온두라스 정부 파견 사범
전슬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주장
유영준	미국 동남부태권도연맹 회장
프라케시 슌서 라나	네팔태권도협회 회장
손성도	KTA 도장관리위원장
김중수	KTA 국가대표 시범공연단 코치
서대원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실무 이사
이용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러진 환상적 무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기념식은 노태강 차관의 기념사 낭독 후 최창신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의 축사와 태권도에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영상으로 상영돼 이채를 띠었다.

태권도 유공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에선, 태권도 세계화와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총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영길 KTA 고문을 비롯해 이종관 아시아태권도연맹(ATU) 품새위원장과 라나 NTA 회장 등이 수상했다.

1966년 첫 태극 도복을 입고 한일 수교 기념 태권도 교류전에 출전했던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의 최영길 고문은 인재 육성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자신의 호를 딴 ‘지암(志岩) 장학금’을 제정해 열 명(고교생 5명, 중학생 4명, 초등생 1명)의 태권도 유망주에게 각각 100만 원씩(총 1,000만 원)을 증정하는 등 각종 장학금을 전달하며 동량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의 노력 끝에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장년기에 건축업에 종사(서광건설 대표)하면서도 태권도와 맺은 연을 잊지 않은 태권도인이다.

이종관 위원장은 지도자 교육에 평생을 헌신한 대사범이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기원 시범단 단원과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기원 연수원 실기 강사, 육군사관학교 사범 등을 역임했고 2000년 1월 1일 연구부장으로 국기원에 입사했다. 2011년 연수처장으로 국기원에서 정년퇴직하기까지 수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사범을 가르쳤다. 2017~2018년 KTA 겨루기 심판위원장을 거

처 품새 대회본부장을 맡아 공정한 대회 운영에 이바지해 왔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얼굴은 김건형 KTA 상임 심판이다. 이제 우리 나이 서른두 살의 젊은 국제심판으로서 국내외 대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면서도 틈틈이 자기 계발에 힘쓰는 태도를 평가받았다. 특히, 박사 과정(단국대학교)을 밟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책과 영상의 융합이라는 새 양태로, 공인 품새 교본의 전형을 모색한 『따라 말하는 태권도 공인 품새』(발간 예정)를 저작한 창의성과 성실성이 돋보인다.

한편, WT는 2006년 7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1994년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KTA-BTF, 상호 교류 MOU 체결

최창신 회장, 전 세계 연계망 구축 위해 지구촌 증횡으로 누벼

여섯 번째 발걸음은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서 내디뎠다. 대한민국→중국→대한민국→이탈리아→대한민국→불가리아, 지구촌을 증횡하는 발길이다. 전 세계 태권도 강국과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구하는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의 행보는 거침없다.

한국과 불가리아, 두 나라 태권도가 교류의 손을 맞잡았다. KTA가 외국 협회와 손잡은

KTA, MOU 체결 현황

차례	때	곳	협정 협회
1	2018. 7. 18.	제주	영국태권도협회(BT)
2	2018. 11. 1.	베이징(北京)	중국태권도협회(CTA)
3	2019. 1. 4.	서울	우즈베키스탄태권도협회(UTA)
4	2019. 6. 8.	로마	이탈리아태권도협회(FIT)
5	2019. 7. 4.	춘천	프랑스태권도협회(FFT)
6	2019. 10. 19.	소피아	불가리아태권도연맹(BTF)

여섯 번째 자매결연이다. 이번엔 3개월 15일 만에 개가를 올렸다. 지난 7월 4일 춘천에서 프랑스태권도협회(FFT)와 MOU(양해 각서)를 맺은 바 있다.

지난 10월 19일 최 회장은 슬라비 비네프 불가리아태권도연맹(BTF) 회장과 만나 두 나라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KTA-BTF 간 태권도 협약 체결식서, 최 회장과 비네프 회장은 태권도 전반에 걸쳐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비네프 회장의 자택에서 열린 MOU 체결식엔, KTA 측에서 최 회장과 최재춘 사무총장이, BTF 측에

선 비네프 회장 부부와 박상현 국기원 정부 파견 사범이 각각 참석했다. 통역은 김규리 KTA 경기부 주임이 맡았다.

KTA와 BTF는 먼저 이번 MOU의 목적을 “KTA와 BTF가 국가대표팀, 기술 협정, 해외 전지훈련을 포함하는 태권도와 관련된 교류를 상호 간에 제공함에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 국가대표팀 훈련(모든 연령대 겨루기, 품새, 시범단) 상호 교류 ▲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시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와 트레이너 상호 교류를 추진키로 뜻을 같이했다. 또 ▲ 태권도와 관련된 다른 내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KTA-BTF 간 MOU 체결식이 끝난 뒤, 양측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창신 KTA 회장(맨 가운데)과 최재춘 사무총장(오른쪽 옆)이 KTA를, 슬라비 비네프 회장(왼쪽 두 번째)과 박상현 국기원 정부 파견 사범(왼쪽 옆)이 BTF를 각각 대표해 참석했다. 오른쪽 끝은 비네프 회장의 부인이다.



협력해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KTA는 이번 BTF와 협약을 맺기에 앞서 각국 태권도협회와 다섯 번의 자매결연을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영국(BT:회장 줄리아 뉴턴)과 가장 먼저, 11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CTA:회장 관젠민·管健民)과 두 번째로, 올 1월 4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UTA:회장 아흐마드존 라히모프)과 세 번째로, 6월 8일 로마에서 이탈리아(FIT:회장 안젤로 치토)와 네 번째로, 7월 4일 춘천에서 프랑스(FFT:회장 더니 오드쥐)와 다섯 번째로 각각 MOU를 체결했다(표 참조).

이처럼 잇따른 자매결연으로 탄력을 받은 최 회장은 앞으로도 세계 주요 태권도 강대국과 돈독한 유대 의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협조 체계를 쌓아 태권도의 본바탕을 되찾겠다며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 태권도를 이끌어 가는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최 회장의 전방위 외교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기대된다.

“배움의 장에서 미래 지도자상을 가꾸고 길러라”

최창신 KTA 회장,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에서 열변 토해

“여러분은 태권도계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이다. 자긍심을 갖고 앞장서서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배움의 장에서 열정을 불태워 소양을 쌓기를 바란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미래의 지도자상을 밝혔다. 일선 지도자(관장·사범)를 대상으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역설했다. 한국 태권도의 훗날을 생각하는 최 회장의 충정이 깃든 열변에, KTA가 주관하고 진행한 2019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제5차 과정 서막은 열기에 휩싸여 올라갔다.

지난 10월 26일 오전 11시부터 백석대학교(충청남도 천안시) 백석체육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최 회장은 “지도자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역량을 갈고닦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KTA 수장으로서 일하며 여러 가지를 느꼈다. 오늘 이 자리에선,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운을 댔다. 최 회장은 차츰 열도를 높여 가며 지도자의 본분과 마음가짐 및 자세를 내세웠다. 최 회장은 “무도인은 무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마땅히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실한 수련으로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최 회장은 ‘나 자신부터’를 강조했다. “나 자신부터 제대로 된 태권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나라의 운명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자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쳐야 할 관행의 하나로 품단 전환 제도를 예시하고 그 폐해를 열거한 뒤 “과거의 잘못된 틀에서 나부터라도 벗어나



고 그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자.”라고 당부한 최 회장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이해하라. 그때 서로가 잘 되는 길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약 1시간의 특강을 마무리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올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과정을 마친 지도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태권도 지도자로서 체계적·과학적 지도 방법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던 이번 교육 이수자는 4개 부문 54명이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총 5회 진행된 교육 과정에 4회 이상 참석한 교육생이 수료의 영광을 안았다.

미래를 개척하려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를 대상으로 2017년 첫선을 보인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다. 지난해까지 두 개(성인 활성화부·사범부) 과정에

교육 수료자(총 54명) 명단

부문	수료자
도장 성장부(15명)	권오천 김광식 김대연 김용수 김중훈 박세근 박재복 신현식 윤길남 송재삼 윤혜성 이소윤 이승호 이철중 정승원
사범부(20명)	김규봉 김동률 김동우 김예림 김홍순 남성재 배주원 신민경 오연중 유제욱 이경우 이창준 이철호 임우성 장동수 정혜선 진서연 최진선 황윤희 황주희
성인 활성화부(10명)	김도영 김완철 성민석 양지훈 이태호 장근중 주완철 홍영호 황은주 황태현
지도자부(9명)	김재규 김현지 모상현 송지원 이선영 이슬아 이재원 장현우 최진영

서 올해엔 도장 성장부와 지도자부가 신설돼 네 개로 늘어날 만큼 일선 지도자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화합 풍토 씨앗 뿌려 2020 올림픽 대풍 이룬다

새로 구성된 경향위 첫 회의, 도쿄 올림픽 선수 선발 방식 결정

갈등의 골을 헤치고 나가 화합의 새 지평을 연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2020 도쿄(東京) 올림픽 대풍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 얼굴로 겨루기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한국 태권도계에 일었던 반목의 바람을 잠재우고 화목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고대하며 내놓은 진용이다.

지난 10월 1일 그 새 출발의 장이 KTA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창신 회장은 각 위원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 기풍 진작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겨루기·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 명단

구분	겨루기	품새
위원장	임종남	김인기
부위원장	서정욱 여준기 박선영	이송학 설성란 차명환
위원	양대승 박은석 최돈민 이원호 정을진 유명원 서덕수 강창모 차진영	임병영 이정규 오경환 안창범 이재덕 권기업 이동원 안효열 남기식

지난 9월 27일 짜인 새 경향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수여식에서, 최 회장은 ‘일신(一新)’을 화두로 삼아 경향위원들을 격려했다. 최 회장은 “‘대학’에 나오는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구일신 일일신 우일신.]’는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닦달하는 마음가짐으로, ‘종가(宗家)’의 태권도계에 새 풍토를 조성키 위해 헌신하자.”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올 초 구성됐던 겨루기 경향위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 과정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개편 압박에 부딪혀 표류해 왔다. 경향위 자체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올림픽에서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원 사퇴의 용단을 내림으로써, 태권도계가 다시 화합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희망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엔 새로 구성된 겨루기 경향위도 그 뜻을 이어받아 도쿄 올림픽을 향한 희망의 뱃고동을 울리자.”라고 강조했다.

이 뜻을 새기며 이어진 첫 회의서, 경향위원장 임종남은 ▲ 도쿄 올림픽 자동 출전권 복수 획득 체급 선수 선발 방식과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 방법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각 체급 올림픽 랭킹 5위 이내 선수에게 주어지는 자동 출전권이 복수로 존재하는 체급에 대해선, 내년 1월 3전 2선승제의 선발전을 열어 티켓의 주인공을 가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남 위원장은 “단판 승부 방식 의견도 나왔다. 그렇지만 수년간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의 기량을 단판으로 가리기엔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주를 이뤄 삼판양승제를 시행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위 랭커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주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날(10월 1일) 기준으로, 선발전이 열리는 체급은 남자 -58kg급과 여자 -49kg급이다. 남자 -58kg급은 1위 장준(한국체육대학교·459.71점·이하 10월 3일 현재)과 2위 김태훈(수원시청·431.63점) 간에, 여자 -49kg급은 2위 심재영(고양시청·408.45점)과 김소희(한국가스공사·371.27점) 간에 각각 티켓 쟁탈전이 펼쳐



진다.

여자 -67kg급은 가능성이 있다. 월드 그랑프리 3차 소피아 대회(10월 18~20일)와 파이널 모스크바 대회(12월 6~7일)가 끝난 뒤, 3위 오헤리(춘천시청·366.66점)와 7위 김잔디(삼성 에스원·303.63점)가 랭킹 5위 안에 들면, 티켓 각축전이 벌어진다.

‘태극 도령’과 ‘태극 남자’를 이끌고 2020 올림픽 무대에 나갈 지도자는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영입기로 했다. 경향위는 이를 위해 경향위원 5명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현 코칭스태프(8명·의무 트레이너 & 전력분석관 포함)는 훈련의 일관성·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까지 국가대표팀을 조련한다.

한편 KTA는 지난 9월 30일 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해 발표했다(표 참조).

전국 체전 태권도 초창기 빛낸 원로들, 한자리에 모였다

그날 활약상 되돌아보며 정담 나누는 화합의 공간

옛이야기를 매개로 한 소통의 자리는 정겨웠다. 그때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나누는 정담 속에선, 화합의 기운이 샘솟았다. 하두는 ‘전국 체육 대회’였다.

반세기 이전에, 전국 체전 태권도 초창기 무대를 빛냈던, 이제는 큰 어른으로 자리매김한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월을 거슬



최창신 KTA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전국 체육 대회 태권도 초창기 무대를 누뒀던 원로들은 그날을 추억하는 정담을 나누는 오찬 모임을 가졌다. 맨 왼쪽부터 유기대 KTA 고문,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최 회장, 정만순 전 국기원장, 유형환 KTA 회장 특보, 노수상 씨.

러 올라가 그날을 그리는 ‘추억의 강’에선, 화목의 물결이 일었다. 70대 중·후반의 나이가 무색해지는 건강미가 물론 배어 나오는 유쾌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간 정다운 공간이 빛어낸 시간이었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태권도가 전국 체전에 채택됐던 1960년대 초 중반에 활약했던 그들을 초청해 마련한 오찬 모임은 그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명승부가 빛어졌던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며 서로 상대의 활약상을 칭찬했다.

제100회를 맞은 전국 체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그때 그날의 회고담이었다.

이번 전국 체전 나흘째이자 태권도 종목 사흘째인 지난 10월 7일 성북구 성북로 한 일식집에서 열린 이번 오찬 모임엔, 주최자인 최 회장을 비롯해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정만순 전 국기원장, 유기대 KTA 고문(전 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유형환 KTA 회장 특보(전 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 노수상 씨 등 모두 여섯 명의 원로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와 전국 체육대회 첫 인연

이름	시도	첫 출전	개최지	대회 성격 (경기 방식)	성적
이규석	서울특별시(성균관대학교)	제44회(1963년)	전라북도 전주시	정식 종목 (단체전)	일반부 2위
정만순	충청북도	제45회(1964년)	경기도 인천시	정식 종목 (개인전)	일반부 중기 페더급 2위
유기대	전라북도(전주고등학교)	제43회(1962년)	경상북도 대구시	시범 종목 (단체전)	-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	제44회(1963년)	전라북도 전주시	정식 종목 (단체전)	학생부 우승
유형환	전라북도(전주공고)	제46회(1965년)	전라남도 광주시	정식 종목 (개인전)	학생부 중기 밴텀급 우승
노수상 (정부 직할) 부산시(지도관)		제45회(1964년)	경기도 인천시	"	학생부 중기 웰터급 2위

태권도가 전국 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시기는 56년 전 제44회(1963년) 전주 대회였다. 그 전해 제43회(1962년) 대구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전국 체전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두 대회에 모두 전주고등학교 소속으로 출전한 유 고문은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된 전주 체전에서 학생부 우승의 반열에 올랐다(표 참조). 곧, 전국 체전 태권도 금메달 1호의 영광을 안았다.

이 회장은 제44회 전주 대회에서, 정 원장과 노 씨는 제45회(1964년) 인천 대회에서, 유 특 보는 제46회(1965년) 광주 대회에서, 각각 유서 깊은 전국 체전과 첫 연을 맺고 활약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기록을 속성으로 하는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TA는 태권도사 편찬에 뜻을 두고 있다. 여러 원로들이 이에 대해 지닌 고견을 언제든지 들려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번 모임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함을 나타낸 원로들은 태권도사 편찬에 공감하면서 “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수집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화답했다.

본가 태권도와 해외 태권도, 포근한 정을 나누다

최창신 회장, 해외 동포 임원·지도자 초청해 격려

고국의 품은 역시 아늑하고 포근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조국의 가을 하늘은 맑고 드넓

었고, 본가의 손님맞이는 정이 넘쳤다. 해외로 나가 태권도를 개척하고 전파하려 애쓴 보람을 만끽한 한때였다.

제100회 서울 전국 체육 대회에서, 정겨운 한순간이 빚어졌다. 최창신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 회장이 이번 전국 체전에 출전한 태권도 관련 해외 동포 선수단 임원·지도자를 초청해 베푼 오찬은 한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 본집의 부모와 시집간 딸이 서로 애뜻해하며 덕담과 정담을 나누듯, 정답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에 자리한 한 중식당에서 열린 이번 오찬엔, 최 회장과 최재춘 KTA 사무총장을 비롯해 9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 임원·지도자가 참석했다. 시종 화기가 넘치는 가운데, 농담을 곁들이며 회포

는 물론 솔직하게 고충까지 털어놓는 시간의 흐름이 계속됐다.

해외에서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쏟는 이들의 노고를 격려한 최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려는 KTA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태권도가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KTA는 이를 타파하려고 열정을 쏟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 길은 재미있는 태권도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KTA는 지난 3월 이미 품새 최강전 무대를 만들어 그 단초를 찾았다. 이 맥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 올해 안에 ▲ 품새 최강전 시즌 II(10월)를 위시해 ▲ 시범 공연 대회 창설(11월) ▲ 관람형 경기인 파워 태권도 프리미어리그 신설(12월) 등 일련의 사업을 펼쳐려 한다. 여러분의 많은 관



최창신 KTA 회장(앞줄 가운데)은 해외 동포 선수단 임원·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베풀고 태권도 개척과 전파에 애쓰는 격려했다. (최 회장 오른쪽 옆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박재문 재광 한인회장 겸 선수단장, 김용철 재중국 KTA 회장, 김요준 재브라질 KTA 회장, 이재현 재미 KTA 회장, 김효준 재필리핀 KOC 회장, 최재춘 KTA 사무총장, 임태호 재호주 선수단 감독, 하중호 재뉴질랜드 선수단 부단장, 김광현 KTA 실장, 권성근 재호주 KTA 회장, 이상순 재스페인 사범이 자리를 함께했다.

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동포 선수단 임원·지도자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이런 자리를 베풀어 줘 감사드린다.”라고 서두를 댈 이들은 “회장님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태권도를 재미있는 무도 스포츠로 만들 수 있지 고민하고 있다.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실천에 옮기고 있다. KTA가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며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록 약 두 시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을망정,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기원한 자리였다.

해외 임원지도자 참석자(9명) 명단(가나다순)

- ▲ 권성근 재호주 KTA 회장 ▲ 김요준 재브라질 KTA 회장 ▲ 김용철 재중국 KTA 회장 ▲ 김효준 재필리핀 KOC 회장 ▲ 박재문 재괌 한인회장 겸 선수단장 ▲ 엄태호 재호주 선수단 감독 ▲ 이상순 재스페인 사범 ▲ 이재현 재미 KTA ▲ 하종호 재뉴질랜드 선수단 부단장

KTA-국군체육부대, '국기 태권도' 융성 위해 손 맞잡아

KTA, 국군체육부대 태권도 대표선수단에 훈련 용품 전달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와 국군체육부대(부대장 이방현)가 우의를 다지는 손을 맞잡았다. '국기(國技) 태권도를 매



지난 9월 19일 열린 국군체육부대 태권도 대표선수단 훈련 용품 전달식에서, 최창신 KTA 회장(왼쪽)과 이방현 국군체육부대 부대장이 우의를 다지는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개체로 해 상호 융화의 발걸음을 함께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1+1=2+α'의 상승효과를 분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뜻깊은 행보다.

KTA와 국군체육부대는 지난 9월 19일 그 우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19 제7회 우한(武漢) 세계 군인 체육 대회(10월 15~28일)에서, 국군체육부대가 '태권도 종가의 위엄을 떨치기를 기원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군체육부대(경상북도 문경시) 부대장실에서 열린, 이번 CISM(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국제군인체육회) 세계 군인 체육 대회에 출전하는 태권도 대표선수단(감독 강동국)에 대한 훈련 용품 전달식은 두 단체의 끈끈한 유대감이 확연히 엿보인 행사였다. 태권도가 세계 으뜸의 무도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두 단체가 한마음 한뜻을 이뤄 나가자고 다짐했다.

최창신 회장은 “KTA와 국군체육부대가 의

미 있는 화합의 첫 단추를 끼었다. 앞으로 상호 긴밀한 체제를 갖춰 협조함으로써 태권도의 찬란한 내일을 열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세계 평화에 헌신하는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며 국군체육부대 태권도 대표선수단이 종가를 대표한다는 마음을 다지며 자긍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방현 부대장은 “KTA 산하에 수많은 팀이 있을 텐데, 이렇게 국군체육부대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 줘 감사드린다. ‘국군체육부대가 태권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부대장은 더불어 “이번 세계 군인 체육 대회에서, 태권도가 ‘호자 종목’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리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KTA는 이번 CISM 대회에 출전하는 국

군체육부대 태권도 선수단(16명: 임원 및 지도자 5명, 선수 11명)에 아디다스의 협찬을 받아 ▲ 트레이닝복 ▲ 맨투맨 티셔츠 ▲ 운동화 ▲ 백팩 ▲ 도복·띠 등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KTA-시도 협회, '국기의 발전 방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19 시도 회원 단체 통합 교육 워크숍,
9월 24~25일 열려

국기(國技) 태권도의 발전 당위성을 공감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와 각 시도 협회가 국기의 융성을 위해선 하나로 맥이 닿는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한마음을 이룬, 이틀(일수 기준) 동안 상호 연수 방식으로 열린 합동 교육이었다.

KTA가 마련한 2019 시도 회원 단체 통합 교육 워크숍이 지난 9월 24~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열렸다. KTA와 17개 시도 협회에서 모두 50여 명이 참석해 국기의 발전 방향을 찾으려는 열띤 토의를 펼쳤다. KTA에선 최재춘 사무총장을 비롯해 워크숍 진행을 맡은 도장사업부를 주축으로 임직원 10명이, 심사 재수임 단체인 시도 협회에선 등록 도장 및 심사 관련 실무 임직원을 위시한 43명이 각각 참여했다.

본격적 워크숍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최창신 회장은 "왜 이 같은 자리가 마련돼야 했



2019 시도 회원 단체 통합 교육 워크숍 개회식이 끝난 뒤, 최창신 KTA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의 융성을 바라는 한마음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는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전제한 뒤, 통합 연수의 목적을 일일이 열거하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KTA와 시도 협회 간에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 수임 단체 임직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둘째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준수하는 태권도장 등록 업무와 국기원이 정한 심사 수수료 원가 계산 교육을 통한 실무 직원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등록 태권도장 관리와 심사 제도와 관련된 제반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의 질 향상을 꾀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제 발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최우진 도장사업부 주임)됐다. 주

제 발표는 ▲ 도장 지원 사업 개요 및 방향 설명(이종천 도장사업부 부장) ▲ 생활체육 태권도 현황 및 동호인 등록 협조 사항(이동신 "과장) ▲ 2019 하반기 KTA 도장 지원 사업 설명(임묵 " 주임) ▲ 전국 태권도장 등록 실태 및 심사 추천 ID 부여 개선 방향 제언(장승중 " 차장) ▲ 심사 시행 수수료 산출 실무 교육(장승중 " 차장) ▲ (도장 지원 사업 및 생활체육 사업 연계)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방향 모색(이종천 " 부장) 등 업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아울러 단체 임직원 간 교류에 초점을 맞춰 6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한편 시도 단체 임직원들은 이틀 동안 워크숍 일정을 마친 뒤 KTA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며 우애를 다졌다. 이어 KTA 근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석별의 정을 나누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TPF, 태권도 소재 웹툰 제작 지원 나서

웹툰 제작사들과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TPF-이사장 이상욱)은 국내 웹툰 제작사와 태권도 소재 웹툰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3억 원을 지원한다.

TPF는 지난 10월 29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토리컴즈 주식회사(대표 송순규·이진우), (주)투믹스(대표 김성인), (주)유주얼 미디어(대표 김유창) 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PF와 3개 제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웹툰 제작 방향을 공유하고 수준 높은 웹툰 제작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및 평가를 하기로 했다.

제작에 나설 웹툰은 로맨스, 드라마, 스포츠, 액션, 코믹 등의 장르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년 5월까지 연재할 계획이다. TPF는 성과에 따라 향후 캐릭터 상품 개발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추가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웹툰 제작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TPF는 웹툰 제작 지원 외에도, 태권도를 소재로 한 기능성 게임 제작을 지원하는 등 태권도 인구 증대와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PF, 2019 태권도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태권도진흥재단(TPF-이사장 이상욱)은 지난 10월 19일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태권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태권도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



가들의 대안 제시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1세션(좌장: 김도균 경희대 교수)에서는 해외 태권도산업의 현황과 전략 방안이, 제2세션(좌장: 이승필 한국외대 교수)에서는 국내 태권도산업의 문제점과 정책 방안이, 제3세션(좌장: 유의동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에서는 태권도산업 활성화 방안이 각각 발표됐다.

발표는 박천재(조지메이슨대), 고흥재(플로리다주립대), 이선장(계명대) 교수 및 김두한(한국체육대) 박사, 이진재(제미타), 신창섭(태권블록) 대표가 했고, 토론에는 김종현(용인대), 이원재(국민대) 교수 및 강선홍(Vision USA), 문상필(상아기획), 김수민(엠에이글로벌네트) 대표, 이재훈(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합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TPF는 앞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발판 마련을 위해 태권도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학술 행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

이기동 TPF 진흥사업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웹툰 제작사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마친 뒤 제작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권도 전공생의 권리 찾기를 위한 노력

글·사진 지민주(경희대학교)

태권도 전공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권 태권도 단체들에 대한 건의 사항과 미래 직업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경희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등 6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태권도연합회는 지난 9월 27일 용인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태권도 관련 자격증 취득에 있어 전공생의 혜택은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각 대학 학생회 임원 및 일반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태권도학과 전공생들이 토론한 불만

가운데선, 현재 무주 태권도원 소재 국기원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사범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이 제시한 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사범연수 교과과목과 대학교 재학 중 배우는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무주의 불편한 교통수단 및 높은 가격의 숙박비와 연수비가 대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4년제 대학 태권도학과 커리큘럼 가운데 공인품새, 경기구치 및 심판법, 겨루기 등 사범연수 이수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적어도 4년제 대학 태권도학과 전공생만큼은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공생들의 주장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중복되는 교과목 7개를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국기원 연수원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즉, 전공생의 경우 연수수업은 참여하되,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합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앞으로 태권도 미래직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유관 단체가 태권도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재학생의 경우 미래 직업으로 태권도 사범에 국한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권도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인턴십 경험은 재학생에게 미래 직업에 대한 값진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미래를 위해 갑론을박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태권도 전공생들은 태권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전공생이 아닌 일반학생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컸다. 한국대학생태권도연합회는 일반학생 참여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부여할 계획을 밝혔다. 재학생들은 태권도 전공생이라는 긍지를 갖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서라도 이같은 행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직업에 대해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이다.

색다른 운동 ‘번지 플라이’에서 미래 태권도 훈련을 그려 보다

글·사진 정준우(계명대학교)

지난 10월 18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밸런스 페스티벌(Balance Festival)을 찾았다. 페스티벌의 부스는 크게 피트니스(Fitness), 웰니스(Wellness), 영양(Nutrition), 미용·패션(Beauty-Fashion) 네 파트로 나뉘어 있었다. 피트니스 부스에서는 피트니스 장비, 요가/필라테스 기구 등이, 웰니스 부스에서는 스파/마사지, 레저, 명상, 에스테틱, 스트레스관리, 교육프로그램들이 전시되었다. 영양 부스는 건강과 관련된 식품이, 미용·패션 부스에서는 스포츠웨어, 애슬레저룩, 웨어러블 기기, 코스메틱, 바디/헤어케어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장내 3개 스테이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인기 있는 운동을 체험하며 마사지, 테이핑 등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첫날 김은진 강사의 번지 플라이 수업(HIIT Bungee Fitness)에 참가했다. ‘번지 플라이’라는 운동은 유산소, 근력, 코어 안정성, 자세 교정, 재활, 필라테스, 요가 등으로 활용되어 있어 운동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태권도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 강사는 현재 아시아마스터로, 번지플라



이 자격증 교육과 번지운동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이 운동은 탄성코드를 이용하여 공중, 지면,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신개념 운동이다. 또한 피트니스, 요가, 점프, 카дио(심장 강화운동) 프로그램이 바탕이 된 운동이어서 다양한 운동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강사는 출산 후 체중이 30kg 늘어 우울증 증세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비키니 선수생활에 다시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그때, 도전한 것이 이탈리아 번지플라이였다고 한다.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 오던 종목이 한국에 런칭되어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수료한 후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 지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태권도선수에게 번지플라이를 접목시키면 회전 발차기와 기술 발차기, 유산소, 점프, 근력운동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이를 동안 캉구점프, 보수(BOSU) 운동, 티아렉스(TRX)운동, 에어핏(Airfit)운동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생소했지만 즐거

우면서도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어, 잘 접목시킨다면 태권도 선수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성인 태권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태권도의 빠른 세계화는 급격히 변하는 시대 흐름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면 누군가는 전통성이 없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태권도를 해도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다. 비록 방향은 다르지만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밸런스 페스티벌은 태권도 훈련법의 또 다른 세계를 탐색한 것 같아 꽤 기분 좋은 행사였다.

해외 사범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글·사진 김수진(경희대학교)

싱가포르에서 인턴사범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은 해외 사범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해외의 새롭고 낯선 현장의 상황은 평소 가졌던 많은 상상과는 달랐다. 싱가포르 '태성도장'의 지도진(옆쪽 사진 참조)을 통해, 해외사범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해외사범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은 바로 태권도장의 관장이다. 그리고 서로는 운명을 함께하는 '조력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사실상 관장이 유일하기도 하다. 하지만 흔히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자신과는 맞지 않는

지도방법을 가졌거나, 사범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관장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장이 어떤 지도법과 성격의 소유자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과 영주권 등 신분과 직결된 사항들의 결정자인 만큼 더욱더 잘 알아보아야 한다.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SNS 커뮤니티가 발달한 만큼, 꼼꼼히 수소문을 구한 후 근로계약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태권도 지도'에 관련된 것이다. 첫째로 '언어'이다. 티칭에 있어서 언어는 절대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교육인으로서 태권도 지식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가 인성지도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능통한 언어구사는 필수적이다. 둘째로 '커리큘럼'이다. 한국은 지도자 재량으로 교육내용이 정해지지만,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나라는 도장별 명확한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뤄진다. 특별, 나이별로 교육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익히고 교육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바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지도 노하우'다.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접하는 만큼, 해당 나라에 대한 기본적 배경지식과 이를 고려한 노하우 반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의 스킨십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의 경우,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 해외생활은 특히나 신중해야 한다.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자와 언어, 문화적 적응기간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이뤄지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해외 사범 생활을 결정하기 전, 어떤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될까? 태성도장 지도진은 '태권도평화봉사단'과 '해외 인턴'을 적극 추천했다. 방학에 활동하므로 학업에 부

담이 없고, 전임지도자로서 생활을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권도평화봉사단의 경우, 대개 개발도상국으로 사범을 파견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교육을 발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해외에 알리고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존경받을 일이다. 실제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하는 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한 뒤 심사숙고해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태성도장'에서 본 해외사범의 매력

글 김정은(경희대학교)

요즘 해외에도 많은 도장이 생기면서 사범들의 해외진출 기회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태권도 전공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해외 도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해외 사범 생활은 어떤지, 또 다른 나라 태권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전공생들이 많다. 그래서 필자가 인턴생활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태성태권도장'을 통해 다소나마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한다.

우선 싱가포르는 태권도협회에서 지정한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띠 체계이다. 어느 도장을 가도 똑같은 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띠 체계로 인해 만들어진 싱가포르만의 품새가 있는데, 그것을 '파운데

이션(Foundation)이라고 부른다. 이 파운데이션은 품새에 필요한 기초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수련생은 1장이 아닌 파운데이션을 배우고 그걸로 승급 심사를 보게 된다. 심사는 세 달에 한 번 진행되는데, 협회가 직접 도장에 와서 심사를 보고 결과를 알려준다. 이처럼 싱가포르 협회에서 커리큘럼과 심사를 관리한다.

다음은 싱가포르 태성도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태성도장은 지중호, 박희원 두 분 관장님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인 만큼 다른 도장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한국 태권도의 특징과 싱가포르 태권도 특징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회에서 지정한 커리큘럼에 맞추되, 그 안에 한국 태권도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렇기 때

문에 태성도장의 사범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태권도의 모든 종목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겨루기, 시범, 품새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범과 관장 간의 사이가 돈독하여 수업을 서로 공유하고 존중하며, 조언을 통해 함께 성장함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보통 승급심사나 대회에 맞춰서 구성된다. 승급심사를 응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그 안에서 태권도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성도장의 가치관은 예의, 안전 그리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다. 그래서 사범 채용 시 이런 부분들을 매우 고려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된 사범들은 바로 안병호, 김동진, 서동윤, 최대건 사범 등 4명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로 해외사범 생활

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한국에 비해 태권도 사범의 직업적 대우가 좋고, 해외 경험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반면 언어 장벽 때문에 가끔 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해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태성도장의 가장 큰 장점은 태권도의 모든 종목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겨루기, 시범, 품새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그 종목의 선수단이나 시범단 생활을 해야만 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의 종목만 집중적으로 수련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치우친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태성도장에서는 여러 전문 사범들의 가르침으로 해외에서도 태권도의 다양한 매력을 배울 수 있다. ㉞



‘사범 관리’가 아니라 ‘사범이 관리’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태권도장 사범 구인 광고가 올라온다. 구직자(사범)는 광고를 보며 어느 도장이 자기에게 맞을까 생각을 하고 면접을 신청하지만, 한 군데만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말은 즉, “꼭 그 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내 도장에 면접 온 구직자가 꼭 내 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사실이다. 도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구직자는 대개 ‘거기서 거기’인 도장을 선택한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급(또는 월급)이 가장 많은 도장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찾아온 사범에게 관장이 ‘자기복제 재능머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불가능하지만, 만약 꼭 그래야 한다면 관장은 사범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

우선 관계가 맺어지는 면접부터 가치가 공유되는 사범을 만날 수 있도록 광고해야 한다.

내가 스타 관장이라면 많은 사범이 내게 찾아와 경영과 지도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겠지만, 대부분의 관장은 스타가 아니다. 그러므로 광고에서부터 ‘사범 모집’ 이 아니라, ‘겨루기 전문도장 사범 모집’과 같은 특정 키워드로 구인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관장과 사범이 가치와 비전을 같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젠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많은 인사관리 서적과 경영 서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관리자와 직원의 가치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맥도널드 점장은 빨리 햄버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직원은 사골 우리는 정성으로 햄버거를 만들고 있다.”라

는 말과 같다. “햄버거를 사골 우리는 정성으로 세 시간 동안 만들고 있다.”라면 그 직원의 정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를 해고할 것이고, 다른 직원을 구하는 동안의 경영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가치가 공유되는 사범을 만나게 되었다면 (또는 지금 같이 있다면) 그에게 도장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비전은 “네가 관장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줄게.”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관장이 되도록 조력해 주는 것은 은행대출이나 부모의 자금이다. 선은 넘지 말자.

내가 말하는 비전 제시는 도장에서 태권도를 통해 우리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순환을 말하는 것이다. 관장과 사범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을 도장의 비전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사범이 충실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겨루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범을 구직했다면 ‘태권도 겨루기를 통한 행복’을 도장의 비전으로 제시하자. 비전이 공유되었다면 이후 과정은 철저하게 사범이 생각하고 고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겨루기를 통한 비전은 단순한 예일 뿐이다.

관장은 사범에게 “겨루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겨루기를 하며 학부모가 행복해지려면?”처럼 입체적인 각도에서 다양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범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며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걸 대기업에서는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3M에서는 업무시간의 15~20%를 ‘개별연

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이후 관장은 사범의 연구결과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관계적, 이론적, 물질 지원적 환경을 보장(보상)해 준다.

그렇다. 관장은 사범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간섭하는 것보다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흔히 월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금보다는 선물이나 권한 등으로 보상해주길 추천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상제도이지만, 태권도장에서도 이미 활성화되어 검증된 부분이다. 바로 수련시 상점 누적을 통해 승급심사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심사시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관장과 사범은 가치가 공유되는 관계여야 한다. 끈대처럼 책임을 강조하고 의리를 강요해선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다. 가치를 공유하라! 그리고, 인간적 보상과 그에 걸맞은 선물로 사범을 인정하라! 그것이 21세기 급변하는 삶의 중심에 선 젊은 사범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관장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㉞



구기완 (대전 VIP 태권도장 관장)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3·끝>

앞 편에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과 활동을 통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Taekwondo spirit is overcoming 'the Self' and then benefiting 'the World' through Taekwondo practices and activities.)이다.”라고 간단명료하게 규정해 왔다. 이는 전 세계 모든 태권도인들이 각 별히 유념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으로서 핵심적·정신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즉 태권도인으로서 자아 성취와 사회 발전에 정진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된 마음가짐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가? 형이상학적 이념성을 띤 정신 문구를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청된다. 이 대안이 바로 ‘실천 덕목(practical virtues)’ 또는 ‘생활신조(creed or life principle)’이다. 이는 추상적 태권도 정신이 현실생활에서 이행될 수 있는 덕목이자 현장 교육에서 주요한 인성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기초 정신을 적절히 반영하는 덕목들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그간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되었던 수많은 어휘들 중에서 앞의 태권도 정신과 개념적 연관성을 가지면서 현 시대의 태권도 상황과 가치성에 부합하는 덕목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열정’, ‘용기’, ‘인내’, ‘예의’, ‘정의(正義)’ 등 다섯 가지가 선별되었다. 이 다섯 가지 신조는 이전부터 태권도 정신이나 인성교육의 내용

으로 거론되었던 덕목들이다. 이 가운데 ‘용기’, ‘인내’, ‘예의’ 등은 태권도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덕목이지만, ‘열정’과 ‘정의(正義)’는 다른 신조에 비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들 수련자 5대 신조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열정(Passion)은 태권도 열정을 말하는데 참다운 태권도인의 필수적 조건으로 으뜸가는 덕목으로 꼽힌다. 열정 없이는 정신도 없으므로 수련자들이 평생 수련과 활동 또는 헌신을 실천한다는 투철한 실천적 태도를 의미한다.

용기(Courage)는 ‘나를 이김’이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핵심 덕목이다. 어려운 목표와 난관을 굳센 마음가짐과 결단력으로 극복하고,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센 정신이자 자신감, 도전 정신의 원천이다.

인내(Endurance)는 목표 성취를 위한 의지력으로 “어려움이나 부정적 욕구를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곳곳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 노력이며 ‘참을성’, ‘끈기’, ‘절제’ 등 유사 단어로도 표현된다.

예의(Courtesy)는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핵심 덕목이다. 예의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인사’, ‘염치’ 등 행동으로 표현되는 높고 값진 태도이다. 예의는 사회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무예인들 사이에는 지켜야 할 규범과도 같다. 배려, 존중, 존경, 겸손, 겸양 등 유의어가 있다.

정의(Justice)는 도덕성 차원의 다른 덕목과

는 달리 법적인 사안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올림픽 행진을 지속 중인 태권도 경기가 존속되고 발전되는 정신적 기반으로서 정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도자급 태권도 인사들이 사리사욕이 배제된 합법성에 근거한 올바르고 정당한 행동이 정직 또는 정의감에서 도출된다.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5개 덕목의 밀접한 관련성은 다음 도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태권도 정신과 5개 실천 덕목의 구성과 상관성



김영선 (연세대학교 겸직 교수)

“지도자여!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라”

KTA, 도장 상담 α에서 ω까지 총망라한 교재 내놓아



『KTA 태권도장 상담 매뉴얼』

KTA TAEKWONDO ACADEMY
COUNSELING MANUAL

진재성·정문자·박한성·고상현·
김윤희·천성민·김병준·이유나 지음
(프로젝트 매니저 이종천)
상아기획 펴냄
22,500원

첫인상은 소중하다. 인생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을 만큼 비중 높은 삶의 요소다. 이 맥락에서, 의사소통은 어떠한 첫인상을 남기느냐를 좌우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이 연장선 위에서, 상담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통로로서도 기능한다.

태권도는 무도다. 따라서 태권도장은 원천적으로 지도와 수련이 이뤄지는 교육 마당이다. 요즘은 외연이 확장돼 상담의 장(場)으로서도 작용한다. 지도자(관장·사범)와 수련생 부모 간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구실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린이 수련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장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도장 성장을 꾀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예비 수련생과 그 부모가 지도자와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며 첫 눈에 어떤 인상을 받느냐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아울러 이후 지속적으로 수련할 적당한 배움터인지를 결정짓는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KTA 태권도장 상담 매뉴얼』은 이처럼 갈수록 증대되는 상담의 중요성에 발맞춰 나온 교재로서, 지도자가 도장 경영을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2007년부터 태권도장 활성화 위해 고심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도장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출판해 온 교육 과정 교재의 아홉 번째 작품이다. “태권도장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태권도장의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일

선 지도자들의 높은 평가에 고무된 KTA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상담 교육 저작물이다. 이 책은 도장 상담의 α에서 ω까지 모든 과정을 망라해 담았다. KTA가 그동안 펴낸 여덟 권의 교육 교재가 실기 위주의 실용서였다면, 이 책은 지도자의 도장 상담에 필요한 교육서라고 할 수 있다.

내용뿐 아니라 구성 형식도 뛰어나다.

먼저 총론으로 상담 이론과 기법을 다룬 뒤 각론에서 각 상담 단계별로 세세히 설명함으로써 막 도장 운영의 첫걸음을 뗀 지도자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준비에서부터 도장 등록→수련 프로그램→수련 효과→심사 및 대화→구성원 간 갈등과 수련생 부상→차량 운행→휴관과 퇴관 등 단계별로, 도장을 운영하며 신경 써야 할 모든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도장 등록 상담의 핵심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지도자가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다.

이를 각 부문별 전문가 8명이 저술함으로써, 충실도는 물론 신뢰도도 높아졌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위에서 말했듯, 태권도장은 또 하나의 교육 공간이다. 인성 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까닭이다. 교육자에게 교육 철학과 가치관이 귀중하듯, 태권도 지도자에게엔 상담 철학과 상담 이론이 요긴하다.

전국 태권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상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범주화해 저술한 이 책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㉞

전통주의와 사실주의 대립 구도 속

객관적으로 태권도 기원을 들여다본 수작



『한국 태권도 연구사의 검토』
A REVIEW OF THE HISTORY OF
RESEARCH ON TAEKWONDO IN KOREA
한진석·김방출 지음
글누리 펴냄
17,000원

역사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①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②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도 “①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②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이 진행되거나 존재해 온 과정이나 추이.”라고 비

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뜻매김의 연장선에서, 두 사전은 역사를 “인류 사회 변천을 연구하는 학문인 역사학.”과 동의어로 봤다. 태권도는 발을 뜻하는 ‘태(踏)’, 손을 나타내는 ‘권(拳)’, 무술기에 등을 닦는 수련의 길을 의미하는 ‘도(道)’를 포괄하는 개념의 무도다. 무예 및 무술을 통틀어 이르는 무도는 분명 인류 사회가 지닌 특징 중 하나다. 그렇다면 태권도사는 역사학의 한 범주로서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사를 올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역사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

『한국 태권도 연구사의 검토』는 이런 역사 연구 정신과 자세를 잊지 않고 태권도 기원을 객관적 시각으로 들여다본 작품이다.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 무예로 알려진 태권도의 근원을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논쟁 구도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태권도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저자들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엿보이는 수작이다. 역사 연구를 단지 과거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1차 자료를 기계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데서 피하기 힘든 오해를 불식하려고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온다. 지금 이 시대 아시아권의 무예 역사 연구 흐름을 볼 때 이 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무예의 기원과 관련된 역사적 정통성의 이슈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체육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다.”(머리말 중에서)

라고 강조한 저자의 주장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 책은 태권도 기원 논쟁 대립 - 전통주의 대 사실(수정주의)주의 - 속에 펼쳐지고 있는 태권도 역사 연구 과정을 짚어 보는 데 온 힘을 다하려 한 저자(들)의 노력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저자의 애씀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 등을 직시하는 가운데 태권도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보다 더 발전적이고도 새롭게 다지려는 노력의 일부다. 이러한 집필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요체를 소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대조하며 살폈다. 두 입장이 지니는 정당성과 모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한 주장에 몰입됨을 경계하며 줄곧 객관성을 지키려고 한 저자의 마음은 구성 방법에서도 배어난다. 멀리 고조선의 무예부터 조선의 무예까지, 그리고 광복 전후부터 1990년대까지 태권도의 특징·변천·기법·규칙 등을 폭넓게 고찰했다. 또 수박·권법·택견·씨름 등 여러 맨손 무예를 소개함도 잊지 않았다. 이 맥락에서, 저자는 특정한 결론으로 독자를 유도하거나 선불리 옳고 그름을 가름하려 하지 않았다. “다양한 지적 성찰만이 허락할 수 있는 지식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지적 궁금증의 행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으며”(머리말 중에서)라고 적은 데에서, 풍요롭게 펼쳐진 사유와 상상의 공간 속으로 독자를 초대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

2019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대회
(2019년 7월 4~10일, 춘천 호반체육관)

▲ Senior Male △ -54kg = ① Jun-seo BAE(KOR) ② Seong-gyu LEE(KOR) ③ Min yeong LEE(KOR), Samuel BEDART(FRA) △ -58kg = ① Chae-ho LEE(KOR) ② Kurt PAJUELAS(PHP) ③ Dae-ik KIM(KOR), Dex ian CHAVEZ(PHP) △ -63kg = ① Jeongwoo PARK(KOR) ② Ji won OH(KOR) ③ Juirdo CANI(ALB), Sang won HAN(KOR) △ -68kg = ① Min-woo NOH(KOR) ② Byeong-kyu PARK(KOR) ③ Ji-min PARK(KOR), Kang-eun SEO(KOR) △ -74kg = ① Sang-uk PARK(KOR) ② Ho-hyun CHO(KOR) ③ Jeeseok KIM(KOR), Yonggen AN(CHN) △ -80kg = ① Woo hyeok PARK(KOR) ② Nurlan MYRZABAYEV(KAZ) ③ Seung han Bang(KOR), Hwan NAMGOONG(KOR) △ -87kg = ① Seongi LEE(KOR) ② Gwang-won SEO(KOR) ③ Jinseok LEE(KOR), Young ho KIM(KOR) △ +87kg = ① Kyodan IN(KOR) ② Ruslan ZHAPAROV(KAZ) ③ Yoon min BAE(KOR), Min-kwang CHO(KOR)

▲ Senior Female △ -46kg = ① Mi-reu KANG(KOR) ② Veronica GARCES(PHP) ③ Choi SOO-YOUNG(KOR), Lingmin LI(CHN) △ -49kg = ① Bora KANG(KOR) ② Weichun LIN(TWD) ③ Jae-young SIM(KOR), Madinabonu MANNOPOVA(UZB) △ -53kg = ① Xiaojing WEI(CHN) ② Myeongjin KANG(KOR) ③ Cherry LIM(KOR), Sohui KIM(KOR) △ -57kg = ① Meiling ZHOU(CHN) ② Geum-byeol LIM(KOR) ③ Ha-young WOO(KOR), Stacey HYMER(AUS) △ -62kg = ① Yann yeu CHEN(TPE) ② Chae-eun JEON(KOR) ③ Seo-hui HAN(KOR), Yuri JUNG(KOR) △ -67kg = ① Hyeri OH(KOR) ② Hyeon-jeong HAN(KOR) ③ Yuqing HAN(CHN), Shunan XIAO(CHN) △ -73kg = ① Mi-na MYEONG(KOR) ② Xiaoqian LIU(CHN) ③ Shin-bi KIM(KOR), Kristina MISHCENKO(UKR) △ +73kg = ① Bich-na KIM(KOR) ② Svetlana OPSIPOVA(UZB) ③ Lei XU(CHN), Reba STEWART(AUS)

▲ Medal Tally = ① Korea ② China ③ Chinese Taipei

제28회 국방부장관기 단체 대항 대회
(2019년 9월 19~26일, 문경 국군체육부대)

▲ 남자 중등부 △ 핀급 = ① 양화찬(서원중) ② 연우진(오정중) ③ 김주현(청주중), 김영찬(상무중) △ 플라이급 = ① 석지성(홍성중) ② 박정원(와룡중) ③ 김재현(청주중), 정우혁(본오중) △ 밴텀급 = ① 유승민(성문중) ② 여신울(풍생중) ③ 서동근(천안북중), 김시영(울산중) △ 페더급 = ① 조환주(신관중) ② 서원상(부강중) ③ 서현우(풍생중), 정택진(권선중)

△ 라이트급 = ① 이재준(천안성정중) ② 이준형(홍성중) ③ 우여준(북현중), 안향식(천안성정중) △ L-웰터급 = ① 박세현(사당중) ② 송유빈(천안성정중) ③ 최범하(천안성정중), 송민호(서원중) △ 웰터급 = ① 양찬우(전주양지중) ② 김인찬(전북체중) ③ 김찬영(중화중), 최준혁(울산중) △ L-미들급 = ① 정민석(안화중) ② 민지환(울산중) ③ 지윤상(서원중), 황지웅(계산중) △ 미들급 = ① 박상원(오정중) ② 이준서(신관중) ③ 김승현(춘성중), 김현수(울산중) △ L-헤비급 = ① 이진욱(울산중) ② 신윤섭(금정중) ③ 윤건우(중화중), 최주민(신원중) △ 헤비급 = ① 조성민(송탄중) ② 황수범(포항영신중) ③ 이정민(와룡중), 이근욱(풍생중)

▲ 여자 중등부 △ 핀급 = ① 정혜인(광혜원중) ② 조희재(신관중) ③ 윤보영(광남중), 이지민(부천부흥중) △ 플라이급 = ① 김민서(동평중) ② 박시현(광주체중) ③ 박서정(고양제일중), 김민경(장림여중) △ 밴텀급 = ① 오서린(칠곡중) ② 이한나(오정중) ③ 김형민(장림여중), 유현지(부천동여중) △ 페더급 = ① 윤도영(안산성호중) ② 인수완(정각중) ③ 최서우(송탄중), 정혜민(중화중) △ 라이트급 = ① 김가현(광주체중) ② 김유린(홍해중) ③ 박유진(태현중), 이소명(중화중) △ L-웰터급 = ① 염은빈(정각중) ② 김승연(새브리중) ③ 김소연(오정중), 손태연(서원중) △ 웰터급 = ① 유하경(부천부흥중) ② 김나림(풍각중) ③ 안수연(봉의중), 임밝은(별남체중) △ L-미들급 = ① 이가현(시흥중) ② 광민주(신원중) ③ 이유진(풍각중), 김선희(새브리중) △ 미들급 = ① 권슬아(동평중) ② 이윤서(사당중) ③ 엄나윤(옥동중), 문희원(오정중) △ L-헤비급 = ① 이수연(사당중) ② 안효빈(무주중) ③ 차서현(영광여중), 이승주(봉명중) △ 헤비급 = ① 정수지(서원중) ② 박주현(성안중) ③ 박주원(울산스포츠포학중), 배인서(동영여중)

▲ 남자 고등부 △ -54kg = ① 김종명(대전체고) ② 송태량(홍성고) ③ 허진(성주고), 박용빈(강원대사대부고) △ -58kg = ① 유희서(전북체고) ② 김도연(청주공업고) ③ 주재혁(천안상업고), 김시윤(포항영신고) △ -63kg = ① 김동영(금정고) ② 심인우(충남체고) ③ 신광철(대전체고), 연재호(충북체고) △ -68kg = ① 성유현(강원대사대부고) ② 홍석훈(전주영생고) ③ 이래원(상고), 김태문(홍성고) △ -74kg = ① 최보성(풍생고) ② 김강현(강원체고) ③ 하동수(충남체고), 김현우(삼일고) △ -80kg = ① 김현승(강원대사대부고) ② 김동준(울산스포츠포학고) ③ 김준상(선인고), 황창민(영천고) △ -87kg = ① 송현근(천안제일고) ② 김영민(강원대사대부고) ③ 김우진(양주고), 김민우(강화고) △ +87kg = ① 조윤희(한성고) ② 손태환(전주영생고) ③ 황동규(협성고), 조승민(강원체고)

▲ 여자 고등부 △ -46kg = ① 황예빈(강화여고) ② 송윤서(대전체고) ③ 금가은(평내고), 조유진(충북체고) △ -49kg = ① 이은지(국체고) ② 한예인(강화여고) ③ 송채린(부산체고), 김나연(공주영명고) △ -53kg = ① 이승민(강화여고) ② 채민희(양주고) ③ 경채원(대전체고), 신하영(대전체고) △

-57kg = ① 남유림(백석고) ② 김혜원(대전체고) ③ 박봄이(시온고), 박한솔(대구보건고) △ -62kg = ① 임예은(경북체고) ② 김가령(영송여고) ③ 김보연(전북체고), 박인희(강원체고) △ -67kg = ① 김나희(강화여고) ② 이하리(정발고) ③ 박세령(대구보건고), 박은지(성안고) △ -73kg = ① 진가연(성안고) ② 이주영(대구보건고) ③ 오승주(강화여고), 홍가은(인천체고) △ +73kg = ① 김희연(시흥고) ② 유재은(선덕여고) ③ 김윤주(국체고), 변지영(영송여고)

▲ 남자 대학부 △ -54kg = ① 김세윤(한국체대) ② 박지민(우석대) ③ 이현석(한국나사렛대), 김진성(우석대) △ -58kg = ① 주동훈(동아대) ② 이의현(용인대) ③ 김희구(상명대), 강태욱(전주대) △ -63kg = ① 김태용(경희대) ② 정성훈(경남대) ③ 박진요(전주대), 전주현(한국나사렛대) △ -68kg = ① 김민우(용인대) ② 권도현(계명대) ③ 이민혁(고신대), 이민혁(동의대) △ -74kg = ① 최문수(상명대) ② 최진수(한국체대) ③ 정지웅(광주대), 조현명(동아대) △ -80kg = ① 이수관(경남대) ② 노우석(상명대) ③ 안범섭(세종대), 유재민(용인대) △ -87kg = ① 문지찬(용인대) ② 김영호(경희대) ③ 정다호(경민대), 안준식(상명대) △ +87kg = ① 이동주(용인대) ② 강홍근(경희대) ③ 최승우(경민대), 김태수(상지대)

▲ 여자 대학부 △ -46kg = ① 한나연(한국체대) ② 안버리(용인대) ③ 최수영(경희대), 김한별(한국나사렛대) △ -49kg = ① 황진아(한국체대) ② 신유정(고신대) ③ 김수민(조선대), 김지혜(용인대) △ -53kg = ① 이은종(경희대) ② 김민서(경희대) ③ 한소연(용인대), 박지원(우석대) △ -57kg = ① 정은비(한국체대) ② 이주아(동의대) ③ 박정은(동의대), 엄지은(경남대) △ -62kg = ① 한서희(조선대) ② 김태정(우석대) ③ 김지원(한국체대), 한수연(용인대) △ -67kg = ① 장은지(경희대) ② 김가현(동의대) ③ 임수민(우석대), 이세라(한국체대) △ -73kg = ① 윤도희(한국체대) ② 황지은(조선대) ③ 신보영(동의대), 송예리(경희대) △ +73kg = ① 김수연(경희대) ② 김민주(조선대) ③ 유예지(용인대), 손수아(한국체대)

▲ 남자 일반부 △ -54kg = ① 유혁(김포시청) ② 최현근(포항시체육회) ③ 이주성(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박영철(국군체육부대) △ -58kg = ① 조시연(김포시청) ② 허성주(한국가스공사) ③ 박종현(성남시청) △ -63kg = ① 이용관(영천시청) ② 정찬호(강화군청) ③ 김형우(국군체육부대), 윤지원(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 -68kg = ① 박승준(수원시청) ② 송승우(포항시체육회) ③ 김민수(성남시청), 전호빈(김포시청) △ -74kg = ① 신동윤(삼성에스원태권도단) ② 조양우(성남시청) ③ 원중훈(한국가스공사), 유준상(국군체육부대) △ -80kg = ① 김현승(한국가스공사) ② 최광진(국군체육부대) ③ 장시준(김포시청), 이시형(영천시청) △ -87kg = ① 이승환(한국가스공사) ② 김현승(한국가스공사) ③ 황승욱(성남시청), 김덕제(수원시청) △ +87kg = ① 박재광(한국가스공사) ② 박윤근(한국가스공사) ③ 신재원(강화군청), 문정훈(용인시청)

▲ 여자 일반부 △ -46kg = ① 최희정(국군체육부대) ② 김수림(성주군청) ③ 조미희(김제시청), 박은아(안산시청) △ -49kg = ① 임은지(동래구청) ② 박고은(국군체육부대) ③ 김주인(고양시청), 신지혜(고양시청) △ -53kg = ① 임하경(성주군청) ② 이화정(국군체육부대) ③ 최희선(영천시청), 최수지(안산시청) △ -57kg = ① 홍지양(수성구청) ② 박영지(김제시청) ③ 윤정연(인천광역시 동구청) △ -62kg = ① 정은화(영천시청) ② 안해인(김제시청) ③ 최유정(수성구청), 여슬기(안산시청) △ -67kg = ① 장유진(한국가스공사(광주)) ② 김다솔(고양시청) ③ 김신비(인천광역시 동구청), 장희영(성주군청) △ -73kg = ① 김빛나(인천광역시 동구청) ② 이혜진(동래구청) ③ 유경민(수성구청), 최가영(성주군청) △ +73kg = ① 류태민(김제시청) ② 최민경(성주군청) ③ 김효정(안산시청), 양승민(영천시청)

제100회 전국 체육 대회
(2019년 10월 5~9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 남자 고등부 △ -54kg = ① 석하빈(충남) ② 이찬영(서울) ③ 김종명(대전), 이인규(전북) △ -58kg = ① 하선우(충북) ② 서정민(서울) ③ 이승훈(경기), 조준호(대구) △ -63kg = ① 진호준(경기) ② 서주형(광주) ③ 박상현(충북), 박진서(서울) △ -68kg = ① 이상렬(울산) ② 이영준(경기) ③ 김승완(인천), 문지용(경북) △ -74kg = ① 김대영(강원) ② 이시원(대구) ③ 강혁준(제주), 정지우(인천) △ -80kg = ① 강상현(제주) ② 김민규(경기) ③ 박덕영(강원), 박치우(충남) △ -87kg = ① 최민수(경남) ② 조진서(경북) ③ 김동현(울산), 김민준(대구) △ +87kg = ① 손태환(전북) ② 신민철(충북) ③곽재언(경북), 조재연(강원)

▲ 여자 고등부 △ -46kg = ① 이예지(경북) ② 황예빈(인천) ③ 김경란(부산), 이선주(대전) △ -49kg = ① 강미르(경북) ② 정아정(부산) ③ 박소현(광주), 조주희(강원) △ -53kg = ① 강보라(경북) ② 이예린(울산) ③ 박승아(전북), 이승민(인천) △ -57kg = ① 서타아(대전) ② 김민경(광주) ③ 구호진(경남), 남유림(인천) △ -62kg = ① 남민서(울산) ② 송나연(경기) ③ 금지혜(인천), 김수현(서울) △ -67kg = ① 송다빈(울산) ② 박은지(경기) ③ 박세령(대구), 장유진(서울) △ -73kg = ① 엄태은(강원) ② 이주영(대구) ③ 강다현(경북), 진가연(경기) △ +73kg = ① 신지영(경남) ② 백선경(서울) ③ 김희연(경기), 박정현(부산)

▲ 남자 대학부 △ -54kg = ① 이민영(경기) ② 김현목(울산) ③ 박승원(충남), 최원철(충북) △ -58kg = ① 장준(충남) ② 박주연(부산) ③ 소준성(전북), 조성호(서울) △ -63kg = ① 이기범(광주) ② 양태양(서울) ③ 김병지(경남), 박정우(인천) △ -68kg = ① 박지민(인천) ② 권병진(경북) ③ 김가람(광주), 박민찬(충북) △ -74kg = ① 김지석(서울) ② 민정준(대구) ③ 신

관식(충북), 장민수(충남) △ -80kg = ① 강민우(부산) ② 박우혁(강원) ③ 김현웅(대전), 천호현(경기) △ -87kg = ① 변길영(부산) ② 박인호(경기) ③ 유도원(전북), 이수범(경남) △ +87kg = ① 윤종현(대구) ② 박상훈(부산) ③ 배윤민(서울), 정범구(충북)

▲ 여자 대학부 △ -46kg = ① 김정은(서울) ② 감지연(대전) ③ 김유라(광주), 한나연(제주) △ -49kg = ① 추다인(대구) ② 황유시(대전) ③ 신유정(부산), 황진아(서울) △ -53kg = ① 임금별(서울) ② 신희진(충북) ③ 김성경(부산), 안유란(전북) △ -57kg = ① 김유진(서울) ② 정은비(경북) ③ 김보경(경남), 박지승(부산) △ -62kg = ① 장은지(경기) ② 한서희(광주) ③ 안혜영(강원), 한수연(대전) △ -67kg = ① 조희경(대구) ② 윤설화(강원) ③ 이수국(전북), 황유진(전남) △ -73kg = ① 명미나(경기) ② 신정은(서울) ③ 김윤정(충남), 황지은(광주) △ +73kg = ① 윤도희(서울) ② 김한서(광주) ③ 김지우(부산), 손수아(울산)

▲ 남자 일반부 △ -54kg = ① 배준서(인천) ② 고호재(경기) ③ 박영철(서울), 허성주(대구) △ -58kg = ① 김태훈(경기) ② 정찬호(인천) ③ 김대익(울산), 이용관(경북) △ -63kg = ① 김민혁(인천) ② 박동호(대전) ③ 박종현(경기), 조강민(대구) △ -68kg = ① 이대훈(대전) ② 황연준(강원) ③ 고용재(경북), 류대한(전북) △ -74kg = ① 김석배(울산) ② 김현승(경남) ③ 노광훈(광주), 원종훈(대구) △ -80kg = ① 이상제(전북) ② 김용식(대전) ③ 김현승(경남), 박용현(대구) △ -87kg = ① 조철호(강원) ② 이승환(대구) ③ 이바름(경북), 이선기(전북) △ +87kg = ① 이교근(대구) ② 강연호(경기) ③ 박윤근(경남), 이동영(제주)

▲ 여자 일반부 △ -46kg = ① 박은아(경기) ② 김수림(경북) ③ 조희은(충남), 최희정(전남) △ -49kg = ① 심재영(경기) ② 김소희(전남) ③ 박고은(서울), 조혜진(경북) △ -53kg = ① 김민정(전남) ② 정선희(충북) ③ 임하경(경북), 홍지양(대구) △ -57kg = ① 이아름(경기) ② 문소윤(서울) ③ 윤정연(인천), 윤현승(충남) △ -62kg = ① 박가형(강원) ② 전채은(경기) ③ 정은화(경북), 최인선(부산) △ -67kg = ① 서소영(서울) ② 김잔디(울산) ③ 배혜인(충북), 장희영(경북) △ -73kg = ① 오혜리(강원) ② 신현선(서울) ③ 김신비(인천), 전소희(충북) △ +73kg = ① 안새봄(강원) ② 이다빈(서울) ③ 김효정(경기), 양승혜(제주)

▲ 남자 일반부(해외) △ -58kg = ① 허승범(재광대한체육회) ② 카에를(인도네시아) ③ 배 라이언(재미대한체육회), 장대휘(재미대한체육회) △ -68kg = ① 윌트 아이작(재미대한체육회) ② 강형래(재미대한체육회) ③ 천영주(재중대한체육회), 허진범(재광대한체육회) △ -80kg = ① 김수범(재미대한체육회) ② 알렉산더 알렌(재광대한체육회) ③ 파리스(인도네시아), 황일상(재중대한체육회) △ +80kg = ① 최영훈(재호대한체육회) ② 김신우(재미대한체육회) ③ 조창연(재필대한체육회), 황경철(인도네시아)

▲ 여자 일반부(해외) △ -49kg = ① 강지나(재일대한체육회) ② 한누리(재호대한체육회) ③ 고미림(재중대한체육회), 메르타(인도네시아) △ -57kg = ① 나디아(인도네시아) ② 서다희(재미대한체육회) ③ 감지연(재일대한체육회), 장민(스페인) △ -67kg = ① 감지혜(재일대한체육회) ② 손은희(재중대한체육회) ③ 난다(인도네시아) △ +67kg = ① 리린(인도네시아) ② 김 에스더(재미대한체육회)

2019 경찰청장기 전국 남녀 우수 선수 선발 대회
(2019년 10월 27~31일, 경남 창원 군민체육관)

▲ 남자부 △ -54kg = ① 송태량(홍성고) ② 김종명(대전체고) ③ 고호재(수원시청), 최재민(강화고) △ -58kg = ① 김용환(한국체대) ② 조성호(한국체대) ③ 서정민(한성고), 이경전(대전체고) △ -63kg = ① 진호준(안중고) ② 김태용(경희대) ③ 조강민(한국가스공사), 형인혁(동아대) △ -68kg = ① 강재권(한국체대) ② 노민우(용인대) ③ 김두환(전주영생고), 조재연(양산고) △ -74kg = ① 김대용(한국체대) ② 최문수(상명대) ③ 장민수(한국가스공사), 조호현(수원시청) △ -80kg = ① 강민우(동아대) ② 이상준(강화구청) ③ 김지훈(충남대), 이화준(성남시청) △ -87kg = ① 박인호(용인대) ② 김현승(한국가스공사) ③ 전재경(진천군청), 황현대(한국체대) △ +87kg = ① 박근동(한국체대) ② 배윤민(한국체대) ③ 이동주(용인대), 박재광(한국가스공사)

▲ 여자부 △ -46kg = ① 황예빈(강화여고) ② 강미르(성주여고) ③ 김수림(성주군청), 한나연(한국체대) △ -49kg = ① 강보라(성주여고) ② 문영선(설악고) ③ 조주희(강원체고), 조혜진(영천시청) △ -53kg = ① 안유란(경희대) ② 김민서(경희대) ③ 강명진(경희대), 이혜정(부천정보산업고) △ -57kg = ① 정은비(한국체대) ② 윤정연(인천광역시 동구청) ③ 박동영(공주영명고), 유송화(용인대) △ -62kg = ① 장은지(경희대) ② 남민서(울산스포츠과학고) ③ 한수연(용인대), 전채은(고양시청) △ -67kg = ① 송다빈(효정고) ② 장유진(한국가스공사(광주)) ③ 장희영(성주군청), 한현정(용인대) △ -73kg = ① 김빛나(인천광역시 동구청) ② 신현선(서울시청) ③ 전소희(청주시청), 엄태은(강원체고) △ +73kg = ① 안새봄(춘천시청) ② 김효정(안산시청) ③ 송예리(경희대), 방소연(청주시청)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 2019 KTA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 : 무주 태권도원 | 11월 2(토)~3일(일)
- 2019 국가대표 후보 선수 국외 전지훈련 : 프랑스 파리 | 11월 4(월)~13일(수)
- 2019 청소년대표팀 국외 전지훈련 : 대만 | 11월 18(월)~27일(수)
- 2019 KTA 태권도 시범 공연 대회 : 인천 송도 | 11월 23(토)~24일(일)
- 제12회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 강원 동해 | 11월 23(토)~24일(일)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 2019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파이널 : 러시아 모스크바 | 12월 6(금)~7일(토)
- 2019 우시(無錫)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 중국 우시 | 12월 18(수)~20일(금)

스도쿠(SUDOKU)

초급

4			5					1
		5	3					8
7	9		4	2		3	5	
	6		9			8		2
	8			7			6	
1		9	2		8		7	
	4	6		3	9		2	7
	7				4	9		
9					2			8

중급

	6		3		7			5
	4				8			3
		3	6					1
	7				6			
		1	5			8		
							2	
3					9	1		
7			8					5
9			1		2			4

스도쿠 푸는 법

- ① 가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② 세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③ 작은 상자(3 x 3 =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스도쿠(SUDOKU) 퍼즐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아래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맞는 도복과 배송 시 확인을 위해 입을 분의 키(cm)와 상의 크기(100-105 등) 및 전화번호를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②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 ③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편집팀 앞.



제 176 호 초급 정답

9	6	1	7	4	2	8	3	5
8	5	4	3	1	6	2	9	7
3	2	7	8	5	9	6	1	4
6	7	8	1	2	4	3	5	9
4	9	5	6	3	8	1	7	2
1	3	2	5	9	7	4	6	8
7	8	9	2	6	1	5	4	3
5	4	6	9	8	3	7	2	1
2	1	3	4	7	5	9	8	6

제 176 호 중급 정답

7	9	2	4	1	6	8	5	3
4	1	8	9	5	3	2	6	7
6	5	3	2	7	8	4	9	1
1	7	4	6	2	9	3	8	5
8	3	9	7	4	5	6	1	2
2	6	5	3	8	1	9	7	4
5	4	7	8	6	2	1	3	9
3	2	6	1	9	7	5	4	8
9	8	1	5	3	4	7	2	6

제176호 정답 및 정답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길 9 용민 스위트빌 302호
 김희자(176cm, 105호, 010-6254-702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원천 주공아파트 206동 906호
 박상준(170cm, 100호, 010-8618-1198)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쌍용 예가아파트 103동 1401호
 김영란(162cm, 95호, 010-2681-3939)



training

ADIDAS TAEKWONDO



